

특집

각시도협회 1987년도의 설계

본회 홍보실에서는 1987년도를 맞이하여 서울을 위시한 14개 시도협회와 각지역의 학교, 체육관을 탐방하며 새해설계를 취재하였다. 각 시도협회에서는 년초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지난해의 사업을 마무리짓고 '87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고, 태권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용훈련장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태권도 회관 건립구상 등의 희망찬 모습들이었다.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의 기본 여건 조성에 노력하며 학교의 명예와 고향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으며, 일선도장에서는 사회체육의 일원으로서 각종 어린이 조기 교육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 대한태권도협회 -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 국기원 ·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 서울특별시협회 - 14개 시도협회의 선두주자 / 광영고등학교
- 대구협회 - 태권도회관 건립추진 / 오성고등학교
- 강원도협회 - 지역별 사범 매월 각종 세미나 개최 / 강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 인천협회 - 3월초 전용훈련장 완공 / 금나무체육관 / 하나로 태권도장
- 경기도협회 - 각종 대회유치로 경기도 태권도의 질적향상도모 / 구리시 부양국민학교
- 광주협회 - 경기(競技) 태권도 활성화 도모 / 북성중학교
- 충남협회 - 태권도발전의 전환점 이룰 터 / 오현체육관
- 충북협회 - 협회행정의 체계화로 효율적인 운영담당 / 동부체육관 / 청주남중학교
- 전북협회 / 전북체육고등학교
- 전남협회 - 총화단결주창 / 학다리고등학교
- 경북협회 - 단합대회로 협회운영 활성화 모색 / 영천중학교 / 영천고등학교
- 경남협회 -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목표로 임직원들 심기일전 / 경남체육고등학교
- 제주도협회 - 대통령기대회 유치 등으로 단합된 제주 태권도 힘과시 / 제주중앙체육관
- 부산협회 / 부산체육고등학교

대한태권도협회

1987년도 사업계획

| 월 | 일 | 사 | 업 | 명 | 장 | 소 | 비 | 고 | | | | | | |
|----|---------|--------|---------------|---------------------|---|---|---|---|---|---|---|---|---|---|
| 3 | 4-13 | 제53기 | 지도자 | 교육 3급(일반과정) | 국 | 기 | 원 | 국 | 기 | 원 | | | | |
| | 10-11 | 1987년도 | 전국 심판 | 보수교육(1, 2, 3급 및 코치) | " | " | " | " | " | " | | | | |
| | 14 | 1987년도 | 1차 5,6단 | 고단자 심사대회(년 4회) | " | " | " | 국 | 기 | 원 | | | | |
| | 16-21 | 1987년도 | 전국 춘계 |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 " | " | " | " | " | " | | | | |
| 4 | 24-4·11 | 제54기 | 지도자 | 교육 2급(연수과정) | " | " | " | 국 | 기 | 원 | | | | |
| | 1-3 | 1987년도 | 국가대표 | 선수 1차 선발대회 | " | " | " | " | " | " | | | | |
| | 9-10 | 1987년도 | 국가대표 | 선수 최종 선발대회 | " | " | " | " | " | " | | | | |
| | 21-22 | 1987년도 | 전국 여자 | 개인 선수권 대회 | " | " | " | " | " | " | | | | |
| 5 | 6-15 | 제54기 | 지도자 | 교육 3급 | " | " | " | 국 | 기 | 원 | | | | |
| | 미 정 | 제16회 | 전국 소년 | 체육 대회 | 울 | 산 | 대 | 한 | 체 | 육 | 회 | | | |
| | 15-17 | 제2회 | 월드컵 | 태권도 대회 | 핀 | 랜 | 드 | 세 | 계 | 태 | 권 | 도 | 연 | 맹 |
| | 22 | 1987년도 | 여자 국가대표 | 선수 선발대회 | 국 | 기 | 원 | " | " | " | | | | |
| 6 | 13 | 1987년도 | 2차 5, 6, 7 단 | 고단자 심사대회 | " | " | " | 국 | 기 | 원 | | | | |
| | 13-16 | 제22회 | 대통령 | 하사기 쟁탈 전국 단체 대항전 | 부 | 산 | " | " | " | " | | | | |
| | 20 | 제18회 | 주한 외국인 | 개인 선수권 대회 | 국 | 기 | 원 | " | " | " | | | | |
| 7 | 1-10 | 제55기 | 지도자 | 교육 3급 | " | " | " | 국 | 기 | 원 | | | | |
| | 2-11 | 제56기 | 지도자 | 교육 3급 | " | " | " | " | " | " | | | | |
| 9 | 19 | 1987년도 | 3차 5, 6, 7 단 | 고단자 심사대회 | " | " | " | " | " | " | | | | |
| | 21-26 | 1987년도 | 전국 추계 |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 " | " | " | " | " | " | | | | |
| 10 | 7-10 | 제8회 | 세계태권도 | 선수권 대회 | 스 | 패 | 인 | 세 | 계 | 태 | 권 | 도 | 연 | 맹 |
| | 미 정 | 제68회 | 전국 체육 | 대회 | 광 | 주 | 대 | 한 | 체 | 육 | 회 | | | |
| 11 | 4-6 | 1987년도 | 전국 우수선수 | 선발대회 | 국 | 기 | 원 | " | " | " | | | | |
| | 11-21 | 지도자 | 교육 2급 | " | " | " | " | " | " | " | | | | |
| 12 | 5 | 1987년도 | 제4차 5, 6, 7 단 | 고단자 심사대회 | " | " | " | 국 | 기 | 원 | | | | |

1987년도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기술심의회회장 : 권 경 욱
 기술심의회부회장 : 전재규·김용서

| 분 | 과 | 명 | 위 | 원 | 장 | 부 | 위 |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기 | 획 | 분 | 과 | 위 | 원 | 회 | 이 | 승 | 국 | 이 | 덕 | 태 | 강 | 세 | 형 | · | 안 | 용 | 규 | · | 이 | 용 | 우 | · | 송 | 승 | 복 | | |
| | | | | | | | 장 | 순 | 권 | 남 | 상 | 덕 | | | | | | | | | | | | | | | | | |
| 경 | 기 | 분 | 과 | 위 | 원 | 회 | 김 | 영 | 삼 | 김 | 기 | 용 | 조 | 성 | 근 | · | 배 | 석 | 출 | · | 양 | 정 | 승 | · | 박 | 수 | 건 | | |
| | | | | | | | 최 | 주 | 열 | 이 | 상 | 현 | · | 김 | 상 | 태 | · | 김 | 명 | 철 | · | 이 | 덕 | 희 | | | | | |
| 심 | 판 | 분 | 과 | 위 | 원 | 회 | 안 | 영 | 택 | 김 | 정 | 대 | 장 | 용 | 갑 | · | 이 | 종 | 한 | · | 김 | 갑 | 일 | · | 정 | 창 | 영 | | |
| | | | | | | | 조 | 호 | 철 | 유 | 인 | 철 | · | 한 | 상 | 진 | | | | | | | | | | | | | |
| 심 | 사 | 분 | 과 | 위 | 원 | 회 | 김 | 봉 | 기 | 김 | 대 | 연 | 정 | 연 | 주 | · | 윤 | 태 | 기 | · | 김 | 기 | 욱 | · | 이 | 한 | 규 | | |
| | | | | | | | 김 | 용 | 길 | 김 | 용 | 길 | 오 | 수 | 근 | | | | | | | | | | | | | | |
| 선 | 수 | 강 | 화 | 분 | 과 | 위 | 원 | 회 | 김 | 경 | 지 | 유 | 병 | 호 | 황 | 영 | 갑 | · | 정 | 낙 | 희 | · | 김 | 세 | 혁 | · | 이 | 백 | 운 |
| | | | | | | | 김 | 경 | 지 | 유 | 병 | 호 | 박 | 창 | 덕 | 강 | 성 | 철 | | | | | | | | | | | |
| 국 | 제 | 분 | 과 | 위 | 원 | 회 | 박 | 현 | 섭 | 김 | 중 | 길 | 김 | 종 | 명 | · | 김 | 동 | 수 | · | 이 | 문 | 희 | · | 최 | 용 | 길 | | |
| | | | | | | | 김 | 강 | 인 | 김 | 강 | 인 | 강 | 석 | 환 | · | 공 | 영 | 선 | | | | | | | | | | |
| 상 | 별 | 분 | 과 | 위 | 원 | 회 | 고 | 국 | 환 | 박 | 용 | 화 | 김 | 갑 | 식 | · | 유 | 상 | 철 | · | 신 | 우 | 진 | · | 고 | 재 | 만 | | |
| | | | | | | | 최 | 준 | 배 | 신 | 동 | 우 | | | | | | | | | | | | | | | | | |
| 편 | 집 | 분 | 과 | 위 | 원 | 회 | 정 | 찬 | 성 | 김 | 명 | 수 | 최 | 유 | 신 | · | 김 | 영 | 선 | · | 조 | 성 | 봉 | · | 배 | 연 | 웅 | | |
| | | | | | | | 김 | 명 | 수 | 김 | 명 | 수 | 김 | 석 | 연 | · | 양 | 인 | 욱 | | | | | | | | | | |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임원



기술심의회부의장
전 재 규



기술심의회의회장
권 경 욱



기술심의회부의장
김 용 서

1987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관장하는 태권도의 기획·연구·교육·기술개발 등 각종 업무를 수임, 집행할 기술심의회 임원이 확정되었다.



기획분과위원장
이 승 국



경기분과위원장
김 영 삼



심판분과위원장
안 영 택



심사분과위원장
김 봉 기



선수강화분과위원장
김 경 지



국제분과위원장
박 현 섭



상벌분과위원장
고 국 환



편집분과위원장
정 찬 성

국기원 · 지도자 연수원

국기원

국기원은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부터 프린스호텔에서 재직이사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8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이어 '8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건이 확정되었다.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태권도 지도자연수원은 '87년도의 주요사업을 확정짓고 다음과 같은 목표로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첫째, 태권도인의 교육강화를 위하여

- ① 국내외 사범 자질 향상
- ② 태권도 연수교육의 내실화
- ③ 올림픽을 대비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태권도 기법 개발교육
- ④ 태권도교본 편찬사업을 수행

둘째,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꾀하기 위하여

- ① 국내외 승(품)단 심사심의 공정
- ② 단(품)증의 효율적인 전산관리 및 장비개선
- ③ 단(품)증 발급업무 신속정확 유지
- ④ 문서 보관 관리 및 분류업무 철저
- ⑤ 심사신청서 접수 및 단(품)증 발송계통 개선

세째, 태권도 세계화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를 목표로 두었다.

1987년도 사업계획

● 각종 교육계획

| 사업명 | 기수 | 교육일자 | 자격기준 | 제출구비서류 |
|-------------------|------|--------------------|----------------------------------|--|
| 지도자교육 2급(연수과장) | 제6기 | 87. 3. 24 - 4. 11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해당자 | • 지원서 1부(본 연수원소 정양식: 사진 5매(5×5)) • 주민등록 초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교육일자 15일전 지원서 마감제출 (교육 인원 100명 제한함) ※ 대태회장 추천서 필히 첨부 |
| | 제7기 | 87. 11. 3 - 11. 21 | | |
| 지도자교육 3급(일반과장) | 제53기 | 87. 3. 4 - 3. 13 | ※ 고졸이상자 ※ 4단 승단일로부터 만 3개월 경과자 | • 수강 신청서 1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사본 첨부 불가) |
| | 제54기 | 87. 5. 6 - 5. 15 |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 첨부 불가) • 사진 2매(3×4) |
| | 제55기 | 87. 7. 1 - 7. 10 | | • 해당 시도협회장 추천 및 경유제출 ※ 교육일자 5일전 신청서 마감제출 (교육인원 100명 제한함) |
| | 제56기 | 87. 9. 2 - 9. 11 | | |

● 고단자(5, 6, 7단) 승단 심사대회

| | | | | |
|------------------|----------------------|------------------|--|--|
| 고단자승단 대회(년4회) | 87년도 1차5.6 단 | 87. 3. 21 (토) | ※ 심사규정(86. 5. 30개정) 제8조에 의한 승단 연령 및 기간 경과자 | • 심사 신청서 1부(사진: 3×4 2매) • 주민등록표(등) 초본 1부 • (사본첨부 불가) |
| | 87년도 2차5.6.7 단 | 87. 6. 13 (토) | | |
| | 87년도 3차5.6 단 | 87. 9. 19 (토) | | ※ 심사일자 5일전 접수마감 제출 (해당시도 협회장 추천 및 경유제출) |
| | 87년도 4차5.6.7 단 | 87. 12. 5 (토) | | ※ 피심사자는 필히 주민등록증 지참 논문, 실기심사에 제시하여야 함. 미제시자는 응시불가함. |

14개 시도협회의 선두주자

서울특별시협회

대의원 총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1월 13일 11시에 서울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중앙대의원 4명과 대의원 1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엄운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권도 전 가족이 일심동체가 되어 타 경기단체 중목보다 앞장서서 아무리 큰 행사라도 무리없이 치뤄내는 자랑스런 단체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그동안의 태권도인들의 노고와 아울러 평화의 댜건설 성금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해 준데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8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에 관한 승인과 '8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승인 등 중요안건이 상정되어 진지한 토의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해 주요사업실시현황을 살펴보면

1. 승품심사대회 : 20회에 걸쳐 시행되어 28,959명이 참가하여 952명의 실격자가 나와 총 28,00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 승단심사대회 : 6회에 걸쳐 시행되어 6,914명이 참가, 424명의 실격자가 나와 총 6,49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3. 제 1회서울-뉴욕친선 태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엄운규 회장

대회 : 86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서울과 뉴욕 양 협회간 태권도 경기기술교류를 통해서 두 도시간의 이해증진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지속하며 태권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친선대회에서는 서울팀이 우승을 거두었다.

4. 1986년도 장학금 지급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에서는 장학생 26명에게 총 2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수혜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5. 평화의 댜 건설성금 모금

범국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평화의 댜건설성금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총 480개 체육관에서 580만 천 4 백 70원의 성금을 모았다.

6. 서울특별시 신임임원 보선
8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신임 부회장에 김상철 (홍국토건대표이사) 방윤순 (株) 제주하와이 대표회장, 사회복지법인 아가의집 설립자 (제주시), 이사에 이상만 (대동산업대표) 박성빈 (개인사업) 김동락 (치과의사) 씨를 각각 보설했다.



김상철 부회장



방윤순 부회장



이상만 이사



김동락 이사



박성빈 이사

서울특별시 태권도 협회 장학금 수혜자

| No. | 체급 | 소속 | 성명 | 지급액 | 비고 | No. | 체급 | 소속 | 성명 | 지급액 | 비고 |
|-----|-----|------|-----|----------|-------|----------------|------|------|-----|----------|-------|
| 1 | 핀 | 길동國校 | 지진성 | 100,000원 | 협회장기 | 15 | 미들 | 대림 | 김상진 | 100,000원 | 진학장학금 |
| 2 | 플라이 | 면목 " | 원종석 | " | " | 16 | 헤비 | 미동 | 윤홍섭 | " | " |
| 3 | 밴텀 | 길동 " | 이재준 | " | " | 17 | 플라이 | 경수 | 장문수 | " | " |
| 4 | 페더 | 길동 " | 황진구 | " | " | 18 | 밴텀 | 동성 | 양통일 | " | " |
| 5 | 라이트 | 신광 " | 이영화 | " | " | 19 | 페더 | 한영 | 김정배 | " | " |
| 6 | 웰터 | 대림 | 김봉관 | " | " | 20 | 라이트 | 서울체중 | 김성남 | " | " |
| 7 | 미들 | 장곡 | 금의석 | " | " | 21 | L-웰터 | 배명 | 김성진 | " | " |
| 8 | 헤비 | 면목 | 김준원 | " | " | 22 | 웰터 | 동성 | 심기훈 | " | " |
| 9 | 핀 | 교동 | 홍승표 | " | 진학장학금 | 23 | L-미들 | 신림 | 조창현 | " | " |
| 10 | 플라이 | 개포 | 황인서 | " | " | 24 | 미들 | 경수 | 박진석 | " | " |
| 11 | 밴텀 | 장곡 | 이철규 | " | " | 25 | L-헤비 | 강남 | 김주호 | " | " |
| 12 | 페더 | 신석 | 김명곤 | " | " | 26 | 헤비 | 한영 | 홍종철 | " | " |
| 13 | 라이트 | 한강 | 김형모 | " | " | 계 ₩ 2,600,000원 | | | | | |
| 14 | 웰터 | 길동 | 최용철 | " | " | | | | | | |

서울특별시 체육회 장학금 수혜자

| No. | 소속 | 성명 | 지급액 | No. | 소속 | 성명 | 지급액 |
|-----|------|-----|----------|----------------|------|-----|----------|
| 1 | 교동國校 | 천창영 | 200,000원 | 10 | 성동高 | 공두환 | 300,000원 |
| 2 | 개포 " | 김봉석 | " | 11 | 성동상고 | 성필용 | " |
| 3 | 한영中 | 신성수 | 250,000원 | 12 | 한국體大 | 김철호 | 400,000원 |
| 4 | 동성 " | 이경철 | " | 13 | " | 하계수 | " |
| 5 | 성동高 | 이종현 | 300,000원 | 14 | " | 이주열 | " |
| 6 | 서울體高 | 김동욱 | " | 15 | 동성中 | 최정욱 | 250,000원 |
| 7 | 성균관大 | 전용환 | 400,000원 | 16 | 한영中 | 오상명 | " |
| 8 | 한국體大 | 박해영 | " | 17 | 한영中 | 박세진 | " |
| 9 | 서울體高 | 장혁 | 300,000원 | 계 ₩ 5,150,000원 | | | |

1987년도 사업계획

| 월 | 일 | 사 업 명 | 장 소 |
|----|-------|---|-----|
| 1 | 18 | 제262회 서울시 승품심사대회 (1, 2, 3품) | 국기원 |
| | 8 | 제263회 " " | " " |
| 2 | 15 | 제135회 서울시 승단 심사대회 (1, 2, 3, 4단) | " " |
| | 22 | 제264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 " |
| | 8 | 제265회 " (1, 2, 3, 품) | " " |
| 3 | 22 | 제266회 " " | " " |
| | 25-27 | 제 7 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쟁탈 초·중·고 단체대항 및 개인선수권대회 | " " |
| | 12 | 제267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 " |
| 4 | 19 | 제136회 서울시 승단 심사대회 (1, 2, 3, 4단) | " " |
| | 26 | 제268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 " |
| | 1 | 제269회 " " | " " |
| 5 | 24 | 제270회 " " | " " |
| | 28-29 | 제 7 회 서울특별시 초·중·고 개인선수권대회 | " " |
| | 7 | 제271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 " |
| 6 | 21 | 제272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국기원 |
| | 5 | 제273회 " " | " " |
| | 14-16 | 제 6 회 서울특별시장기쟁탈 초·중·고·대학 단체대항 및 개인선수권대회결 제68회 전국체전 서울대표최종선발전 | " " |
| | 19 | 제274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 " |
| | | 제 1 회 동남아순회 태권도전선행대회 | 동남아 |
| | 11 | 제275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국기원 |
| 8 | 16 | 제138회 서울시 승단심사대회 (1, 2, 3, 4단) | " " |
| | 23 | 제276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 " |
| | 6 | 제277회 " " | " " |
| 9 | 17-18 | 제 8 회 서울시협회장기쟁탈 어린이겨루기대회 | " " |
| | 27 | 제278회 서울시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 " |
| | 11 | 제279회 " " | " " |
| 10 | 18 | 제139회 서울시 승단 심사대회 (1, 2, 3, 4단) | " " |
| | 25 | 제280회 서울시 승품 심사대회 (1, 2, 3품) | " " |
| | | 제 2 회 서울-뉴욕 태권도전선행대회 | 뉴 욕 |
| 11 | 11 | 제281회 서울시 승품심사대회 (1, 2, 3품) | 국기원 |
| | 25 | 제282회 " " | " " |
| | 6 | 제283회 " " | " " |
| 12 | 13 | 제140회 서울시 승단 심사대회 (1, 2, 3, 4단) | " " |

명문학교 지향

전국가대표 장명삼
태권도부 코치로

광영고등학교



손광수 교장

강서구 신월동에 자리잡은 광영고등학교는 1985년 3월에 개교한 신설 사립고등학교이다.

82년 11월 학교법인 광영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광영고등학교는 "알차게 지식쌓아 조국애로 향하자"는 교훈을 바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면학풍토 조성으로 창의적이며 생동적인 명문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손광수 교장은 신설학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명문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교생의 일체감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간파하고, 강서구에서는 유일한 야구부창단이라는 용단을 내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밖에도 스키, 골프, 유도, 육상, 유도등의 운동부를 창

단하여 학생들의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특기생활에도 많은 배려를 하였다.

특히 지난 86년 3월에 창단된 야구부는 창단 첫돌을 맞아 1개 임승을 목표로 세웠는데 1학년만으로 구성된 야구부가 야구의 명문인 장충고를 이김으로써 서전을 장식, 학생들의 사기를 고취시켰는데 87년도에는 1,2학년들로 야구부가 구성되어 서울시에서의 4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광영고등학교에서 태권도부가 창단식을 맞이하고 태권도장 개관식을 갖기는 지난 1987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였다.

태권도부가 정식 출범하기까지는 지난 1년간의 탐색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특기를 조사하던 중 유난히도 우리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많은 학생들이 보이고 있음을 안 체육교사 배중도 선생은 학교 특별 활동시간에 태권도부를 만들어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를 교장선생에게 건의하여 특별활동부서로서의 태권도부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태권도부원들이 태권도 수련에 만전을 기하게 된 기폭제는 무엇보다도 지난 86년 12월부터 광영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들어온 전 국가대표 장명상 선수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방학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 결의하에 용문산에 캠프를 치고 극기훈련을 통한 정신훈련 및 담력배양, 경희대 수련 캠퍼스에서의 전지훈련을 통한 기초



태권도장 개관식에서 테이프를 끊는 손광수대표, 김영작시범 분과 위원장, 손광수교장, 학부모대표.



다지기에 전부원이 코치와 함께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태권도 기술이 하루 아침에 터득되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시일을 두고 기대해 볼 일이나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광영고의 태권도부원들은 스스로 원해서 자기의 기쁨으로 하는 운동이라 선수들이 연습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유능한 코치의 지도와 학교에서 태권도부원들이 훈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태권도장을 만들어 주는 등 적극적인 배려가 일치됨으로써 태권도 명문고로서의 부상은 시간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광영고등학교의 태권도부가 정식으로 창단식 및 개관식을 가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손광수 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과 국기원의 성인 시범분과 위원장인 김영작씨 등이 참석하여 태권도부의 창단을 축하하였다.

손교장은 태권도장 개관 테이프를 끊은 뒤 인사말을 통해 명실상부한 태권도인으로서 심신을 단련하여 최선을 다해 뜻한바를 이루어 학교와 태권도부의 명에는 물론, 자신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창단식 및 개관식에서는 태권도부의 학부형들이 참석하여 푸짐한 다과를 준비하여 개관식을 축하해 주며 앞으로도 태권도부의 뒷받침에 성의를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에는 지난 몇달 동안 수련을 쌓은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실력을 가름해보겠다는 장명상교치는 올한해까지는 기본기를 완전히 마스터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다고며 포부가 대단했다.

한편 손광수 교장은 올해에 태권도 특기생을 모집했는데 한명의 지원자도 없었다며 아쉬워했는데 이는 특기생 지원선발이 끝난 후 교육위원회에 의뢰 공고함으로써 선수들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장교치는 설명했는데 올 2월에 경희대 태권도학교를 졸업한 장교치가 학교 특기생 선발요령을 알지 못해 좋은 선수를 받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태권도 특기생을 영입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태권도 회관 건립 추진

대구 협회



서돈양 회장

대의원 총회

대구직할시 협회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 대구직할시 체육관에서 대의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 감사보고에 이어 토의안건으로 1986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승인, 198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승인안 심의, 감사선출 등이 있었다.

198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1. 승단심사대회 : 1986년도 승단심사대회를 6차례 걸쳐 실시하여 총 6천 6백1명이 응심하였다.
2. 각종회의 : 대구직할시에서는 15차례 걸친 이사회를 비롯해 지난 1년간 총 34차례의 각종회의를 가졌다.
3. 신임 임원선출 : 86년 5월 20일에 개최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제 4대 태권도협회장으로 서돈양씨를 선출하여 6월 5일 회장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서돈양회장은 대구지검형사 1부

장검사로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의 이충기(대구염색공단 이사장) 고문과 전임 김창홍(현 수원지검 형사 1부장검사) 검사의 권유로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되어 대구직할시 태권도계의 사령탑으로 몰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비록 전무에게 전권위임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재임기간중 태권도회관 기초작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회장은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그리고 서돈양회장은 「태권도는 다른 운동종목과는 달리 오랜 전통과 정신이 깃어 있는 운동으로 민족의 맥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바탕하에 애국 애족의 사명감을 갖고 태권도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태권도인들이 정신적 수양과 투지를 기르고 겸손하고 예의를 앞세워 사회의 모범국민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서민적인 체취

를 느끼게 하는 서회장은 또한 지방행사에 중앙의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방태권도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며 지방협회와 중앙협회간의 유대도 강조했다.

한편 서돈양회장이 현역 검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역대 협회회장들은 현직검사들이 백을 이어오고 있는데 1대회장에 조재석 부장검사, 2대회장에 이상완 검사, 3대회장에 김창홍 부장검사에 이어 제 4대 회장에 서돈양 검사가 취임한 것이다. 이는 대구협회가 경북협회로부터 분리 독립되 기전 경북협회장들이 검사출신이 많다는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협회는 재정위원회로 고문 14명을 추대하였는데 이들로 부터 연간 2천여만원의 지원받아 협회운영을 원활히 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대구직할시 협회 고문단

4.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현황 : 대구직할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0차례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차례에 걸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제21회 대통령하사기생발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윤을균이 대학부 예비급 1위, 86년도 추계종별선수권대회에서 최중곤이 중등부 라이트미들급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입상자를 배출했다.

5. 대구직할시협회에서는 협회도장관리위원회 자체로 일선도장을 교육청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지도 개선하므로 타하원보다 우수한 교육도장이 되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직할시의 특별사업으로는 각구청별 태권도인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어린이 태권도 경연대회를 마련하여 어린이 태권도 수련에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어 이를 계속 사업으로 올해에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 태권도인의 밤 성황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는 대의원총회를 마치고 1월 26일 오후 6시 뉴영남관광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태권도관계자 외에도 대구시의 기관장급 저명인사 등 300여명이

참가한 이날 모임에서는 서든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상연 시장의 치사와 김종대 교육감의 축사에 이어 태권도 유공자 및 우수선수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86년도 마무리 짓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문단 명단

| | | |
|----------|------|-----|
| 범양식품(주) | 대표 | 이정순 |
| 이기영 산부인과 | 원장 | 이기영 |
| 영남건설(주) | 대표이사 | 배진호 |
| 범상공(주) | 부사장 | 정세희 |
| 보성주택(주) | 대표이사 | 김상구 |
| 고려신경의과 | 원장 | 홍원배 |
| 한우주택(주) | 대표이사 | 황종식 |
| 동산약국 | 대표 | 하병재 |
| 대구연색공업공단 | 이사장 | 이충기 |
| 동국화성(주) | 대표이사 | 류홍춘 |
| 대구경북직물조합 | 대표이사 | 박용관 |
| 현공유계소 | 부사장 | 이상선 |
| 경희여자고등학교 | 장권 | 권태 |
| 우방주택(주) | 대표이사 | 이순목 |
| 현대칼라 | 대표 | 이창수 |

신임임원

| 직위 | 성명 | 근무처 |
|------|-------|-------------|
| 회장 | 徐 澈 洋 | 대구시경찰서/무장집사 |
| 부회장 | 徐 宗 洵 | 광공업 대표 |
| " | 金 台 原 | 성신병원 원장 |
| " | 鄭 在 弘 | 서북체육관 관장 |
| " | 李 榮 浩 | 용호체육관 관장 |
| " | 洪 淳 澈 | 성광고등학교 교사 |
| " | 張 漢 浩 | 송무체육관 관장 |
| 전무이사 | 鄭 尚 坤 | 한성체육관 관장 |
| 후무이사 | 朴 道 禮 | 달성체육관 관장 |
| 경기이사 | 韓 國 先 | 용머체육관 관장 |
| 심판이사 | 林 圭 龍 | 금강체육관 관장 |
| 심사이사 | 金 榮 坤 | 희망체육관 관장 |
| 이 사 | 宋 有 植 | 수성체육관 관장 |
| " | 鄭 雨 得 | 송인체육관 관장 |
| " | 朴 成 珍 | 서부체육관 관장 |
| " | 金 鍾 植 | 미산체육관 관장 |
| " | 金 重 龍 | 대구체육관 관장 |
| " | 李 海 洙 | 동구체육관 관장 |
| " | 金 仁 煥 | 대덕체육관 관장 |
| " | 西 榮 國 | 명신체육관 관장 |
| " | 安 春 彦 | 원동타이어정착출판 |
| " | 張 永 洙 | 황곡체육관 관장 |
| " | 金 濟 熙 | 경상고교 교사 |
| 자문위원 | 이 崇 浩 | 청우체육관 관장 |
| 감 사 | 吳 光 龍 | 경남실비 대표 |
| " | 李 錫 錫 | 송우체육관 관장 |



서든양 회장이 원로태권도인 최남로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1987년도 사업계획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2월중 | 87년도 제1차 승품(단) 심사대회 | 삼내체육관 |
| 3월중 | 심판보수교육 | 체육회강당 |
| " | 제16회 전국소년체전대미 최종평가 | 전통연안장 |
| " | 제8회 전국체전 2차평가전경 제2회 대구시장기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 삼위체육관 |
| 4월중 | 87년도 중별선수권대회 | " |
| " | 87년도 제2차 승품(단) 심사대회 | " |
| " | 안하도상 지도교명 | 안하도장 |
| 4-5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전 훈련 | 경 일 중 |
| 5월중 | 제2회 어린이 태권도 경연대회 | 삼위체육관 |
| "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울 산 |
| 6월중 | 제8회 전국체전대미 최종평가전 | 삼위체육관 |
| " | 87년도 제3차 승품(단) 심사대회 | " |
| 7월중 | 제17회 소년체전대회 1차평가전 | 전통연안장 |
| " | 구형별 친선체육대회 | 미 정 |
| 7-10월 | 제68회 전국전체 대미훈련 | 전통연안장 |
| 8월중 | 제3회 대구시 태권도 협회장기타기 대회 | 삼위체육관 |
| " | 제4차 승품(단) 심사대회 | " |
| 9월중 | 지도자 교양교육 | 체육회강당 |
| 10월중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광 주 |
| " | 제5차 승품(단) 심사대회 | 삼위체육관 |
| " | 제4회 학교종합체육대회 겸 제7회 소·제2차평가대회 | " |
| 11월중 | 87년도 우수선수권대회 | " |
| 12월중 | 87년도 제4차 승품(단) 심사대회 | " |





이영성 교장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에 나를 찾아라

오성고등학교

대구시내의 신생 태권도 학교로 자리를 잡아가며 학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 사립 명문고 오성고등학교는 태권도 특기생에게 전면 장학 혜택을 주며 태권도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83년도에 특기생 1명을 받기 시작하여 84년도에 3명, 85년도에 6명, 86년도에 7명의 특기생이 오성고등학교에 들어와 도내 경기에서 수차례에 걸친 입상은 물론 84년도에 대통령하사기생탈전에서 패더급 입상, 85년도에 중별선수권대회에 편급 입상을 거두는 등 날로 그 위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오성고등학교는 교기로 펜싱과 태권도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영성 교장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강덕원에서 유도를 했던 스포츠맨으로 특히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에 관심이 커서 태권도부 창설에 적극적이었고 체육관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등 열의가 대단하다고 권제훈감독은 전했다.

이영성교장은 태권도는 예절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 생활의 근본으로 시작되고 “애정”으로 대함을 원칙으로 하여 인격교육 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을 키울 수 있다며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개인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이기심만 날로 커가는 가운데 학창시절 무엇보다 소중한 우정이 외면당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체육교육은 외면당하는 실정이라며 체육교육이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건전한 인격형성 및 건강한 육체를 기르는데 중요한 과목임을 강조했다.

오성고등학교는 각학년이 6학급으로 정규대학에 70%, 전문대학에 10%선이 합격해 총 80%의 합격률을 보이는 명문고등학교이다. 이렇게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들인 고교에 태권도부 육성은 쉽지 않은 일로서 특기생 몇 명에게 태권도 수련이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 특기생을 지도하는 이중중 코치는 태권도부 창설 4년째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1명으로 시작한 태권도부가 처음 2년간 전적이 없는데도 계속 지원을 하여 매년 특기생을 받도록 하며 지난 84년도에는 80여명의 수련도장을 지어 주어 수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시합장에서 도 빠지지 않고 참관해 선수들을 격려해 주신 교장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권제훈 감독은 태권도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협동심, 봉사정신으로 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태권도 부원들과 함께 이영성교장(중앙)과 감독, 코치선생님

지역별 사범 매월 각종 세미나 개최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강구

강원도협회

대의원 총회

강원도 태권도협회에서는 1987년 1월24일 오후 3시 협회 사무실에서 재적 대의원 18명중 11명이 참석하여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강원도 태권도협회의 전 임원은 88서울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완수라는 목표아래 89년 1월까지 유입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임기 만료된 감사 등 2명도 계속 유입키로 했다.

임원명단

- 회 장 : 김 성 태
- 부 회 장 : 이 병 재 고 봉 준
 김 광 인
- 전무이사 : 박 병 철
- 사무국장 : 최 문 식
- 경기이사 : 최 홍 배
- 심판이사 : 박 임 주
- 사설이사 : 김 현 규
- 섭외이사 : 이 정 학
- 감 사 : 장 석 주 황보봉선
- 이사명단 : 김 동 혁 권 영 무
 김 정 수 장 세 현
 황 윤 국 전 영 조
 유 경 준 이 수 회
 박 경 근 정 중 근
 이 세 진 이 상 철
 김 장 수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86년 사업보고 승인 및 87년도 사업계획안을 결정짓고 총회를 순조롭게 마쳤는데 86년도에 거행된 특기할만한 사업으로는

1. 교육감기대회 부활

1976년도에 제3회까지 실시하였던 교육감기 대회를 부활하여 지난 86년8월9일부터 10일까지 2틀간에 걸쳐 강원사대부고 체육관에서 35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제4회 교육감기 쟁탈전 및 개인 선수권 대회를 치루었다.

2. 합숙소 마련

춘천시 조화동 401번지 2층 (32평)에 1천만원을 투자하여 30여명의 선수가 숙식을 하며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합숙소를 마련하여 선수들이 연중 무휴로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을 완비하였다. 이로써 선수들의 사기가 상승하여 전국체전중위권 입상은 무난하리라고 내다보며 합숙소에서는 고등부에 박계희 코치, 중등부에서는 정정환 코치가 선수들과 숙식훈련을 같이하며 지도하고 있다.

3. 성실 참여의 모범을 보이는 김성태 회장

1978년도에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성태 회장은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오며 각종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뒷바

라지 해오며 강원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어 강원도 태권도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협회내에 춘천시내에 있는 13개 체육관에서는 3개 체육관씩 매월 사범 모임을 갖고 태권도장 운영 및 품새 통일을 위한 세미나, 각 도장별 품새 경연 대회의 분기별 개최, 지도자의 소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교육감기대회 개최 등을 협의하기도 하며 태권도 발전의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





김성태 회장



권영무 이사



김정수 이사



장세현 이사



장인조 이사



유경준 이사



이수희 이사



박경근 이사



이세진 이사



이상철 이사



황운국 이사

1987년도 사업계획

| 월 | 일 | 사 | 업 | 명 | 장 | 소 |
|-------|-------------------------|-----------------------------------|---|---|---|---|
| 3 | 5 | 1987년도 제1회 강원지역 승품(단) 심사대회 | 출 | 천 | 국 | 기 |
| | 10-11 | 1987년도 전국 심판 보수교육(1, 2, 3) 및 코치 | 국 | 기 | | |
| | 16-21 | 1987년도 전국 춘계 종별 선수권대회 | 출 | 천 | | |
| 4 | 1-3 | 1987년도 국가대표 선수 1차 선발대회 | 부 | 산 | 국 | 기 |
| | 9-10 | 1987년도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대회 | 부 | 산 | | |
| | 21-22 | 1987년도 전국 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 출 | 천 | | |
| | 24 | 1987년도 강원지역 심판 보수교육(1, 2, 3) 및 코치 | 화 | 천 | | |
| | 25-26 | 제10회 회장기쟁탈전 및 강원대표 1차 선발대회 | 출 | 천 | | |
| 5 | | 제16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 울 | 산 | 국 | 기 |
| | 12 | 1987년 제2회 강원지역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원 | 주 | | |
| | 15-17 | 제2회 월드컵 태권도 대회 | 헬 | 싱 | | |
| | ~22 | 1987년도 여자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 국 | 기 | | |
| 25-26 | 제1회 강원지역 어린이 태권도왕 겨루기대회 | 출 | 천 | | | |
| 6 | | 제21회 도민 체육대회 | 부 | 산 | 국 | 기 |
| | 13-16 | 제2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전국 단체 대항전 | 부 | 산 | | |
| | 20 | 제18회 주한 외국인 개인 선수권대회 | 국 | 기 | | |
| | 23-24 | 제5회 교육감기쟁탈전 | 출 | 천 | | |
| 7 | 25 | 제68회 전국 체육대회 강원대표 선수 최종선발대 | 강 | 릉 | 강 | 릉 |
| | 15 | 1987년도 제3회 강원지역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강 | 릉 | | |
| 9 | | 제8회 세계 태권도 선수대회 | 스 | 페 | 스 | 페 |
| | 15 | 87년도 제4회 강원지역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속 | 초 | | |
| | 22-26 | 87년도 전국 추계 종별 선수권대회 | 출 | 천 | | |
| 10 | | 제68회 전국 체육대회 | 광 | 주 | 광 | 주 |
| | | 제16회 강원도 학도 체육대회 | 출 | 천 | | |
| | 29 | 87년도 제5회 강원지역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출 | 천 | | |
| 11 | 4-6 | 87년도 전국 우수 선발대회 | 국 | 기 | 국 | 기 |
| 12 | 12 | 87년도 제6회 강원지역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출 | 천 | 출 | 천 |

강원도의
명예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체육분야에 있어 강원도가 받아 온 「약체 강원도」라는 이름을 벗어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강원도내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체육특기자들이 전문적으로 육성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전국체전 등에서는 거의 하위수준을 맴돌곤 하였다. 지난 84년도까지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가 태권도육성 지정학교로 태권도기술면에서 앞장서다가 85년도부터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태권도 육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강원사대부고는 85년 당해에 제6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박상원 선수(플라이급), 주영호 선수(밴텀급)가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고 86년도에는 대통령기 대회에 박정



전성병 교장



신현익 감독



길한식 체육과장



박계희 코치

칠 선수(미들급)가 은메달을 차지하여 강원협회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강원도 태권도의 기반을 단단히 잡아가고 있다. 또한 67회 전국체전에서는 박상찬선수(플라이급)가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태권도부 선수 11명에게 전면 장학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시합 출전시에는 출전비 일체를 지급하는 등 뒷받침을 철저히 해 주고 있다.

강원사대부고의 전성병 교장은

재일고교(강원사대부고전신) 당시부터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태권도부를 육성해 왔는데 태권도 육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태권도부를 지도하고 있는 박계희 코치는 79년도에 서울체고 태권도부를 졸업한 후 관동대학에 태권도 특기생으로 입학하여 태권도 기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지도자로 83년에 졸업했는데 박코치는 재학시절에 소년체전에서 우승 및 준우승의 경력과 고교

시절 중고연맹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하기도 한 정통과 태권도 선수 출신의 지도자로 강원도 태권도계에서는 박코치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협회에서는 춘천시 근화동 401번지에 1천만원을 들여 선수들의 합숙소를 마련해 주어 선수들이 연중 빠짐없이 연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현재 강원사대부고 태권도부원으로는 이종범, 최우병, 김재광, 허대희(이상1학년), 성대중, 정종기, 지이현, 박경철(이상2학년), 주영호, 박상찬(이상3학년)등 11명이 있는데 특히 1학년에 재학 중인 성대중과 이종범은 소년체전 플라이급과 핀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선수로 앞으로 크게 기대를 모으는 유망주들로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 중고 연맹전, 대통령기 대회 등에 출전하여 강원도의 명예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강원사대부고의 명예 뿐만 아니라 전 강원도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다. 한편 특기생 전원이 고교를 졸업할 시에는 대학에 입학할 것을 목표로 삼아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3월초 전용 훈련장 완공

인천협회

인천협회는 1987년 1월 6일 오후 5시 인천시 중구 인항동소재 선원호텔에서 대의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호성 인천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결과 화합을 강조하고 회장취임시 공약했던 전용훈련장을 87년초에 신설 완공하고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러 안전토의에 들어가 1986년

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198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한제수 감사후임으로 이은송(인천대학교수), 김승길(용일국교교사)을 선임하였다. 또한 김영철(동서대약국대표)씨를 인천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김영철 명예회장은 훈련장 공사비 500만 원을 회사하는 등 태권도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으며 인천고63회 동창회장으로 사회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명단

- 회 장 : 김호성 (유도대교수)
- 부 회 장 : 한상운 (동부체육관관장)
- 부 회 장 : 유기훈
- 부 회 장 : 김동식 (양봉체육관관장)
- 전무이사 : 성재준 (상부체육관관장)
- 총무이사 : 이용환 (광성고교교사)
- 심사이사 : 이화현 (인하체육관)
- 경기이사 : 이봉준 (청송체육관)
- 심판이사 : 김진성 (승리체육관)
- 상벌이사 : 김재한 (한성체육관)
- 섭외이사 : 황용수 (프로스펙스)
- 감 사 : 이은송 (인천대학교수)
- 김승길 (용일국교교사)



김 호 성
회 장



한 상 운
부 회 장



유 기 훈
부 회 장



김 동 식
부 회 장



성 재 준
전 무 이 사



이 용 환
총 무 이 사



이 화 현
심 사 이 사



이 봉 준
경 기 이 사



김 진 성
심 판 이 사



김 재 한
상 벌 이 사



황 용 수
섭 외 이 사



이 은 송
감 사



김 승 길
감 사

인천협회는 올 3월초에 훈련장 개관 및 사무실 이전 계획으로 1500여만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는

데 인천실내체육관내에 115평의 훈련장과 15평의 협회 사무실이 단정하게 되는데 중간기둥이 없는

100여평의 체육관은 시원하고 넓어 운동하기에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1987년도 사업계획

| 월 | 일 | 사 업 명 | 장 소 |
|---|-------|--|--------|
| 1 | 6 | 198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 신 원 호텔 |
| 2 | 15 | 1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삼내체육관 |
| | 21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1차 선발전 사무실 및 전용도장기관 | 전 용 도장 |
| 3 | 27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최종 선발전 | " |
| |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합동, 합숙 | " |
| 4 | 24-25 | 87년도 개인 선수권대회 | 삼내체육관 |
| | 26 | 2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 5 | 7-11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경남·울산 |
| | 29-30 | 제63회 전국체육대회 선수 1차 예선전 | 삼내체육관 |

| | | | |
|-------|---------|--|--------|
| 6 | 27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대표 선수 최종 선발전 | " |
| | 14 | 3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 17-13 | | 제6회 회장기생달 태권도대회 제63회 전국체육대회 대표 선수 합숙훈련 | 전 용 도장 |
| | 8 | 제63회 전국체육대회 대표 선수 합숙훈련 | " |
| 30 | | 4차 승품 및 단심사대회 | 삼내체육관 |
| | 10-8-13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전남·광주 |
| 17-18 | | 제2회 교육감기생달 태권도 대회 | 삼내체육관 |
| | 25 | 5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 11 | | 제17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69 회 전국체전 평가전 | " |
| 12 | 13 | 6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 | 29 | 87년도 태권도인의 밤 | 미, 정 |

인천여자 태권도의 산실

금나무체육관

인천출신의 이름있는 여자태권도선수들은 대부분 금나무 체육관에서 김영수 사범의 지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금나무체육관에서는 상인천여중 선수들과 문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태권도 특기자나 선수 희망자를 지도하고 있다.

상인천여중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수련을 시작한지 10여년 동안 100여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그 중 현재 국가대표선수만도 임신자(경희대), 박연실(성신대), 이진희



김영수 관장

(이화여대), 최지숙(인천대학)은 꼽을만한 선수들이다.

금나무체육관에서 수련하며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중등부 학생들 중에는 인천체고에 8명, 문성여상

에 8명이 특기생으로 진학하여 재학 중이며 현재 상인천여중생 10명이 수련에 임하고 있다.

상인천여중은 1978년도에 당시 2학년이 재학 중이었던 임신자 선수가 프레빌드게임 국가대표선수가 되면서 태권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1980년도에 임신자가 졸업함과 동시에 중단되었다. 그후 1982년도에 태권도부가 정식 출범하여 격주 금요일 6~7교시 특별교육으로 태권도를 통한 인격수련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수업을 끝내고 선수희망자에 한해 간석체육관에서 경기기술을 닦아 왔다. 그 결과 태권도부 1년만인 1983년 4월 제10회 중교연맹 태권도대회에서 여중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내에 태권도 선수들이 운동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밖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련에 임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여성 태권도의 지변확대는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한편 금나무체육관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는 문성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84년도에 상인천여중을 졸업한 박연실, 최지숙 선수가 입학해 본격적으로 태권도 선수를 지도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은 특별시간으로 6·7교시 태권도 수업을 해왔으며 선수희망자는 수업 후 금나무체육관에서 연습에 몰두, 박연실 선수는 전국대회에 3회이상 우승했으며 종합성적은 중교연맹 2위, 협회장기 2위, 연대 총장기 2위 등 계속 2위만을 차지해 1987년도에는 꼭 우승을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금나무체육관의 김영수



금나무체육관에서 수련하는 상인천여중과 문성여상 태권도 선수들.

사범은 상인천여중생과 문성여상 선수들을 지도해오고 있으며 한편 문성여상, 상인천남중, 문인여고 등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는 제 7 회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 여자부 국가대표코치를 했고 81년도에 코치아카데미교육을 받은 후 계속 후배들을 지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들을 학교에서의 적극 지원 아래 육성하지 못

하고 체육관으로 모아 선수를 육성해야 하는 입장이라 중고등부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체전에서 여자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금나무체육관에는 87년 2월에 경희대를 졸업한 임신자 선수가 후배를 지도하게 되어 선수들의 수련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있다.

수련생들의 심신을 닦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은 곳으로 하나로태권도장을 꼽을 수 있다.

하나로 태권도장이 개관한 것은 지난 86년도 5월이었다. 총 146평의 체육관에는 수련도장 40평, 탈의실 및 휴게실 40평, 샤워실 10평, 사무실 15평 등으로 2,000여 만원을 들여 초현대식시설을 갖춘 태권도장이다.

체육관 40평의 벽을 완전 거울화하고 휴게실과 탈의실 바닥을 카펫으로 깔고 샤워실엔 냉온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너무 잘 짜여진 구조며 시설들을 갖추어 어느 태권도인이 보아도 이런 체육관이 있나 할 정도로 감탄을 자아낸다.

하나로 태권도장에는 현재 120

초현대식 시설 갖춘 체육관

하나로 태권도장

평범하게 태권도장의 문패를 내걸고 태권도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태권도장과는 달리 체육관 운영 및 시설면에서 완벽하게 구비해 놓아



홍상용 관장

여명의 수련생들이 태권도 수련에
입하고 있는데 더 많은 수련생들
이 모일 전망이다.

하나로 태권도장의 홍상용 관장
은 「지역 특성이나 분위기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체
육관 운영도 옛날같지 않아서 경
영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옛날 기성세대 때
의 방식으로 체육관을 운영한다면
각종 조기교육기관에 밀려나 태권
도장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홍관장은 앞으로 유
치부 운영을 명문화하기 위해 50
여평을 확장하여 유치부실로 구분
하여 정규 유치원화 할 준비를 서



두르고 있다고 내일의 계획을 밝혔
다. 또한 좀 더 자리가 잡히면 휴
게실에 무도로서의 선(彈)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도(道)
로서의 태권도 수련을 시도해 보
겠다고 했다.
이이처럼 초현대적 시설을 구비하
고 합리적인 경영방침으로 태권도
장을 운영하며 수련생들에게 편의
시설을 최대한도로 제공해 수련에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홍관장이 태

권도 입문한지는 20여년이 됐다.
강원도 삼척에서 부친 홍재학 (현
인천육사체육관장) 씨가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도복을 입고 수련에 첫
발을 들어놓은후 강원도에서 중학
교를 마치고 인천체고에 입학, 윤
치영 선생의 지도로 태권도 수련
을 계속해 도대표선수로 전국대회
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 후 군에
서도 선수로 활동한 후 인천시 남
구 주안동에 있는 안국아파트 단
지내에 한국체육관을 개관하여 일
선사범으로 수련생들을 지도하였
고 85년도에 또다시 주안2동에 한
국제 1체육관을 개관하여 2개의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범으로 발전
해갔다. 그후 홍 사범은 한국체육
관과 한국제 1체육관을 고향(강원
도)후배에게 맡기고 86년도에 현
재 경영하는 하나로 태권도장을 개
관한 것이다. 이처럼 30대 초반의
후배들에게 도장을 맡겨 자립기반
을 조성해주자 이들 사범들도 이리
한 홍관장의 의도를 이해, 열심히
체육관을 운영하며 기반을 닦고있
다고 한다.



각종 대회 유치로 경기도 태권도의 질적향상 도모

경기도협회



김한주 대학연맹 회장이 안종용 전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의원 총회

경기도협회에서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에 협회사무실에서 제 14회 대의원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86년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 87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검토를 통해 이를 확정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대회를 주최 및 주관하였고 큰 대회를 경기도에 유치하여 경기도 태권도발전의 기폭제를 마련함은 물론 경기도태권도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특히 제 10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태권도경기를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체육관에서 거행하여 경기도내에서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태권도인들

및 은 국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전국대회규모로는 제 67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6월 20일에서 25일까지 수원 성균관대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제 9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 겸 제 2회 국제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전이 지난 8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수원 수성고등학교에서 열렸다. 대표선발전에서는 심판복장을 동일하게 맞춰 입는 등 정성을 기울인 주요심판원 40명전원을 파견하여 대회를 치루는 등 경기도협회의 1년은 그 어느 협회보다도 바쁘게 보내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협회내에는 32개 시군지

부가 형성되어 있고 200여개의 일반 태권도장이 산재해있는데, 지방영으로 도내의 모범지부로 꼽힌 곳 중에서 활발한 활동과 모범적인 운이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지부라고 경기도협회의 안종용 전무는 소개했다.

경기도협회는 도교육감기쟁탈전 태권도대회를 각 시군지부의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대회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86년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안양에서 거행된 이번 대회에는 1,264 명이 참가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87년도 제 6회 경기도교육감기쟁탈전 태권도 대회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수원



대의원 총회 광경

수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협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종용 전무는 대한연맹의 김한주 회장으로 부터 제 9회 회장기 쟁탈 전국대학대학 태권도대회 겸 제 2회 국제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전의 노고를 치하,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안 전무는 12년전부터 법무부 연수원에 태권도 강사로 출강중이며 전국의 교도관들에게 년 200시간 가까이 태권도 지도를 하고 있는 열성적인 태권도인이다.

한편 경기도협회에서는 이도형 부회장이 사임하고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로 안종용씨가 선임되는 등 87년도 집행부를 대폭 개편하고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협회운영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 임원명단 —

- 회 장 :** 황 광 철
상임부회장 : 안종용 박기원
 최국환
전 무 이 사 : 안종용
실 행 이 사
 총무이사 : 강선장
 경기이사 : 채만춘
 심판이사 : 최학수
 심사이사 : 조충균
 훈련이사 : 엄기섭
 섭외이사 : 문익근

각 분과위원회 위원

- 경기분과 위원회**
 안 영 고 · 권 영 훈
 박 종 태 · 정 창 수
 김 영 민 · 이 명 복

심판분과 위원회

- 장 성 길 · 송 회 근
 김 두 회 · 김 환 우
 최 승 모 · 동 지 한

총무분과 위원회 —

- 문 현 호 · 전 용 배
 이 한 주

선수강화 위원회 —

- 신 석 기 · 서 명 기
 강 명 희 · 서 정 관
 유 종 범 · 김 형 호
 임 동 본 · 이 환 기

운영 위원 : 조광식 · 방건일

- 장정규 · 심명섭
 이종영

감 사 : 김진배 한영록

· 87년도 집행부 대폭 개편하여 87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꾀하고 있다.



수원수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된 9회 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1987년도 사업계획

| 월 | 일 | 사 | 업 | 명 | 장 | 소 |
|-----------|-----------|---------------------------------|------------------|------------|---|---|
| 1 | 17-18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경기도 4차 선발대회 | 수원북중학교대강당 | | |
| | 25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2 | 14-15 | 제16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 경기도 5차 선발대회 | 수원북중학교대강당 | | |
| | 22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3 | 7-8 | 제16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 경기도 6차 (최종) 선발대회 | 수원북중학교대강당 | | |
| | 4-13 | 제53기 지도자교육 | | 국 기 원 | | |
| | 10-11 | 1987년도 전국 심판보수교육(1, 2, 3급 및 코치) | | " | | |
| | 16-21 | 1987년도 전국 출제 총별 선수권대회 | | " | | |
| | 21 | 1987년도 1차 고단자 심사대회(5, 6단) | | " | | |
| 3/24/4/11 | 22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 3/24/4/11 | 제6기 2급 지도자교육(연수 과정) | | 국 기 원 | | |
| | 1-3 |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 | | " | | |
| | 9-10 |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 | | " | | |
| | 19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4 | 21-22 | 1987년도 전국 여자 개인선수권대회 | | 국 기 원 | | |
| | 25-28 | 1987년도 경기도 태권도 종합 선수권대회 | | 수원수성고등학교 | | |
| | | *제16회 전국소년 체육대회(4일간) | | 울산(현대중공업체) | | |
| | 6-15 | 제54기 지도자교육 | | 국 기 원 | | |
| | 15-17 | 제2회 월드컵 태권도대회 | | 필 랜 드 | | |
| 5 | 17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 22-23 | 경기도 태권도 지도자(기본, 품새) 연수 교육 | | " | | |
| | 22 | 여자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 | 국 기 원 | | |
| | 13 | 1987년도 2차 고단자 심사대회(5, 6, 7단) | | " | | |
| | 13-16 | 제22회 대통령기 정달 전국 단체 대항전 | | 부 산 | | |
| 6 | 15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 20 | 제18회 주한외국인 개인선수권대회 | | 국 기 원 | | |
| | 1-10 | 제55기 지도자교육 | | " | | |
| | 11-14 | 제9회 경기도 태권도협회장기 정달 태권도대회 | | 수원수성고등학교 | | |
| | 19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7 | 25-27 | 제68회 전국 체육대회 | 경기도 1차 선발대회 | 미 정 | | |
| | | 제12회 경기도 학도애양대 체육대회 | | " | | |
| | 16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 22-23 | 1987년도 경기도 태권도 지도자(기본, 품새) 연수교육 | | " | | |
| | 27-29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경기도 2차 (최종) 선발대회 | " | | |
| 8 | 2-11 | 제56기 지도자 교육 | | 국 기 원 | | |
| | 미 정 | 제8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 | 스 케 인 | | |
| | | 1987년도 전국 추계종합 선수권 대회 | | 국 기 원 | | |
| | 19 | 1987년도 3차 고단자 심사대회(5, 6단) | | " | | |
| | 20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9 | 26-29 | 제6회 경기도 교육감기 평달전 태권도대회 | | 수원수성고등학교 | | |
| | | *제68회 전국체육대회(6일간) | | 광 주 | | |
| | 18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 24-26 | 제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경기도 1차 선발대회 | 수원북중학교대강당 | | |
| | 3-21 | 제7기 2급 지도자 교육(연수과정) | | 국 기 원 | | |
| 10 | 4-16 | 1987년도 전국 우수 선수 선발대회 | | " | | |
| | 7-10 | 제1회 경기도 도지사기 평달전 태권도대회 | | 미 정 | | |
| | 15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 28-30 | 제17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 경기도 2차 선발대회 | 수원북중학교대강당 | | |
| | 13 | 경기도 국가원승품단 심사대회 | | 수원실내체육관(원) | | |
| 12 | 19 | 경기도 태권도인의 밤 | | 미 정 | | |
| | 24 | 경기도 태권도협회 산하 각시군 지부 불어웃음기 실시 | | 각 시 군 지 부 | | |

태권도 정신위에 학교상(像)정립

구리시 부양국민학교



이준원 교장

부양국민학교는 구리시의 신 개발지역에 새로이 신설된 국민학교이다. 지난 86년도에 학교가 문을 열 때는 우위의 인창국민학교, 토평국민학교, 구리국민학교에 다니는 1, 2, 3학년들중 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입되어서 심각한 학교라 학교운영 및 교육상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각기 다른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을 교육시키기에는 바람직한 중심점이 필요했고 교육철학의 정립이 시급했던게 부양국민학교의 고충이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국기인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전학생들이 운

동장에서 함께 수련함으로써 일치감과 소속감을 결집시켜 보겠다는 방침을 고려했다고 한다. 한편으론 교장실의 문호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개방하여 대화로 교육을 실천해가며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과 학생교육의 효율적인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는 가운데 그동안 고려중에 있던 전교생의 태권도 수련을 실천할 기회가 우연히 찾아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즉, 현재 부양국민학교 학생들의 태권도를 지도하는 남상덕 교치의 부인이 그곳으로 이사한 후 아들을 이 학교에 입학시키면서 교장실을 찾아가 아들의 교육문제를 상의하던 중 부군인 남상덕씨가 태권도를 하는 사범이라는 것을 알고 이종운 교장은 부양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 수련을 해 줄 것을 제의했고 이에 남상범도 적극 동조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남상범은 지난해 구리시로 이사하여 그해 9월 20일에 80여명의 넓은 도장을 갖춘 태권도장(영광체육관)을 개관하여 태권도 수련생을 한창 모집하던 중이었는데, 1달만인 10월 20일부터 부양국민학교의 전교생에게 매일 1시간씩 태권도를 수련시키게 된 것이었다.

부양국민학교의 이교장이 특히 태권도를 고기로서 하여 학생교육의 근본으로 삼은데는 세가지의 확고한 신념에서였다. 첫째, 요즘은 어린이들은 부모들의 과보호 아래 심신이 나약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정신적 극기심을 고양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것이 바



승품심사에 참가한 어린이들

람직하다는 것과 둘째, 태권도의 기본철학인 예시에종의 교육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규범생활을 함은 물론 바른 인격을 갖추는 기본이 된다는 것, 셋째,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자기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을 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46년간 교직에 몸담아 온 이 교장은 자신의 생활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 그것이 다소 늦게 이루어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각 교실마다 각종 교육자료 등을 갖추어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고 취미나 특기 등을 살려 자신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으로 복지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호철교감은 학생들이 태권도 수련후 소극적인 학교생활에서 대범하고 적극적이고 명랑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윤재남체육주임도 그동안 약 4개월에 걸쳐 시행된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학생들이 새학교에 쉽게 적응하고 있으며 예의범절이 바르다

고 대전스러워 했다.

특히 부양국민학교에는 18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그중 12명이 여교사로 처음엔 태권도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며 독려하고 있어 학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어 교장의 입장에서 대견하다고 표현한다. 또한 교사들도 태권도 수련에 적극 참가하여 내년쯤이면 초단자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운동장에서 매일 4교시에 1시간씩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는 남상덕 교치는 성동상고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할 당시 성동상고가 대통령배 3연패를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던 유능한 코치로 수많은 태권도 선수를 키운 장본인이다. 앞으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데도 한 몫 하리라 기대해 본다.



협회 창립 경기 (競技) 태권도 활성화 도모

광주 협회



광주협회의 유망주들

대의원 총회

지난 86년 11월 1일자로 전남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창립된 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협회 사무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대의원 25명중 21명이 참석하여 지난 2개월 간에 걸쳐 시행된 86년도 사업승인 및 87년도 사업계획 승인과 수지예산을 확정하였다.

광주직할시 신임 집행부는 지난 86년 10월 중순에 광주 시내 체육도장 사범이 모여 전행위원 5명(박세영, 정영교, 최용배, 김병원, 김관식)을 선출, 이들에게 임원선

출을 위임하여 회장에 김주훈, 부회장에 류효평, 한길진, 감사에 최인수, 장인환씨 등을 선임하고 관료임원은 회장단에 위임한 바 있다.

광주직할시의 김주훈 초대 회장은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태권도 7단인 정몽태 권도인으로 협회 초창기에 6백여 만원을 회사하여 새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솔선수범하였다. 김회장은 광주시협회는 체육관 수가 적은 대신에 초중고대학 체육에 태권도 지정학교 육성은 물론 태권도부를 적극 육성토록 하여 경기태권도의 활성화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미 각급학교와 태권도 육성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 살림을 나왔지만 전국체전 3위 입상을 목

표로 하고 있다」는 광주시협회의 태권도인들은 모두다 포부와 희망에 차 있다.

또한 김회장은 전남협회와 협조 단결하여 광주직할시협회와 유대를 강화, 자칫 발생하기 쉬운 마찰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입장에서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뜻 있게 하도록 당부했다.

광주시의 임원들과 일선 사범들은 태권도인이 회장이 되어 태권도 협회의 실질적인 운영방안 및 태권도 선수 육성에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협회가 창립될 때 전남 협회로부터 선수육성자금 중에서 1천만원을 할애받고 1백만원의 사무집기 비품 등을 지원받아 새살림을 시작하였는데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민철 총무이사는 전라남도협회내에 190여개 체육관이 있었는데 이 중 광주직할시에 있어 70여개의 체육관이 소속되어 있어 체육관 승품, 승단 심사비로 협회를 운영하는 실정으로서 앞으로의 살림살이가 걱정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광주직할시협회는 협회창설과 함께 회원수첩을 발행하여 전회원에게 발급한 바 있다. 회원수첩에는 회원증을 발급해 승품, 승단연한(기간)을 확실히 하고 있어 이 회원증이 없는 사람은 승품, 승단심

신임 임원명단



김주훈
회장



한길진
부회장



김우일
부회장



류호평
부회장



정철웅
부회장



윤판석
전무이사



김민철
총무이사



박현중
경기이사



강완림
이사



채희철
이사



안태연
이사



최윤배
이사



박상문
이사



김진갑
이사



전전수
이사



김영관
이사



홍상래
이사



이영석
이사



장홍호
이사



정종후
이사



오중열
이사



윤중석
이사



윤중석
이사



정중기
이사



박경환
이사



이기성
이사



김기남
이사



양승길
이사



임세빈
이사



장인환
이사



최인수
이사

사에 응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회원수집은 회원들에게 태권도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본다.

86년도에 시행된 주요사업으로

1. 승품, 승단 심사대회 : 지난 11월 30일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이 대회에서는 342명이 응시하여 329명의 합격자를 냈다.

2. 전대, 교대 학군단 심사대

회 : 지난 11월 12일 전대체육관에서 실시되었는데 135명이 응시하여 129명이 합격하였다.

3.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2차 평가전 : 지난 12월 21일 전남 훈련장에서 거행된 평가전에서 각급제 2위까지 선발하였다.

이처럼 광주직할시협회창립이후 3개의 사업을 치른 윤관석전무이사는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 전광관을 사용하여 관중과 경기자와 경기 운영자가 3위일체를 이루는 경기

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심판관정에도 객관적으로 승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정당당한 경기자의 자세와 공정한 심판원의 판정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고 볼 때 전광관 사용을 광주협회에서 운반비를 부담해서라도 꼭 시행하도록 노력하여 판정의 시비로 대회 뒤에 발생하는 잡음을 없애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도 사업계획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2월 8일 |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실내체육관 |
| 2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종 평가전 | 태권도훈련장 |
| 3월 4일~13일 | 제53기 지도자 교육(3급) | 국기원 |
| 3월10일~11일 | 87년도 전국 심판보수교육(1,2,3급 및 코치) | " |
| 3월14일 | 87년도 제1차 5,6단 고단자 심사대회(5,6단) | " |
| 3월16일~21일 | 87년도 전국 춘계종별 선수권대회 | " |
| 3월 | 87년도 품새 보수 교육 | 무동경기장훈련장 |
| 3월 | 87년도 심판 보수 교육 | " |
| 3월24일~4월11일 | 제6기 2급 지도자교육(연수과정) | 국기원 |
| 4월 1일~3일 | 87년도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 | " |
| 3월~5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합숙훈련 | 무동경기장훈련장 |
| 4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1차 예선대회 | 실내체육관 |
| 4월 9일~10일 | 87년도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 | 국기원 |
| 4월21일~22일 | 87년도 전국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 " |
| 4월 |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실내체육관 |
| 5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2차 예선대회 | 무동경기장훈련장 |
| 5월 | 제1회 국민학교태권대항 태권왕기 겨루기대회 | 실내체육관 |
| 5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경남울산시 |
| 5월 6일~15일 | 제54기 지도자교육(3급) | 국기원 |
| 5월15일~17일 | 제2회 월드컵 태권도대회 | 헬싱키 |
| 5월22일 | 87년도 여자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 국기원 |
| 6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최종 선발대회 | 무동경기장훈련장 |
| 6월 |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실내체육관 |
| 6월13일 | 87년도 제2차 고단자 심사대회(5,6,7단) | 국기원 |
| 6월13일~16일 | 제22회 대동령하사기쟁탈 전국단체대항 | 무산직할시 |
| 6월20일 | 제18회 주한 외국인 개인 선수권대회 | 국기원 |
| 7월~9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대표선수 합숙훈련 | 무동경기장훈련장 |
| 7월 1일~10일 | 제55기 지도자 교육(3급) | 국기원 |
| 7월 | 제1회 교육감기쟁탈 초·중학교대항 태권도대회 | 실내체육관 |
| 8월 |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 9월 2일~11일 | 제56기 지도자교육(3급) | 국기원 |
| 9월19일 | 87년도 제3차 고단자 심사대회(5,6단) | " |
| 9월21일~26일 | 87년도 전국 추계종별 선수권대회 | " |
| 10월 7일~10일 |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 스페인 |
| 10월 |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실내체육관 |
| 10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광주직할시 |
| 10월 | 제1회 회장기쟁탈 초·중학교대항 태권도대회 | 실내체육관 |
| 11월 | 조대 전대 교대 승단 심사대회 | 학교체육관 |
| 11월 4일~6일 | 87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 | 국기원 |
| 11월11일~21일 | 제7기 2급 지도자교육(연수과정) | " |
| 11월 | 제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평가전 | 무동경기장훈련장 |
| 12월 5일 | 87년도 제4차 고단자 심사대회(5,6,7단) | 국기원 |
| 12월 | 제69회 전국체육대회 1차예선 | 실내체육관 |
| 12월 |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 12월 | 태권도인의 밤 행사 | 무동경기장훈련장 |

'87년도 역점교육으로 태권도부 육성채택

북성중학교



김용철 교장

광주직할시내에 있는 태권도 육성학교로는 조선대학교, 송원전문대학, 호남대학, 전남체고, 동일실업고, 북성중, 전남체육중, 고려중, 문성중학교 등이 있다.

이들 학교 중에서 광주시내에서 중등부 간판학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북성중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태권도부가 발족된지 10년이 흘러 그동안 북성중학교를 거쳐 배출된 선수가 70여명으로 전남도 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전국체전에서 10여명의 입상자를 냈고 소년체전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매대회에서 공히 입상하는 등 전남에서 태권도 명문 중학교로의 위치를 탄탄히 다져왔다.

87년도에는 8명의 특기생이 입



송기순
감독교사



오중열
사범



북성중학교 태권도부원들

학하여 2학년 7명, 3학년 3명 등 총 18명이 태권도 수련에 임하고 있는데 북성중학교에서는 87년도 역점교육활동 중의 하나로 태권도부 육성을 들고서 태권도부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특히 김용철 교장은 체육을 전공, 체육교사, 교감을 거쳐 장성군 교육장 등을 역임한 뒤 북성중학교로 부임한 원로 체육인으로

태권도부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은 전남 도민의 아들, 금메달로 보답하자」는 신념아래 필승을 외치며 단계적 강화 훈련으로 제1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리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선수들은 오중열(협회 이사 겸 심사분과위원장) 사범의 지도하에 오사범이 관장하는 도장에서 수련을 하고 있다.

오사범은 77년도에 전남체육관을 개관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성중학교의 태권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체육관의 역사와 북성중학교 태권도부의 역사는 늘 함께 하고 있다며 가장 보람된 일은 지난 86년도에 소년체전 대표선수 코치로 참가하여 북성중학교 선수들이 2위로 입상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남 교육감기 5, 6, 7회 단체우승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체육고등학교 등에 전학하여 꾸준히 수련에 임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대견스럽다고 했다. 오사범은 수련생들에게 큰 욕심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며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항상 돕겠다는 생활자세를 갖도록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윤용석 사범은 오사범이 어려운 체육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한명과 대학생 한명을 숙식제공을 함은 물론 학비까지 부담하며 후진양성에 게으름이 없는 분이라고 전해주시기도 했다.



수련에 열중하는 수련생들

태권도 발전의 전환점 이룰 터

충남협회



충남의 유망주들

대의원 총회

충청남도 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1월22일 오전11시에 서대전 노타리리클럽 회의실에서 대의원 19명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충남협회의 한용석 회장은 신년도 계획으로 전국체전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충남태권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충남에 대학이나 일반부팀이 없어 재경(在京) 선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충남도내에 큰 기업체나 대학내에 팀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87년도에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의 배려로 대전체고에 태권도부가 3년만에부활되어 그동안 우수한 중학(백재,

대신, 예산, 삼광, 동성중학교 등에서 수련한 태권도 수련자) 선수들의 진학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음은 물론 충남 태권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태권도협회의 대의원 총회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회 및 87년도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확정이 있었다. 특히 충남태권도협회의 임직원 화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에 발족한 조기축구회를 올해에도 주 2회에 걸쳐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에 대전의 중심지인 대전시 동구 중동에 자리잡은 흥명백화점 5층에 사무실을 옮긴 충남협회는 올해를 충남태권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포부에 차있다.

그밖에 충남협회는 87년도의 목표를 첫째, 산하지회 및 일선체육관 육성강화 둘째,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셋째, 우수지도자 확보. 네째, 충청남도 기존선수 대표 선수로 육성. 다섯째, 태권도 세계화에 따른 기술개발. 여섯째, 전국체전 상위권 쟁취로 세우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한편 충남협회는 평화의 댜 건설 성금 모금운동에도 앞장서서 한용석 회장이 100만원을 기탁할을 필두로해서 승단 승품심사가 실시된 지난 해 12월 16일에 74만1천4백30원을 모아 기탁하기도 했다.

충남협회에서는 대전체고에 태권도부가 3년만에 부활됨에 따라 태권도 특기생으로 뽑힌 신경수(병천중), 이종덕(병천중), 안보현(백제중), 김병근(백제중), 구기정(서천중), 황일선(삼광중) 선수 등이 고교 태권도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는데 특히 소년체전 은메달리스트인 신경수선수와 안보현선수는 충남태권도의 대들보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임원명단

회 장 : 한 용 석 (성우개발대표)
부 회 장 : 박 창 락 (세종상사대표)
박 승 구 (문화체육관광장)
이 종 철



한웅석 회장

한 문 복 (명지회관대표)
 서 기 양 (린 나 이대표)
 심 창 업 (금 성 당대표)
 직무이사: 임 진 수 (성우건설사무)
 총무이사: 신 제 홍 (무덕체육관장)
 경기이사: 장 석 봉 (모아체육관장)
 차장: 윤 성 기 (원도체육관장)
 이 형 진 (국기체육관장)
 심판이사: 임 덕 제 (충의체육관장)
 차장: 장 태 윤 (갈마체육관장)

최 승 언 (배계체육관장)
 섭외이사: 한 장 언 (동아체육관장)
 차장: 김 기 상 (현대체육관장)
 시설이사: 민 인 식 (오도체육관장)
 차장: 천 경 용 (용문체육관장)
 한 복 동 (상무2체육관장)
 공보이사: 김 춘 배 (제일체육관장)
 차장: 한 광 회 (태 권 도 인)
 이 장 선 (국기체육관장)
 상벌이사: 오 노 균 (오현체육관장)
 박 인 성 (비호체육관장)
 감 사: 박 상 도 (도정체육관장)
 이 승 돈 (부여체육관장)

1987년도 사업계획

| 시행 월 | 사 업 명 | 장 소 |
|---------|-------------|-----|
| 2 | 제 1 회 이 사 회 | 협 회 |

| | | |
|----|-----------------------------|-------|
| 3 | 충남지역제1차 승용단 심사대회 | 충무체육관 |
| 3 | 제16회 소년체육대회 최종선발전 | 유성농고 |
| 5 | 서부지구 추계 승용단 심사대회 | 서 산 |
| 5 | 제16회 소년체육대회 | 울 산 |
| 5 | 제 2 회 이 사 회 | 협 회 |
| 6 | 충남지역 제2차 승용단 심사대회 | 충무체육관 |
| 6 | 제10회 회장기경말 태권도대회 | " |
| 7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2차 및 최종선발전대회 | " |
| 8 | 제17회 소년체육대회 1차 평가전 | 유성농고 |
| 8 | 제 3 회 이 사 회 | 협 회 |
| 9 | 충남지역 제3차 승용단 심사대회 | 충무체육관 |
| 10 | 제 4 회 이 사 회 | 협 회 |
| 10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광 주 |
| 10 | 제39회 도민체육대회 | 미 정 |
| 10 | 제17회 소년체육대회 2차 평가전 | 유성농고 |
| 11 | 서부지구 추계 승용단 심사대회 | 미 정 |
| 11 | 제 5 회 도지사기경말 태권도대회 | 충무체육관 |
| 12 | 충남지역 제4차 승용단 심사대회 | 충무체육관 |



오노균 관장

대전에 위치한 오현체육관은 1980년 6월 15일에 개관한 이래 유치부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유치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오현체육관의 오노균 관장은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자. 둘째, 사회에 봉사하자. 셋째, 나라에 충성하자라는 지도방침 아래 사범 4명과 유아교사 4명 등 8명의 지도자가 사회교육자적 측면에서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1987년 1월 현재 유치부 115명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전인교육실시

오현체육관

(3개반), 국교생 89명, 중고등학교생(청소년반) 32명, 성인 및 여자부 13명, 개인지도부 9명 등 총 250여명에 이르고 있다.

관장 자신이 직접 도복을 착용하고 1주일에 2~3회 정도 직접 지도하며 학부모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종 애경 사시에는 가능한한 참가하고 있다는 오관장은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 학부모들은 신뢰를 보내고 아이들을 맡기며, 사범 자신이 외국에 나와 있다는 정신자세로 연구하고 노

력하면 우리 태권도의 앞날은 저극히 밝다」고 말했다.

오현체육관은 종합 신체 단련과 정신수양 수련을 조화해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 체육관중의 하나이다. 특히 그 교육내용에 있어 태권도를 통한 튼튼한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 교육을 위해 예절지도, 건강생활지도, 집단 생활을 통한 협동심, 봉사정신,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기 위한 애국조회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정식교육과 인지도발달을 위하여 과학관 견학 등 현장교육을 통해 산 경험을 획득하도록 하는 교육도장으로 자리를 굳혔다.

오현체육관 수련생들은 1982년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준우

승, 1986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국회의원기 체육대회 종합우승, 11월에 개최된 도시사기 태권도대회 개인전에 다수 입상하기도 했으며 오현체육관은 태권도지도유통도 협회장상, 모범도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매분기마다 계간 "오현체육회보"를 발간하여 각종 체육소식, 학교소식, 문예란 등을 갖추어 태권도회원 상호간 정보 교환 및 다같이 참여하는 오현체육인으로의 소속감도 다지고 있다.

한편 오현체육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자모들도 자모회를 "오현교육협의회"로 구성하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오현체육관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오현체육관에서는 충남 각 지역의 유치원 교사 30여명들에게 체육강습을 실시한 바 있고 이밖에 도 유치원교사들이 견학을 오는 등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유치부 태권도 시범단 20명은 유치부 월수련비외에 태권도 수련비를 지불하면서까지 특별운동에 참가하여 수련에 임하는 등 태권도의 진가를 높여주고 있다.

그밖에 수련생들은 양로원 위문, 자연보호운동, 신문사, 방송국, 과학관, 공장 등 사회시설과 관광지 견학 등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년 말에는 오현축제를 열어 전 관원은 물론 학부모를 초청하여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참고로 오현체육관의 유치부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부 하계강화 훈련을 마치고

교육프로그램 소개

1. 유치부 태권도

1. 유치부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목표 : 전인 교육에 바탕을 둔 기초적 인간을 완성 한다.

●년간 월간 주간 교육 계획작성

- 월요일은 애국초회를 통한 국가관 확립
- 토요일은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다양한 행사

- 여름 캠프-프(년 1회 2박3일)
- 생일축하 파티(분기별 1회)
- 오현축제 개최(매년 1회)
- 창작품전시회 개최(매년 1회)
- 승품단심사 참가(년 1회)
- 교육평가 및 연구 발표(분기1회)

- 자연관찰 학습지도(년1회이상 계통산 학습관)
- 극기훈련(년1회 8키로 행군)
- 체육대회 개최(년1회)
- 유적지 및 명승지 견학(년1회)

●체육활동을 통한 튼튼한 몸 만들기

- 매주 수요일은 용의 검사의 날
- 건강진단 년1회이상 실시(대덕군 보건소 의뢰)
- 각종 예방접종실시(뇌염 및 간염 등)
- 유아체조와 게임을 병행하여 지도

●견학 실시

- 방송국 및 신문사 견학(년1회 이상)
- 공장견학(범한식품 및 식품회사 견학)
- 농장 및 선인고택을 견학(년 1회 이상)
- 박물관 및 과학관 견학(년1회 이상)

● 충효사상 교육

- 어버이날 행사 실시 (5월 8일 "오현의 밤 개최")
- 양노원을 방문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기
- 웃어른에 대한 인사 잘하기

● 태권도 사관 고취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통한 "도"를 중시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함. (년 20여명 유치부 승품단 심사에 응심)

- 태권도 역사 지도
- 유치부 전원 태권도 기본동작 숙달
- 태극품세를 적극 지도 한다.
- 나의 수련 강령(별칭 암기문)을 숙지하고 뜻을 이해시켜 정신교육을 시킨다.

2. 국교부 태권도교육 프로그램

목표 : 튼튼한 몸, 강한 의지, 하연된다는 신념을 심어 주며 예절교육에 철저를 기한다.

● 연간 주간교육 계획안 작성

● 반복된 교육을 지양하고 교양체육 활동으로써 승화시키며 결석을 배제한다.

- 무결석자(월·년)에게는 별도 포상 한다.
- 태극품세를 마스터한 유품단자에게는 8패 품세를 별도 지도 하다
- 각반별(부별, 급별) 선인 학생 반장을 선출하고(임기1년) 단결을 유도하며 월 1회씩 분입 토의를 주재 한다. 이토의에서 의

결된 사항은 다음달 행사에 우선 채택 한다.

● 선행관원 장학금지급

- 년간 10명을 선정하여 승급 심사시 1명당 30,000원씩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 한다(지급시 학부모님께 단상에서 수여)

● 다양한 행사

- 체육대회 개최(분기별 1회) 타 체육관 대항 및 부별 대항전
- 태권도 대회 참가(도협회 주관)
- 극기훈련 및 여름캠프 실시(년 1회)
- 승급 및 승단심사
- 영화관람(년 3회정도)
- 탁구, 축구, 로울러스케이팅, 배드민턴 등 사회체육 과목지도 및 경기
- 학급관람 실시(년 2회)

● 교양체육

- 도장 출·퇴시 국기에 대한 경례의 생활화

- 방학 특강으로 한문 교육(명심보감) 실시
- 어린이 신문읽고 발표하기(스크레디도)
- 전통 예절 배우기
- 부모님 생신일 알고 큰절 올리기
- 근검 절약의 저축 지도

● 모범 어린이 표창

- 정기 승급 심사시 선행 어린이와 모범 어린이(관원)을 표창 한다.
- 모범 어린이상 : 국회의원상장 및 부상
- 효행상 : 어머니 후원회장상
- 선행상 : 장학금 지급
- 저축우수상 : 주택은행 유원동 지점장상
- 수련성적 우수 및 개근상 : 관장상

● 아동 관찰

- 학업 성적이 우수 하거나 향상된자는 반드시 격려하여 주고 칭찬 한다.



오현축제에 유치부 시범단 태권도 시범

- 아동의 생일을 입관시 자연스럽게 파악하여 일지에 기록하고 선물을 주고 축하해 준다.
- 권태를 느끼는 관원은 관장이 직접 면담하고 성공담·태권도의 세계화에 따른 전망·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의 프로필 등을 이야기 해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

3. 부형과 체육관과의 유대강화 방법

- 학부모님을 내부로 모시듯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 친절환 전화 받기 (말하기)
- 내가 먼저 반갑게 웃는 낮으로 먼저 인사 하기
- 애경사시 적극 참여 및 병문안을 꼭 찾는다.
- 가족행사(환갑, 결혼, 생일등) 축하인사 하기

- 영업을 하는 학부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의 행사시 학부모에게 주지시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 학부모 관리

- 각종단위 어머니회 (교육협의회) 이사를 1명씩 쓴다.
- 매월 1회 어머니회 이사회(회장 주관) 체육관에 개최하고 당면 사항을 토의하며 회의의 결과를 관에서 적극 수렴한다.
- 전체 어머니회는 년2회 정도 개최하며 자모 회의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정규 회비에 포함하며 년간 회의비를 관에서 배정운영 한다.
- 년1회 정도 가족 체육대회를



유치부 어린이들의 농악 시범

개최 한다. (봄)

• 학부모 교육

- 학기초 대의 강사를 초빙하여 부모교육을 실시 한다.

- 불필요한 잡부금은 일체 징수하지 아니한다.

4. 특색있는 활동

본관에서는 태권도 교육 이외에 여름 캠프를 실시하며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특히 8키로 이상 도보를 실시 인내정신을 길러 준다. 청소년부 이상 (교학생)은 지도 사범 인솔로 년1회 이상 5박 6일 정도로 명산 대천을 찾아 심신을 단련한다. 가족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선행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어 격려하며 12월에는 전체육관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를 끝으로 1년을 마무리 한다. 특히 1년을 마무리 하면서 학부모와 수련생이 공동으로 전통공예 및 창작품 전시회는 학부모님들이 적극참여 함은 물론, 평이 매우 좋다.

5. 년간 지도 계획

| 월별 | 내 용 |
|----|---|
| 1 | 사무식 전수련생 개강 장기승급심사 동계체력강화훈련 작품전시회 |
| 2 | 체육도장 환경정리 유치부 수료식 승급심사 및 유공관원표창 우수지도자(사범, 교사) 표창 동계체력 2차훈련 |
| 3 | 가정방문실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유치부 입학식 교육협의회(어머니후원) 정기총회 전관원 정신교육 품새 및 겨루기 지도 |
| 4 | 유치부 생일파티 식목행사 체육대회(가족제전) 장기승급심사 태권도 기본기 전문 지도 |
| 5 | 과학관 견학 어버이날 행사(오현의 밤) 스승의 날 사은회 및 선생님께 편지 쓰기 지도 장기승급 심사 |
| 6 | 국립묘지(대전분원) 참배 개관 7주년 태권도 대회 및 연무 시범대회, 유공자 표창 반공관 견학 전수련생 전반기 교육평가 및 연구 발표 |
| 7 | 농장 견학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 여름 캠프, 극기훈련 실시 · 국토순례(청소년부) |

| | |
|---|---|
| | 사회체육 과목 전문 지도 봉사 활동 정기승급심사 및 하계 방학 |
| 8 | 전수련생 개강 하계 체력단련 선진지 견학(국교부) 정기 승급심사 생일축하파티 |
| 9 | 방송국 견학 박물관 견학 유적지 및 명승지 견학(유 치부) 정기승급 심사 추계체육대회(도장대항) 신문사 견학 사회체육과목 전문지도 전수련생 일제 점검 |

| | |
|----|---|
| | 정기승급심사 |
| 11 | 축제준비 품새 및 겨루기 평가 동계훈련 계획서 제출 정기승급 심사 |
| 12 | 오현축제 종 강 식 |

나의 수련 강령

1. 도정은 나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수도장 이므로 모든 잡념과 사심을 버리고 도를 닦는 참선의 마음으로 일한다.
2. 나는 예의를 생명으로 하는 무사도임으로 진심으로 선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후배를 선도하며 용화단결로써 동배와 삶을 같이 한다.

3. 태권도는 나의 참된 무술임을 명예스럽게 자부하며 나의 생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생활종교임을 망각하지 않고 수련에 매진한다.
4. 나는 우리 관원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무사정신을 발휘하여 항상 남을 돕고 헌신 봉사하는 희생정신을 나의 생활 신조로 삼는다.
5. 나는 나의 몸이 강인함을 목표로 기술연마에 노력하며 나의 자신과 인격은 투지, 용기, 인내로써 함양되겠음을 맹서 한다.
6. 나는 항상 무사도임을 망각하지 않고 건전한 정신생활과 올바른 마음을 갖음으로써 참에 살고 위에 죽는 정의의 사자가 될 것을 무도인의 이름으로 선서한다.



국립모지를 참배한 유치부원들

협회 행정의 체계화로 효율적인 운영

충북 협회



회장
전운덕



전무이사
정만순



신임이사 김경태



신임이사 이천구

대의원 총회

충청북도 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1월24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86년도 사업승인과 8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하였다.

재적 대의원 13명 중에서 11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충북 승품단 심사대회를 시작으로 한 15가지가 사업계획과 제

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선수단 하계훈련, 제68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훈련계획도 확정했다.

한편 충북태권도협회의 전운덕 회장은 협회행정을 체계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86년 5월부터 이철재사범을 사무국장으로서 상조시키고 있다고 하며 계속적으로 협회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

안으로 조직적인 태권도를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정만순 전무이사는 지난 12월 30일 체육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충북협회의 신임이사로 이천구(대청신용금고 총무부장), 김경태(전국전매노조 교육부장)씨 등이 임명되었다.

1987년도 사업계획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3월하순 | 충북 승품·단 심사대회 | 충태협체육산 |
| 5월 | 제1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 청주실내체육관 |
| 5월하순 | 제11회 충북 국교 연맹대회 | 충태협체육관 |
| 6월중순 | 충북 승품·단 심사대회 | 청주실내체육관 |
| 6월하순 | 제68회 전국체전 충북 예선대회 | " |
| " | 제9회 정갑순 회장 추모대회 | " |
| 9월초순 | 제16회 충북 소년체육대회 | 미정 |
| 9월중순 | 충북 승품·단 심사대회 | 충태협체육관 |
| 10월 | 제68회 전국 체육대회 | 광주 |
| 10월중순 | 제32회 종경기 대회 | 청주실내체육관 |
| 10월하순 | 제26회 도민 체육대회 | 미정 |
| 11월초순 | 제14회 교육감기 대회 | 청주실내체육관 |
| 11월중순 | 제13회 충북 중·고 연맹대회 | 미정 |
| 12월초순 | 충북 승품·단 심사대회 | 충태협체육관 |
| " | 87년도 충북 태권도인의 밤 | " |
| 동계훈련 | 제1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 " |
| 8월초순 | 충북 선수단 하계훈련 | 구인사 |
| 7월-10월 | 제68회 전국 체육대회 | 충태협체육관 |



김명제 후원회장

태권도인 육성에 한뜻 이룬 김명제 후원회장과 유효열 사범

동부체육관

현재 충북협회에는 50여개의 체육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19개의 체육관이 청주시에 자리잡고 있다.

숨은 미담의 주인공은 청주시 대성동에 자리잡은 동부체육관의 유효열 사범과 이 체육관을 뒤에서 후원해 주는 김명제 (영광공업사 대표) 후원회장.

이 두사람의 뜻이 서로 통한 것은 유효열 사범이 충북을 대표하는 태권도인을 키워보겠다는 후배 양성에 뜻을 두고 있었던 것과, 평소 애 충북에서 장학사업 등으로 젊

은이들을 아끼고 지원해 왔던 김명제씨의 뜻이 합쳐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효열 사범은 원래 김명제씨가 운영하는 삼원교통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그 때 유사범이 자신의 꿈은 체육도장을 차려서 후배양성이란 것을 말했었는데 이를 들은 김명제씨가 기꺼이 이러한 꿈을 이루어 이 나라발전의 디딤돌인 젊은 이들의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결심을 굳히고 몸소 후원회장을 맡아 83년 9월에 체육관을 개관하게



유효열 사범

된 것이다.

현재 이 체육관에는 70여명이 수련하고 있고 이 중 20명이 중고생이다. 40여평의 넓은 도장에는 이제 각종 운동기구가 완비되어 있고 봉고차 등도 마련하여 청주시의 사회체육의 한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동부체육관에서 충북대회에 출전한 선수만도 100여명, 도복을 입었던 관원수는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유사범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김명제씨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도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 체육관에서 참된 태권도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태권도 기술수준을 높여 충북을 대표하는 선수도 키워보겠다고 한다.

한편 이렇게 동부체육관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김명제씨는 각 학교에서 추천한 2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로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한 바 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데 이들의 경우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진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학교 체육의 생활화

청주남중학교



이정희 교장



이창석 코치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주남중학교는 85년 3월에 태권도학교로 지정되면서 태권도부가 창설한 이래 만 2년만에 태권도 명문 중학교로 자리잡아 갈만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태권도부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5여년 동안 교장직을 아온 이정희 교장은 국운을 좌우할 제2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서 학생은 교육자의 열성과 사랑만큼 성장한다는 신념으로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것과 성실껏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

전년도에는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체육대회에 교장 자신이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하는 등 스포츠맨이기도 했다.

이교장은 태권도 수련생들과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항상 간에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비난을 일소하기도 했다.

또한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건강인을 기른다는 학교방침으로 태권도 외에도 럭비

기계체조, 레슬링, 육상 등을 중심으로한 학교체육을 학생들에게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전 학생들이 자유롭게 심신을 단련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육체로 명량한 생활화를 꾀하여 건전한 생활인을 육성하며 스스로 교육열을 고취시킬 수 있는 힘을 축적하기도 한다.

현재 청주남중학교는 14명의 태권도부원이 있는데 이노형 감독과 이창석 코치가 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청주남중은 태권도부가 창설된

그해 9월에 교육감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었고 제14회 전국소년체전에 해비급, 라이트급, 웰터급 등 3체급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86년도에는 초중학교 우수 선수평가회에서 이재길 이 라이트급 1위, 이재정이 라이트미들급 1위, 박일환이 해비급 1위를 차지하며 종합 2위를 거두었다. 또한 중정기대회 종합 2위, 제13회 교육감기 중학교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올해에는 태권도부원들이 1학년 때 소년체전에 참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량을 닦아올 올해에 거행될 전국소년체전에는 조영국(벤텀급), 이재정(라이트미들급), 이재길(라이트웰터급)이 충북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북협회

정책종목으로의 채택이 시급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영현 교장



유형한 감독

전북 체육고등학교는 운동하며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체육고등학교이다.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기운동을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수 체육인을 육성한다는 학교방침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을 조화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2년도에 전북 체육중학교로 개교한 이래 1976년 전북 체고로

문을 연 전북체고에서는 육상, 수영, 양궁, 사격, *체조,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펜싱, 태권도, 조정 등을 육성종목으로 하여 과학적인 훈련방법에 의한 기량신장을 위한 각종 수련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태권도부에는 1학년에 5명 2학년에 4명, 3학년에 9명 등 총 18명이수련을 쌓고 있다.

전북체고 출신으로 고교 재학시 국가대표선수를 지낸 함준 선수와 이학교 출신으로 국가대표로 활동한 신재조 선수등은 태권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전라북도 도대표 선수로는 매년 8체급 중 6-7체급에서 대표로 활약하고 있을만큼 전북 태권도의 요람이기도 하다.

태권도를 지도하는 유형한 감독은 79년도부터 체고에 재직하며 태권도를 지도해 왔는데 유감독은 「전북에 중학태권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라 재원이 부족하고 고등학교에서 새로 키워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태권도선수들이 학교에서 수련하거나 합숙훈련 등으로 한국체대 선수등과는 기량을 겨룰만 하다고 보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시합을 벌이면 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움외에도 13개 운동

부서 육성 중에서 정책종목(9개 종목)에서 제외됨으로써 학교태권도 육성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종목으로 채택되어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는 것이 유감독의 말이다.

한편 전북체고의 이영현 교장은 44년도부터 교직에 몸담아 온 원로교육자로 62년도 전주고교에 재직할 때 체육교사로 태권도 감독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당시 제자중에 최영일, 유영환, 유기대 선수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교장은 태권도부를 인솔하고 대만친선경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 태권도부 학생들이 예외바르고 질서를 준수하는데 앞장서는 모범생이란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태권도부의 유형한 감독은 전주공고 재학 당시 전국체전 44, 46, 47, 48,회에 출전하여 46회부터 3년간 우승을 하였고 종별선수권대회(1965년) 1회, 대통령기 대회(1967년) 1회에 출전하여 경희대 재학시에 단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 유감독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영광된 순간을 갖게 하기 위해 태권도부 선수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수련에 임하고 있다.

전북협회

정책종목으로의 채택이 시급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영현 교장



유형환 감독

전북 체육고등학교는 운동하며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체육고등학교이다.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기운동을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수 체육인을 육성한다는 학교방침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을 조화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2년도에 전북 체육중학교로 개교한 이래 1976년 전북 체고로

문을 연 전북체고에서는 육상, 수영, 양궁, 사격, *체조,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펜싱, 태권도, 조정 등을 육성종목으로 하여 과학적인 훈련방법에 의한 기량신장을 위한 각종 수련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태권도부에는 1학년에 5명 2학년에 4명, 3학년에 9명 등 총 18명이수련을 쌓고 있다.

전북체고 출신으로 고교 재학시 국가대표선수를 지낸 함준 선수와 이학교 출신으로 국가대표로 활동한 신재조 선수등은 태권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전라북도 도대표 선수로는 매년 8체급 중 6-7체급에서 대표로 활약하고 있을만큼 전북 태권도의 요람이기도 하다.

태권도를 지도하는 유형환 감독은 79년도부터 체고에 재직하며 태권도를 지도해 왔는데 유감독은 「전북에 중학태권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라 재원이 부족하고 고등학교에서 새로 키워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태권도선수들이 학교에서 수련하거나 합숙훈련 등으로 한국체대 선수등과는 기량을 겨룰만 하다고 보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시합을 벌이면 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움외에도 13개 운동

부서 육성 중에서 정책종목(9개 종목)에서 제외됨으로써 학교태권도 육성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종목으로 채택되어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는 것이 유감독의 말이다.

한편 전북체고의 이영현 교장은 44년도부터 교직에 몸담아 온 원로교육자로 62년도 전주고교에 재직할 때 체육교사로 태권도 감독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당시 제자중에 최영일, 유영환, 유기대 선수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교장은 태권도부를 인솔하고 대만친선경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 태권도부 학생들이 예외바르고 질서를 준수하는데 앞장서는 모범생이란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태권도부의 유형환 감독은 전주공고 재학 당시 전국체전 44, 46, 47, 48,회에 출전하여 46회부터 3년간 우승을 하였고 종별선수권대회(1965년) 1회, 대통령기 대회(1967년) 1회에 출전하여 경희대 재학시에 단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 유감독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영광된 순간을 갖게 하기 위해 태권도부 선수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수련에 임하고 있다.

총화단결 주창

전남협회



신임 임형연 회장

전남태권도협회는 지난 86년 11월 1일 전남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가 분리되어 나가게 됨에 따라 신임집행부를 구성하여 어느 지역의 협회보다도 활발히 전남의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전남 태권도협회는 광주직할시 협회와 분리될 때 신임 집행부를 구성할 때 직장이 있는 곳에 소속 되도록 하여 거주지역도 동일시 하였는데 지방조직관리 등을 고려하여 김정록 상임 부회장과 박창웅 전무이사는 전남협회에 남아 업무를 계속 담당기로 했다.

한편 전남태권도협회의 신임 임형연 회장은 지난 84년부터 전남태권도협회이사로 일해온 태권도인으로 목포시 태권도협회 회장을 7년간 역임해 왔다.

한편 전남 체육회는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광주직할시 체육회로 분

리 독립해 나가게 됨으로써 34개 경기단체가 68개로 분할되면서 체육회에서는 7인의 집행위원을 구성하여 각 경기단체장을 위촉, 전남태권도협회장으로 임형연 이사가 주대되어 과도기를 거쳤고 대의원 총회에서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인 뒤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회장은 광주직할시와 분할되면서 야기될지도 모를 잡음을 없애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태권도의 발전을 기한다는 취지 아래 전남인으로서의 총화단결을 주창하였다. 또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주력하기 위한 토대로 태권도 센타건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임기 중에 실천에 옮길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앞날의 포부를 밝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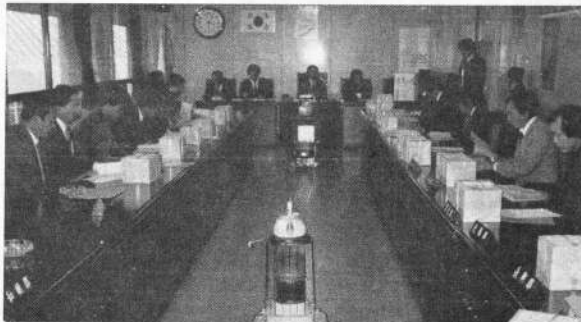
대의원 총회

한편 전남태권도협회는 86년 12월 20일 대의원 22명 중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체육회 강당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86년도 주요사업의 승인 및 87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고 대의원 총회를 마친 후 전남 태권도인의 밤을 개최하여 86년도의 사업을 총 마무리 지었다.

전남협회는 전국체육대회에서 5년간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광주직할시협회와 분리됨에 따라 더욱더 분발의 계기로 삼아 최대의 노력을 경주자는 다짐의 소리가 높았다.

한편 전남협회는 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 발족시에 1978년부터 심



대의원총회 광경

이사명단



김영일 이사



양일모 이사



강진산 이사



이천석 이사



백봉선 이사



이명섭 이사



장수남 이사



임기남 이사



박재승 이사



강성호 이사



김원규 이사



임동길 이사



이창규 이사



조철현 이사



최경양 이사



고경일 이사



이오희 이사



김순식 이사



김이현 감사



이정남 감사

사비중 선수육성비로 조성해온 기금 중에서 1천만원을 할애해 주었고 사무집기 구입비로 1백만원을 보조해 광주직할시 발족에 협조하였다.

전남협회와 광주직할시협회로 분리되기 전에는 190여개 도장이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광주시 소재로 70여개 체육관이 넘어가고 전남협회에는 124개 체육관이 남아 태권도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주로 각 수련생들의 승품, 승단 심사비로 협회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전남협회로서는 광주협회보다도 협회운영이 원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남협회는 광주직할시와 분리됨에 따라 대회시 심판위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전남협회 단독시에는 광주시내의 심판을 기용

하여 대회를 치루었는데, 광주직할시가 분리됨에 따라 지방에 산재해 있는 심판을 초치하여 대회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경비는 물론 인력동원 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신입 임형연 회장이 심판원 54명에게 심판복 일체를 맞추어 주는 등 사기진작에도 힘을 쏟아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박찬우 전무이사는 말했다.

한편 각 지역의 태권도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치루자는 일선 사범들의 건의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현재로서는 대회를 치를만한 장소가 부재하여 이의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남협회의 특기할 사항으로는 일반부선수 전체급 8명에게 각 군의 군청 직원으로 채용 알선하여

생활 걱정없이 태권도에 전념토록 보장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전남협회도 각시도 협회와 같이 매스컴의 홍보부족을 지적하여 국기 태권도가 전 국민의 가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매스컴의 홍보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태권도인은 물론 매스컴의 관계자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남 태권도인의 밤

대의원 총회 후 이어 벌어진「전남 태권도인의 밤」 행사에는 내외 귀빈과 태권도인 등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 졌다.

특히 이날은 전남협회의 회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는데 제 9대 회장인 손종일 의학박사의 이임식과 제10대 회장으로 추대된 임형

연 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전임 손회장에게는 태권도 명예 4단증과 협회 금패지를 선물하여 그동안 태권도 발전을 위해 일해 온 공로를 치하했다. 한편 광주경찰서 윤순돈 서장과 안주섭 목포시장에게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았음을 인정하여 각각 태권도 명예 4단증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격려금 전담이 있었다.

이날 전남태권도인의 밤 행사에서는 평화의 땀 성금 모금을 즉석에서 실시하여 33만원의 성금이 모여져 K.B.S 광주 방송국에 접수하기도 했다.



1987년도 사업계획

| 일 시 | 사 | 업 | 명 | 장 소 |
|------------|---------------------------------|---|---|------------|
| 1월-2월 | 도내일원 부실도장 및 무자격도장 | | | 28 개 시 · 군 |
| 1월25일 | 전남지구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광주실내체육관 |
| 2 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종 평가전 | | | 태권도훈련장 |
| 3월4일-13일 | 제53기 지도자 교육 (3급) | | | 국 기 원 |
| 3월10일-11일 | 1987년도 전국 심판보수교육(1, 2, 3급 및 코치) | | | 국 기 원 |
| 3월16일-21일 | 1987년도 전국 춘계총별 선수권대회 | | | 국 기 원 |
| 3월21일 | 1987년도 제1차 고단자 심사대회 (5, 6단) | | | 국 기 원 |
| 3 월 | 1987년도 제1차 품새 보수교육 | | | 광주실내체육관 |
| 3 월 | 전남지구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동 부 지 역 |
| 3 월 | 동부지역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동 부 지 역 |
| 3월24-4월11일 | 제6기 2급 지도자교육 (연수과정) | | | 국 기 원 |
| 4월1일-3일 | 1987년도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 | | | 국 기 원 |
| 3월-5월 | 제1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도대표선수 합숙훈련 | | | 광주직할시 |
| 4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전남1차 예선대회 | | | 광주실내체육관 |
| 4월9일-10일 | 1987년도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 | | | 국 기 원 |
| 4월21일-22일 | 1987년도 전국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 | | " |
| 4 월 | 제26회 전라남도인 체육대회 | | | 나 주 시 |
| 4 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전남2차 예선대회 | | | 광주실내체육관 |
| 4 월 | 제2회 전남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 | | " |
| 5 월 | 제4회 국민학교대학 태권도왕기 겨루기 대회 | | | " |
| 5 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 | 경 남 울 산 시 |
| 5월6일-15일 | 제54기 지도자 교육 (3급) | | | 국 기 원 |
| 5월15일-17일 | 제2회 월드컵 태권도대회 | | | 핀 랜 드 |
| 5월22일 | 1987년도 여자국가대표 선발대회 | | | 국 기 원 |
| 5 월 | 전남지구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 | 광주실내체육관 |
| 6 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최종 선발대회 | | | 태권도훈련장 |
| 6월13일 | 1987년도 제2차 고단자 심사대회 (5, 6, 7단) | | | 국 기 원 |
| 6월13일-16일 | 제22회 대통령하사기생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 | | 부 산 의 학 시 |
| 6월20일 | 제18회 주한 외국인 개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 | | 선 국 기 원 |
| 6 월 | 동부지역 및 승단 심사대회 | | | 동 부 지 역 |
| 7월-9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선수 합숙훈련 | | | 광 주 직 할 시 |
| 7월1일-10일 | 제55기 지도자 교육 (3급) 도 | | | 국 기 원 |
| 7 월 | 제9회 교육감기생탈 초·중·고 학교대학 태권도대회 | | | 광주실내체육관 |
| 7 월 | 전남지구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 |
| 8 월 | 제8회 도지사기생탈 시·군대학 태권도대회 | | | " |
| 9월2일-11일 | 제56기 지도자 교육 (3급) | | | 국 기 원 |
| 9월19일 | 1987년도 제3차 고단자 심사대회 (5, 6단) | | | 국 기 원 |
| 9 월 |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 | | 스 페 인 |
| 9 월 | 1987년도 전국 추계총별 선수권대회 | | | 국 기 원 |
| 9 월 | 전남지구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광주실내체육관 |
| 9 월 | 동부지역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동 부 지 역 |
| 10 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 | 광 주 직 할 시 |
| 10 월 | 제4회 회장기생탈 초·중학교 대학 태권도대회 | | | 광주실내체육관 |
| 11 월 | 1987년도 제2차 품새보수교육 | | | 태권도훈련장 |
| 11월3일-21일 | 제7기 2급 지도자교육(연수과정) | | | 국 기 원 |
| 11월4일-6일 | 1987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 | | | 국 기 원 |
| 11 월 | 전남지구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광주실내체육관 |
| 11 월 | 제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1차 평가전 | | | 태권도훈련장 |
| 12월5일 | 1987년도 제4차 고단자 심사대회 (5, 6, 7단) | | | 국 기 원 |
| 12 월 | 동부지역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 | 동 부 지 역 |
| 12 월 | 태권도인의 밤 행사 및 1988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 | | 체 육 회 관 |

손종일 전임회장이
임형연 신임회장에게
협회기를 인수하고 있다.



권갑수 사범

유명선수들 키워낸 명문 태권도학교 학다리고등학교

선수층이 얇은 지방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전국대회 입상 선수 10여명을 육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태권도인들은 물론 전국민들의 귀에 익은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이계행선수(현 국가대표·미들급)를 주축으로 해서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에서 입상을 거둔 이계용, 박영석, 최공집(전국가대표), 광병오, 서재광, 이운수, 김우창, 김영태, 정희철 등 많은 선수들을 태권도 선수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들이다. 이처럼 많은 태권도 선수들을 배출한 학교는 전라남도 함평에 위

치한 학다리 중고등학교이다.

현재 1학년에 4명, 2학년에 5명 3학년에 5명 등 총 14명의 태권도 특기생들이 전면 장학혜택을 받으며 태권도 수련에 임하고 있다.

태권도 명문고로 자리잡은 학다리 중고등학교는 그동안 50여명의 선수를 육성해 왔는데 국가대표선수와 전국대회입상 등 전남 뿐만 아니라 한국의 태권도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학다리고등학교의 심상필교장은 태권도부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선수격려는 물론 태권도 수련시에 주식과 부식 등을 보살피

주는 등 사기진작에 애쓰고 있다. 또한 송동석 체육주임도 태권도부 육성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한편 학다리고등학교 태권도부를 지도하고 있는 권갑수 사범은 1973년도 태권도부 창설 때부터 학다리고등학교의 태권도부를 육성하여 전남 태권도발전의 대들보들을 키워 온 숨은 공로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남에서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로는 중등부에는 여수중, 삼광중, 화원중, 청호중, 녹동중, 고흥중, 수북중, 무안중, 강진중, 화순중, 유달중, 광양중학교가 있고 고등부에는 목포고, 학다리고, 영광중고, 강진고, 화순고, 별교상고 등이 있다. 이밖에 대학부에 목포대학이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학교에서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전남 태권도 발전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합대회로 협회운영 활성화 모색

경북 협회



대의원 총회

경북태권도협회는 87년 1월 24일 12시 영남별장에서 재적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1986년도 사업보고 및 1987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경북협회의 김경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협회운영의 재정부족을 총화단결된 힘으로 극복하자며 이를 위해 태권도 단합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보고 및 안건토의 등으로 총회를 마쳤다.

1986년도 주요사업

1. 86년 2월에 서울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플라이트급에 김영식(상무), 웰터급에 문종국(경북협회)선수가 1진으로 선발되어 제 10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각각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밖에도 핀급 2위에 임성욱(경북체고), 라이트급 3위에 이창진(한국체대), 미들급 3위 장질환(상무)이 각각 국가대표

로 선발되었다.

2. 1986년 6월에 13개시도 313명이 출전한 가운데 수원 성균관대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 6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북출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고등부)

- 1위 밴텀급 이희영(경북체고)
- 2위 웰터급 이경진(포항수고)
- 2위 헤비급 이진원(경북체고)
- 3위 라이트급 박철영(포항수고)

(대학부)

- 2위 라이트급 이창진(한국체대)
- 3위 페더급 김영철(한국체대)

(일반부)

- 3위 라이트급 이성국(육군 3사)
- 3위 웰터급 시인규(경천체)

3. 1986년 7월에 국기원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경탈전 겸 제13회한국중·고연맹
개인선수권대회 : 전국116개교에서
1,268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등부

에서 해비급 1위에 이권원(경북체
고), 밴텀급 3위 화종민(경북체고)
선수가 입상했다.

4. 1986년도 승품 승단심사 :
4차례에 걸친 승품·승단 심사에
총 7,538명이 승단했다.

1987년도 사업계획

| 순번 | 시행기간 | 사 업 명 | 내 용 | 장 소 | 주 최 |
|----|--------|---------------------|------------|-------|-------|
| 1 | 3 월 중 | 제16회 전국소년체전 최종선발전 | 중 등 부 | 미 정 | 도 교 위 |
| 2 | " | 1/4분기 승품 및 승단검사 | 경 북 일 원 | 실내체육관 | 본 회 |
| 3 | 2월~4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전 합동훈련 | 합동 및 합숙 | 영 천 중 | 도 교 위 |
| 4 | 4 월 중 | 1987년도 신인선수권대회 | 초·중·고·대·일반 | 실내체육관 | 본 회 |
| 5 | " | 제68회 전국체전 1차선발전 | 고·대·일반 | " | " |
| 6 | 5 월 중 | 제68회 전국체전 2차선발전 | " | " | " |
| 7 | "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중 등 부 | 경 남 | 문교부대체 |
| 8 | " | 제25회 도민체육대회 | 고·일 반 | 포 향 | 경 체 |
| 9 | 6 월 중 | 제68회 전국체전 최종선발전 | 고·대·일반 | 실내체육관 | 본 회 |
| 10 | " | 2/4분기 승품 및 승단검사 | 경 북 일 원 | " | " |
| 11 | 7 월 중 | 제19회 도 교육감기 타기 | 초·중·고·단체 | " | 도교위본회 |
| 12 | 6월~10월 | 제68회 전국체전 대표선수 합숙훈련 | 고·대·일반 | 영 천 | 본 회 |
| 13 | 9 월 중 | 3/4분기 승품 및 승단검사 | 경 북 일 원 | 실내체육관 | " |
| 14 | 10 월 중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고·대·일반 | 광 주 | 문교부대체 |
| 15 | 11 월 중 | 1987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 초·중·고·대·일반 | 실내체육관 | 본 회 |
| 16 | 12 월 중 | 4/4분기 승품 및 승단검사 | 경 북 일 원 | " | " |

유공자 시상식

대의원 총회에 앞서 체육회 강
당에서 거행된 1986년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제대회 입상자 및
제67회 전국체전, 전국규모대회
입상자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공로패 수상자

- 문종국 : 제10회아시아 경기대회
웰터급 1위
- 임성욱 : 제1회 월드컵대회 핀
급 1위
- 이창건 : 제7회아시아태권도 선
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 장질환 : 제7회아시아태권도 선
수권대회 미들급3위

화종민 : 한국중·고연맹전 밴텀
급 3위

- 이희영 : 밴텀급 1위
- 이경진 : 웰터급 2위
- 이권원 : 해비급 3위
- 박철영 : 라이트급 3위 (이상 제
67회전국체전 고등부)
- 김영철 : 패더급 3위 (대학부)
- 이성국 : 라이트급 3위
- 시인규 : 웰터급 3위 (이상 일반부)
- ▲장한 어버이상
- 시병준 : 시인규선수 부친
- 이화옥 : 화종민선수 모친
- ▲최우수선수상 : 이창건
- ▲지부임원공로상 :
김길수 (김천시 협회 회장)
박영수 (영덕군협회 회장)

이진석 (영덕군협회 전무이사)

- ▲모범지부상 : 의성군지부
- ▲유공심판원 : 이정효, 김상일
이정수
- ▲공로 표창 : 도청홍, 한성기,
박찬명
- ▲감사패 : 이상홍 (구미시협회 부
회장)

실업팀 입단

경상북도 출신의 문종국 (경북협
회,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 웰터급
1위) 선수와 시인규 (경천체, 제
67회 전국체육대회 웰터급 3위) 선
수가 포항상공회의소와 영주상공
회의소에 취업하여 생활이 보장된
가운데 태권도 수련에 임하게 되
었다.

도약을 향한 태권의 함성

영천중학교

영천중·고등학교는 태권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교정이지만 이제 갓 시작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경북에 자리잡은 영천 중·고등학교는 아직 태권도의 명문은 아니지만 태권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이다.

영천중학교는 1927년 4월 30일 영천 공립농업 보수학교로 발족해 올해로 41회 졸업생을 배출할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이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자」는 교훈이 아니라의 젊은 역군을 키워내는 청소년교육에 무엇보다도 절실히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영천중학교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다.

국민정신교육, 학력신장과 더불어 체력증진을 삼위일체로 교육방침을 세우고 있는 영천중학교는 1인 1운동가기를 권장하고 태권도, 탁구, 육상 등 기기를 신장시키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영천중학교의 김관익 교장은 43년 동안 교직생활에 몸담아 올해로 65세를 맞으면서도 일경시대 김천고보시절 역도, 유도, 기계체조 등으로 단련된 노의장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방공립학교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아 체육특기자를 육성하기 어려운 것처럼 영천중학교도 83년도에 태권도부를 창설했으나 특기

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 특별부 시간에 태권도부를 수련시키며 기반을 다져왔다고 한다. 4년전부터는 특기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특기생 신청자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한다. 현재 특별부에는 훈련선수단 15명과 태권도부 49명 등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들은 85년도 여름에 교실 2개를 터 만든 체육관을 만들어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이우용 감독은 영천중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이며, 태권도 고단자로 학교장에 태권도부 창설을 건의한 장본인이다. 태권도부 육성이 어려움이 많아 태권도부 창설에 후회가

있었다고 말하나 이 감독은 86년도 영천시민체전에 전교생 마스케임을 지도, 출전하는 등 열성을 보이고 있다. 이 감독은 태권도부 육성은 물론 학력고사의 수학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지난해 9월 2일자로 윤종욱 경북협회총무이사를 코치로 근무하게 하여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였다.

영천중학교는 경북도내 소년체전 주축학교로 도교육감기, 84, 85년도 연속우승을 하기도 하며 87년도 소년체전 메달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김관의 교장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규율면에 도움이 크다고 말하며 있는 급우들을 태권도부에 넣어 교육시키는데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가대표이며 제 10회 아시아게임에서 웰터급 금메달리스트인 문종국 선수가 영천중고 태권도부원과 연습하고 있어 영천중고생들은 태권도 수련에 열심이라는 윤종욱 코치는 태권도부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자신에 차 있다.



대학입시에 중점을 둔 오늘의 교육현실로는 전인교육의 길 요원

영천고등학교

「알찬 학표, 푸른 학교, 앞선 학교」임을 자랑하는 영천고등학교는 85년도부터 특기생 3명, 86년도에 4명이 입학하여 태권도부를 키우고 있다. 87년도에 들어서는 재원 부족으로 특기생을 받지못해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다.

영천고등학교의 최창규교장은 교직원 40여년동안 건전한 인격은 건강한 육체에서 시작된다고 여기며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가꾸기 위해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경북도 내에서 체육교장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래서 교기를 육성하기 위하여 육상, 핸드볼, 태권도 등을 중점 지도하고 있다.

지난 85년도에 거행된 제 66회 전국체전에서는 핸드볼부가 준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의 인문계고등학교가 대학입시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기 때문에 전인(全人) 교육기관으로의 길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최용곤 감독은 지난해 김용만선수가 대표선수 선발에 출전 준준결에서 패했으

나 1년의 기간이 흐르고 동계훈련도 강화한만큼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경력을 쌓아 87년도에는 경북대표선수를 4명정도 배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종욱코치도 이제 태권도부가 창설된지도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젠 결실을 거둘 때가 됐다면 자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침 7시에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거쳐 8시 10분부터 1교시 수업을 시작하여 7시간의 정규수업을 마치고 보충수업2시간, 자율학습 2시간 등으로 저녁 10시경에야 하학하는 일반인문 고등학교의 실태에서 협동심이나 남을 위해 돕는 희생정신 등을 찾아볼 수 없는 풍토에서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는 교장의 근심스런 눈빛은 새삼 이 현실의 교육제도에 대해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영천고등학교
태권도선수들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목표로 임직원들 심기일전

경남 협회



대의원 총회광경

대의원 총회

경남협회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경남체육회 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17명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대규 경남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67회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거둔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전제한 뒤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87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태권도 관계 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86년도 회의초록낭독, 감사보고, 8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8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임기만료된 감사를 재임시키고 회의를 마쳤다.

경남협회의 1986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1. 승품단심사대회 : 지난 해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등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승품단심사대회에 총 7821명이 참가하였다.

2. 제67회전국체전 : 지난 86년 6월21일부터 24일까지 성균관대학

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13시도 중 8위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경남 협회는 전국체전등을 비롯한 각종 대회의 성적부진으로 전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새임원구성 등에 신중을 기하는 등 87년도에는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등에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고 있다.

3. 제15회 소년체전참가 : 86년5월5일부터 9일까지 마산 양덕여중 체육관에서 개최된 소년체전에서 경남은 13개시도 중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87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1. 제3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대회개최 : 올 5월2일과 3일 양일간에 거행될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대회는 경남협회와 KBS 마산방송국이 공동주최하여 KBS마산방송국 체육관에서 개관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경남일원에 생중계할 계획이다.

2. 제16회 소년체전참가 :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될 소년체전은 경남체육회, 경남태권도협회, 도교육위원회가 주최 주관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밖에 198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도 사업계획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3월29일 | 제80회 승품단심사 | 마 산 |
| 4월11일~12일 | 제12회 신인선수권대회 | " " |
| 4월19일 | 제1회 지도자 보수교육 | " " |
| 5월2일~3일 | 제3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 | " " |
| 5월초 | 제25회 도민체육대회 | " " |
| 5월16일~17일 | 제7회 교육감기쟁탈대회 | " " |
| 5월20일~22일 | 제16회 소년체전 참가 | 울 산 |
| 5월25일 | 제81회 승품단심사 | 마 산 |
| 6월6일~7일 | 제68회 전국체전 최종 선발전 | " " |
| 7월1~10월5 | 제68회 체전대표 선수합숙훈련 | " " |
| 7월27일 | 제82회 승품단심사 | " " |
| 9월28일 | 제83회 승품단심사 | " " |
| 10월초 | 제68회 전국체전 참가 | 광 주 |
| 11월초 | 제17회 소년체전 1차평가전 | 마 산 |
| 11월17. 24. 31일 | 제84회 승품단심사 | 울산·진주·마산 |
| 11월말 | 제16회 소년체전 2차평가전 | 마 산 |

신년인사회 성대히 거행

경남협회는 1월25일 대의원 총회를 마친후 마산시 산호동 가야호텔 그릴에서 협회 임직원 및 태권도 관계인사 100여명이 모여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모임은 경남 태권도인들의 단합을 다짐은 물론 소년체전,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위한 전진대회로 협회창설 2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뜻깊은 행사였다.

이 자리에는 이순달, 이도제 전 임회장 등이 참석하여 경남 태권도 발전을 성원해 주었고, 사범대표인 조희삼(전문위원회의장) 씨가 이대규 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남 체육발전의 이정표

경남체육고등학교



전혜연 교장



장용규 감독



김영국 코치

경남체고는 성실하고 유능한 체육인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참되게(眞) 씩씩하게(勇)」를 교훈으로 지난 1985년 3월 20일에 개교한 신설 체육고등학교이다.

태권도를 비롯한 육상, 체조, 수영, 사격, 역도, 펜싱, 유도, 복싱, 레슬링 등 10개 종목에 대한 체육전문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전종목 모두가 최선 시설을 구비하고 경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엄선한 체육교사들로 구성되었고 각팀마다 화려한 경기전적을 보유한 코치를 초청하여 탐구하고 있는 경남체고는 나중난 뿔이 우뚝하다」는 속언을 대신해 보여주고 있다.

태권도부에는 개교하던 해에 9명, 86년도에 8명의 특기생이 입학하였으나 적성 및 신체조건 등으로 3명이 타고르 전학을 가서 1학년에 5명, 2학년에 9명이 재학 중이며 87년도에 11명의 신입생이 입학함으로써 총 20명의 태권도 특기생이 재학 중이다. 85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도내전적 보유자였으

나 86년도에는 소년체전 등에서의 전적보유자, 87년도 신입생은 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인 황몽환(페더급), 노영민(미들급)을 비롯한 입상자들이 대거 입학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체고는 학생전원에게 기숙사생활을 실시하고 학비일체를 국

비로 보조하고 있어 경남체육의 동량을 육성하는 체육고등학교로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학생들은 새벽 6시 30분에 기상하여 7시 30분까지 1시간 수련을 하고 오전에 4시간 정규수업 이후 오후 3시간 동안 수련을 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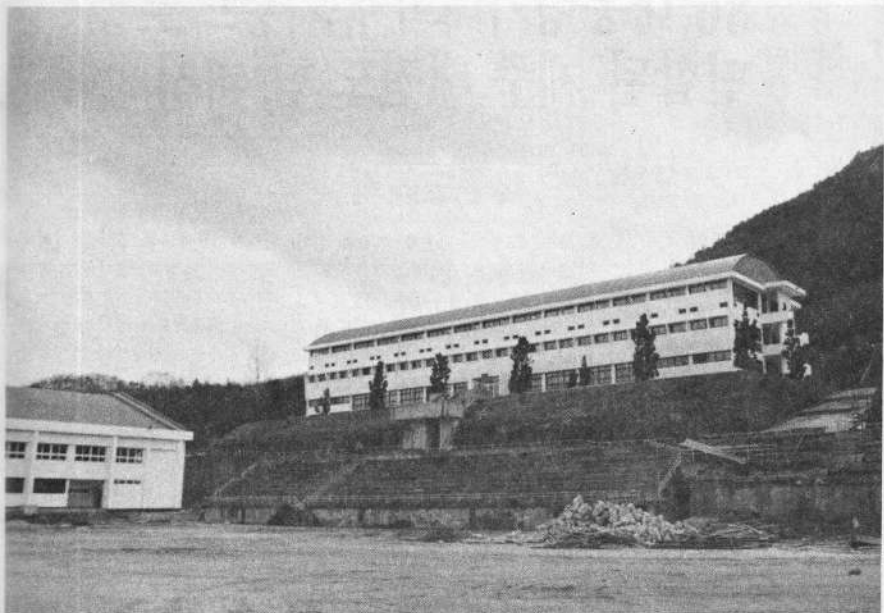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장용규 감독은 개교 당시 부임한 체육교사로 경남대학 대학원 체육학과를 졸업한 태권도인으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하였고 경남체고외에도 울산 대학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한편 코치로는 창설당시 김종기(전 국가대표) 사범이 근무하다가 해외출국으로 후임에 김영국(전 국가대표선수) 사범이 86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김영국코치는 경남체육회 순회 코치이며 교육위원회 및 협회의 코치로 경남도내의 대표선수 지도를 전담하고 있다.



태권도부원들



경남체고 체육관 전경

경기전적으로는 제 1회월드게임 라이트급 우승, 제 4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김코치는 서울체고를 거쳐 대구대학을 졸업했다.

이처럼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감독과 실전경험이 풍부한 김코치와 최적합한 운동시설과 분위기로 3위일체가 이루어져 88년도 부터는 고등부 중상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본다고 경남협회의 김선규 전무는 자신있게 말한다.

경남체고 태권도부는 86년도에 개최된 추계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장종원이 플라이급에서 우승, 대통령기하사기쟁탈 전국단체 대항전

에서 조필규가 웰터급 3위 등을 입상한 전적을 갖고 있는데 87년도에는 각종 대회를 대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각 선수들은 올해에 제 68회 전국체전에서 고등부 중위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남체고의 전혜연 교장은 체육교사 출신으로 경남체고 개교 시부터 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목별 감독선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체육인의 입장에서 감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에게도 직접의견을 청취하여 요구사항에 대해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경남체육의 발판을 다지기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자이다. 한 때 육상대표 선수생활을 한 바 있으며 테니스 국가대표선수인 전영대 선수는 전교장의 아들로 체육가족을 이루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정직은 성실과 일맥상통한다」는 좌우명으로 학생들의 체육교육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전교장은 「태권도에 판정의 시비가 많은 것은 심판의 자질향상과 가치관의 확립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선수 출전 참가비에 대해 타종목에서는 불수 없음을 지적하며 대회 참가비에 대하여 중앙에서 검토해 줄 것을 희망했다.

'86 대통령기대회 유치등으로 단합된 제주 태권도 힘 과시

제주도협회

대의원 총회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태권도협회회관에서 재적 대의원 25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198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198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이 확정되었고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보선이 있었다.

본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용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86년도 대통령하사기생탈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 전국에서 3번째 제주도에서 유치하여 제주태권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물론 태권도 저변 확대에 효과가 컸다고 평하고 87년도에도 각종 전국규모대회에 선수를 파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협회의 1986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 제21회 대통령하사기생탈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개최: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한라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제주도협회에서 3회째 유치하여 제주도협회는 단체 3위를 차지했다. 고등부는 김태형(오현고 2년)이 1위, 대학부는 이현태(제주대 1년) 2위, 일반부는 유성룡 1위, 최내인 2위, 이창원, 김완태, 김

두수, 고영기, 민종철, 최철영, 김대식이 3위를 차지했다.

2. 제 2회 회장배생탈전도태권도대회: 초등부 24팀, 중등부 11팀, 고등부 10팀, 일반부 6팀 등 총 51개팀에 35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11월 1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단체성적을 보면, 초등부는 범환국민학교, 중등부는 남주중학교, 고등부는 남주고등학교, 일반부는 탐라체육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날 개최식에서는 태권도 육성발전에 공헌한 서장운, 김성찬, 송성언, 강화룡, 김권태 사범에게 공로패를 수여, 치하하였다.

3. 제 1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월 5일부터 7일까지 마산에서 거행된 소년체전에서 강승수(남주중 3년)가 해비급 1위, 고성권(남주중 1년)이 권급3위, 임용배(서귀중 3년)가 웰터급 3위를 차지하였다.

4. 제 67회 전국체육대회: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고등부에 김태형(오현고 2년)이 3위, 고충환(오현고 3년), 이승도(남주고 3년)이 2위 대학부에 최원국(제주대)이 2위, 일반부에 김완태, 강근혁이 3위를 차지했다.

5. 정기승품단심사대회: 제주도협

회에서 3월과 8월, 12월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정기승품단심사 대회에서 총 1162명이 승급했다.

한편 제주도협회는 감사의 임기만료로 김수진(진양상사대표), 이홍식(농림교육원)씨를 보선하였다. 또한 신상은(중앙신협)전무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지난 86년 10월 1일자로 후임에 양광호(도경찰국인사과)전무가 일을 보아왔다.

한편 제주도협회는 지난 86년 11월에 협회 부회장인 정건용씨가 숙환으로 별세하여 제주태권도 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는데 양광호전무는「제주체육인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뤄 고인의 명복을 빈데 대해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협회 등록된 체육관 17개소, 미등록 도장 10여개소로, 총 27개소의 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는 제주도의 태권도사랑, 서울의 1000여개소의 도장수에 비하면 약 40배가 달하는 서울의 제원에 비길 수도 없는 숫자로 대통령기대회 유치, 소년체전 유치등은 단합된 제주태권도인의 힘이 아니고는 치룰 수 없는 대회였다고 생각된다.

제주도협회의 1987년도 사업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987년도 사업계획

1. 강화훈련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1월-2월 | 동계강화 훈련 | 회관 및 보조훈련장 |
| 년 중 | 평가전 및 선발전 | 시행시 선정 |
| 2월-10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강화훈련 제68회 전국체전대회 출전선수 강화훈련 | 회관 및 보조훈련장 " |
| 년 중 | 전국 규묘대회 대비 강화훈련 | |

2. 대회주최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4월 초순 | 제22회 전도태권도대회 | 시민회관 |
| 11월 | 제3회 회장배쟁탈 전도 태권도대회 | " |

3. 대회주관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6월 중순 | 제주시 종합소년체육대회 | 시민회관 |
| 6월 중순 | 제21회 전도체육대회 | " |
| 11월 중순 | 제16회 전도소년체육대회 | " |

4. 전규모대회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2월 초순 | 87년도 전국 심판보수교육 | 국기원 |
| 3월 하순 | 87년도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 " |
| 4월 중순 | 춘계중·고 연맹전 | " |
| 4월 하순 | 87년도 심판강습회 | " |
| 5월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
| 5월 중순 | 제22회 전국대통령기쟁탈 태권도대회 | 국기원 |
| 9월 | 중·고 연맹회장기쟁탈 태권도대회 | " |
| 9월 | 제11회 대학연맹회장기쟁탈 태권도대회 | " |
| 10월 중순 | 제68회 전국체육대회 | |
| 10월 중순 | 87년도 추계종별대회 | 국기원 |
| 11월 초순 | 87년도 전국우수 선수권대회 | " |

5. 기타사업

| 일시 | 사업명 | 장소 |
|-----------|--------------------|---------|
| 1월-2월 | 중앙협회 및 도체육회 대의원파견 | 서울·도체육회 |
| 2월-3월 | 선수등록업무 | |
| 3월 | 심판 보수교육 및 지도자교육 파견 | 국기원 |
| 3, 8, 12월 |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회관 |
| 연 중 | 포상(공로상 및 감사패) 및 추천 | |
| " | 기금증액 활동 | |
| " | 각종대회 연구원 파견 | |

제주도 태권도의 산역사

제주중앙체육관

제주중앙체육관의 역사는 27년에 이른다. 5.16직후 근대스포츠로 태권도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당시인 1961년도에 문을 열어 제주도 태권도의 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강관장은 체육관 인수 후 10년 동안에 약 1만여명이 도복을 입고 수련을 했으리라는 추산이다.

현재 국고생 40여명, 중고생 40여명, 일반성인 20명 등 100여명이 수련을 하고있다.

제주중앙체육관은 40여평의 넓은 공간에 녹색 카펫트가 깔려있고 깨끗한 분위기로 운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 태권도 수련생들 외에도 체조 선수들의 수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체육관에는「德不孤 必有隣」이란 액자를 걸어 놓고 관원들에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있으며 수련생들에게는 특히 예의, 강인한 정신력, 공부하는 생활습관을 강조하며 무도축면과 경기 태권을 조화있게 지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강관장의 지도방침이다.

강관장은 중앙체육관의 관장 외에도 현재 제주태권도협회 총무이사, 제주대학 R.O.T.C 태권도사범, 오현고교 태권도 코치, 제주도체육회 태권도순회코치를 역임하는 등 1인 5역으로 제주태권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태권도인이다.

교육의 열매는 현장에서 영근다

부산시협회

부산체육고등학교



이홍규 감독



안병로 교장

부산체고는 1972년도에 부산체육학교로 개교하여 1973년도에 부산체육중학교, 1975년도에 부산체육고등학교로 승격 인가된 이래 학문적 이론과 체육 기능을 겸비한 유능한 체육 지도자를 양성해 오느 초석이 되어 왔다.

학생들은 교육의 열매는 현장에서 영근다는 신념하에 스스로의 맘,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책임을 묻고 있다. 노력없는 성공이 있을 수 없듯이 부산체고의 학생들은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인자만이 영광을 안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해 보이고 있다.

태권도부에는 1학년 11명, 2학년 12명, 3학년 7명 등 총 30명의 학생들이 이홍규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새벽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새벽운동,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정규 수업, 오후 2시부터 5시 30

분까지 실기운동을 하고 있다.

체고의 모든 학생들은 전원이 기숙사에 입사하여 숙식이 제공, 수업료 면제, 각종 피복의 제공등을 받으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기술을 연마하겠다는 신념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그 맘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학교에서는 제공해주고 있다.

태권도부 학생들은 6월에 개최될 대통령하사기생탈 전국단체대항전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수련을 하고 있다. 특히 우승예상자들로는 편급에 박재승(1학년), 플라이급에 정순호(3학년), 밴텀급에 김희배(2학년), 페더급에 오병철(3학년), 라이트급 진정우(3학년), 웰터급에 장영태(2학년), 미들급에 윤정원(3학년), 헤비급에 김병근(2학년)등을 꼽고 있다. 이들은 전 체급 석권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생활하며 지도하는 이홍규 감독은 수업과 훈련을 코치도 없이 혼자서 지도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의 내일'이라는 뜻을 목표로 열의를 다하고 있다.

지난 86년 10월에 부임해온 이 학교의 안병로 교장은 10개 육상종목 가운데에도 태권도부에 대한

가능성과 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선수들에게 부산체고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격려함은 물론 학교의 명예와 국기(國技)의 명예를 함께 생각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부산체고 출신으로는 86아시아경기대회 플라이급 금메달리스트인 김영식 선수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임재익 선수가 유명하다.

한편 지난 2월에 태권도부는 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전국체전3연패를 자랑한 김태영이 경희대에 특기자로 입학했으며 조진화가 일반운동사로 경희대 체육학과에 합격했다. 그리고 윤장석이 제주대에, 김용석이 경상대에 특기자로 진학했다.



△대통령배에서 전체급 석권을 목표로 수련하는 태권도부원들.

세계태권도 강국 22개국 참가, 한국 종합우승 종주국면모 과시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11월 29일~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스포츠센터



하용성 / 대표단 트레이너
한국체육대학교

제1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내 스포츠센터에서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 태권도 강국 2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으며 여기서 한국은 남자 금5, 은1, 동2, 여자 금5, 은2, 동1로 종합 우승을 하여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우리 대표팀은 이영기 단장의 인솔하에 최인범 감독, 최영필 코치, 하용성 트레이너등 지도자 4명 아래 선수로는 남자, 여자 각 8명으로 총20명이 종주국의 명예를 걸고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였다. 본 대표팀은 11월 24일 김포공항에서 협회 임원 및 많은 태권도인의 전송을 받으며 KAL 기로 출발 약 11시간의 비행끝에 L·A시에 도착하였다. 선수단은 다시 미국 국내선을 이용하여 약 1시간만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여 필승을 다지며 첫날을 보냈다.

11월 24일

오후 4시경에 듀란트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나서야 피로와 불안한 마음에서 약간의 여유와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저녁에는 식사후 미팅에 들어가 시합전까지의 훈련계획을 상의했다. 이영기 단장은 외국선수들에게 종주국 태권도인으로 모든 행동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체중조절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였다.

11월 25일

선수들은 10시부터 버클리대학 잔디구장에서 약 1시간 정도 워밍업을 하였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시차 적응이 안 되어 피로한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고 긴장감과 불안감이 겹쳐 분위기는 다소 침체되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후 훈련시에는 많은 운동량과 화이팅넘치는 훈련을 통해 협동심을 발휘하였고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찾는 듯 했다.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전문기술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오까지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 선수들은 환경적응이 어려워 다소 몸이 무거웠으나 선수각자가 이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를 이겨나갔다.

선수들에게 간단한 트레이닝을 실시한 다음 체중조절을 위해 개인운동시간을 할애하였다. 운동후 계획

를 해본 결과 선수들의 체중에는 어려움없이 시합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8시부터 시작된 미팅에서는 시합 내용이 주가 되었으며 선수들은 간단한 농담을 주고 받고 웃을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되어 임원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11월 27일~28일

11월 27일은 주최측이 마련한 버스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임원 및 선수들이 샌프란시스코시의 관광길에 올라 각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우정을 꽃피우기도 했다.

28일은 시합 전날이기에 오전에는 가벼운 워밍업을 한 뒤 휴식을 취하였고 오후 시간에는 체중 조절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개인운동을 실시하였다. 저녁식사 전 계체결과 내일 시합에 임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다. 8시에 가진 미팅에서는 선수들에게 이번대회 참가 선수들 중 대부분이 국제대회에 첫 출전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정신적 불안감을 극복하여 중주국 선수답게 침착하고 화이팅있게 게임에 임하도록 강조하였다. 다음날 경기의 승리를 다짐하며 미팅을 마쳤다.

11월 29일 대회 첫날

시합 첫날 아침 당일 출전 선수들은 계체를 마시고 식사 후 워밍업에 들어 갔으며 게임이 없는 선수들은 경기 당일 쓰일 약품과 수건 등을 철저히 준비해 놓았다.

약 6일 간에 걸친 적응훈련을 통해 선수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꼭 우승한다는 신념과 의지에 가득차 있었고 분위기는 시합타인지 다소 긴장된 느낌이었다. 당일 게임은 남녀 동일하게 핀급, 밴텀급, 라이트급, 미들급 경기가 있었다.



라이트급의 김용수 선수는 무릎인대가 늘어나는 상태에서도 투혼을 불사라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남자부 경기

핀급 김 철 호

예선 첫 게임에서 멕시코 선수를 맞아 우수한 신장과 기술을 이용하여 판정승을 거두었다. 이어 강팀 미국, 요르단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A조에서는 많은 국제경력과 아시아대회에서 2번씩이나 한국 선수를 이긴 전적이 있는 대만 선수가 올라왔다. 김철수는 대만 선수를 맞이하여 한 차례의 뒤차기로 다운을 빼앗고 찌기로 얼굴을 강타한 다음 윙당한 기술을 발휘, 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국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밴텀급 서 정 현

서정수는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한 관계로 예선에선 기량을 발휘 못해 어렵게 2차전에 올랐다.

준결승 게임에서 윙당한 실력으로 상대를 K.O 직전까지 몰아 예선에서 부진했던 점을 말끔히 해소하였다. 이어 결승에서도 상대방 선수와 접전 끝에 3회전에 얼굴 돌려차기가 유효하여 승리를 거두어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라이트급 김 용 수

김선수는 예선 게임 중 상대선수와 심한 마찰로 무릎 인대가 크게 늘어나는 불운을 안았다. 게임 후 주치의사에게 보인 결과 시합을 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김선수의 투철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게임을 속행하여 약간의 고전이 있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여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미들급 박 상 식

국제경험이 많은 박선수는 예선전 모두를 윙당한 기술로써 상대를 제압 결승에 올라왔으나 월드컵 1회대회 우승자인 이길트 아르르 선수를 맞이하여 한 번 졌던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안타깝게 패하고 말았다.

여자부 경기

핀급 도 재 선

도선수는 국제경험의 부족과 열세한 신장차이로 미국 선수를 맞이하여 선전분투하였으나 결국 패하고 말아 3위에 머물렀다.

밴텀급 임 신 자

임선수는 윙당한 기술로써 예선을 쉽게 통과하고 결

승전에서 다양한 발차기로 마치 시범을 보이는 듯한 제 입을 펼친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여자부 첫 금메달을 안았다.

라이트급 김 지 숙

김선수는 평소 얌전한 성격과는 달리 게임을 남자 못지않은 힘과 기술로써 상대를 완전히 제압 큰 점수차를 벌이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미들급 김 현 희

김선수는 월등한 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로써 상대를 제압하고 결승전에서 강자를 맞이하여 많은 탐색이 있었으나 2회전에 들어 원발찌기와 앞발기로 상대선수를 다운시켜 승리를 장식하였다.

이로서 첫날 한국팀은 남자 금3, 은1이고 여자 은3, 동1의 성적을 올렸다.

11월 30일 대회 이틀째

남자부 경기

플라이급 인 해 진

인선수는 많은 국제시합 경험을 바탕으로 인한 노련한 경기운영과 화이팅 넘치는 게임으로 예선을 모두 무난히 통과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아이보리코스트 선수를 맞이하여 월등한 신장차이로 다소 탐색이 있었으나 2회전에서 원발 뒤후리기로 다운을 뺏으며 기선을 제압 3회전에서는 고난도 기술을 발휘하여 관중의 환호 속에 이틀째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페더급 최 운

최선수는 예선게임 중 상대선수의 주먹얼굴 공격으로 오른쪽 눈부위가 심하게 부어 거의 눈이 떠지지 않는 부상을 당했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철한 정신력을 발휘한 최선수는 침착한 게임운영으로 결승에서 승리하여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웰터급 김 운 태

김선수는 예선을 쉽게 통과 준결승에 올랐으나 재미교포 이용혁 선수를 맞아 시소게임을 벌이다가 3회전에 뒤차기로 점수를 내주어 패함으로써 3위에 그쳤다.

헤비급 이 경 식

이선수는 준결승서 예집트 선수를 맞이하여 선전분투하였으나 워낙 차이나는 신장과 힘에 밀려 자신의 실력을 발휘치 못하고 패하고 말아 역시 3위에 그치고 말았다.



여자대표 전체급 8명중 6명이 경희대 동문
(중앙이 최영별코치)

여자부 경기

플라이급 오 명 화

오선수는 인도네시아 선수를 맞아 월등한 기술과 깨끗한 발차기로서 시종일관 압도한 게임을 펼쳐 결승에 올라 대만 선수를 맞이하여 접전을 벌인 끝에 1:1로 1회전을 마쳤으나 2회전서 점프뒤틀차기로 상대를 다운시키는 등 크게 점수차를 벌이며 우승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페더급 이 은 영

이선수는 예선전에서 다양한 기술로 상대선수를 제압 결승에 올랐다. 결승을 앞두고 워밍업 도중 골반인대가 크게 늘어나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게임하여 상대선수 공격을 받아 차는 도중 또다시 인대에 무리가 생겨 쓰러지고 말아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시합은 기권패가 되고 2위에 머물러 우리 선수단의 마음을 아파게 만들었다.

웰터급 전 오 순

전선수는 깨끗한 돌러차기 특징으로 예선을 통과 결승에 올랐으나 미국선수를 맞이하여 접전을 벌인 끝에 힘이 앞선 미국선수에게 3회 우세를 빼앗겨 2위에 머물렀다.

헤비급 장 운 정

장선수는 대회최종 게임으로써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련한 경기운영과 파워있는 공격으로 최다 득점을 빼앗고 결승서 홈팀 미국선수를 맞아 화려한 게임을 펼쳐 미국 관중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으며 우승

함으로써 대회 마지막 게임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서 이틀날 전적은 남자 금2, 동2, 여자 금2, 은2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팀은 총 금10, 은3, 동3의 성적을 거두고 이대회 종합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2위는 홈팀 미국에게 돌아갔으며 3위는 2명이 출전한 이집트팀이 차지했다. 이 시합을 통해서 외국 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발전하고 워낙 신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선수들은 일단 부담을 안고 게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체력과 신장차이의 해소를 위해선 외국 선수들과의 잦은 경기 경험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 전지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최측의 운영 미숙으로 국기게양기가 없는 등 시설이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12월 1일

아침 일찍 듀란트호텔을 출발하여 공항에 도착 약 1시간에 걸쳐 L·A에 도착하여 김찬영 회장님의 배움을 받아 약 사흘에 걸친 L·A의 관광에서 그곳 사법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김찬영 회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선수단을 도와주어 선수 모두 고마움을 느끼면서 아쉬움을 남기며 우리는 L·A를 출발 5일 오후 5시 30분에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개인전적 남자부

| | | |
|-----|---|---------------------------------|
| 핀 | 금 | Cheul-Ho Kim (Korea) |
| | 은 | Jung-San Chang (Chinese Taipei) |
| | 동 | Vito Toraldo (Italy) |
| 벤텀 | 금 | Ferass Jayyoust (Jordan) |
| | 금 | Jung-Hun Seo (Korea) |
| | 은 | Marco Lung (Mexico) |
| 라이트 | 동 | Chun Hsing Lin (Chinese Taipei) |
| | 동 | Gotsis (Greece) |
| | 금 | Yong-Soo Kim (Korea) |
| 미들 | 은 | Alain Kouyate (France) |
| | 동 | Steve Carpenter (USA) |
| | 동 | Selofou Adama (Ivory Coast) |
| 미들 | 금 | Ami Khairy (Egypt) |
| | 은 | Sang-Sik Park (Korea) |
| | 동 | Claus Smith (USA) |
| 미들 | 동 | Charles Boyoil (Ivory Coast) |



| | | |
|-----|---|---------------------------------|
| 플라이 | 금 | Hae-Jin In (Korea) |
| | 은 | Assane D'Dajaye (Ivory Coast) |
| | 동 | Kung-Chong Chiou (Taipei) |
| 페더 | 동 | Mario Sosa (Mexico) |
| | 금 | Un Choi (Korea) |
| | 은 | Kamal (Jordan) |
| 웰터 | 동 | Abdrubal Melendez (Mexico) |
| | 동 | Tzung-Yung Lin (Taipei) |
| | 금 | Micheal Kim (USA) |
| 헤비 | 은 | Claude Kita Dogba (Ivory Coast) |
| | 동 | Youn-Yae Kim (Korea) |
| | 동 | Viale Massim Iano (Italy) |
| 헤비 | 금 | Scott Miranti (USA) |
| | 은 | Mostafa Abrak (Egypt) |
| | 동 | Tawfig Nwaser (Jordan) |
| 헤비 | 동 | Kyungsik Lee (Korea) |

개인전적 여자부

| 등급 | 금 | 은 | 동 |
|------|-------------------------------|---|---|
| 플라이급 | Yu-Fang Chin (Chinese Taipei) | | |
| | Rachel Licht (USA) | | |
| | Jae Sun Do (Korea) | | |
| | Desy Astuty (Indonesia) | | |
| 밴텀급 | Siw Ja Llm (Korea) | | |
| | Laura Phillip (USA) | | |
| | Agnes Tsen (Canada) | | |
| 라이트급 | Ji-Sook Kim (Korea) | | |
| | Kuei Hua Tu (Chinese Taipei) | | |
| | Dana Hee (USA) | | |
| 미들급 | H-Yun-Hee Kim (Korea) | | |
| | Yi-Ling Liu (Chinese Taipei) | | |
| | Marie Gollin (USA) | | |

| 등급 | 금 | 은 | 동 |
|------|----------------------------|---|---|
| 플라이급 | Myong-Hwa Oh (Korea) | | |
| | Shu-Jen Chen (Taipei) | | |
| | Linda Kwan (Canada) | | |
| | Santy Diansari (Indonesia) | | |
| 페더급 | Jiun-Feng Chen (Taipei) | | |
| | Yeun-Young Lee (Korea) | | |
| | Caroline Colonna (USA) | | |
| | Indonesia) | | |
| 웰터급 | Arlene Lemas (USA) | | |
| | Oh-Soon Cheun (Korea) | | |
| | Ling-Ling Chang (Taipei) | | |
| 헤비급 | Yoon-Chung Chang (Korea) | | |
| | Kim Ward (USA) | | |
| | Chin-Yu Wang (Taipei)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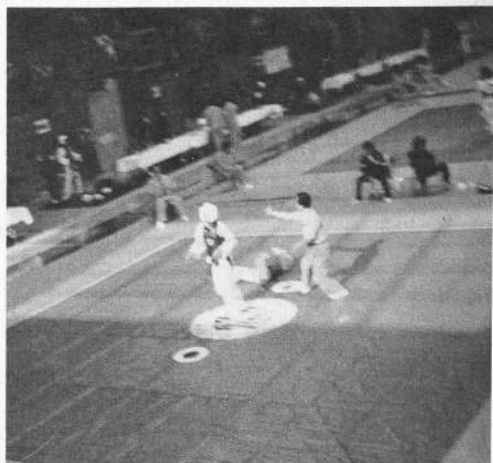
종합전적 남자부

| 순위 | 국명 | 금 | 은 | 동 |
|-----|---------------|---|---|---|
| 1위 | KOREA | 5 | 1 | 2 |
| 2위 | U. S. A | 2 | 1 | 2 |
| 3위 | EGYPT | 1 | 2 | 2 |
| 4위 | IVORYCOAST | | 1 | 3 |
| 5위 | CHINES TAIPEI | | 1 | 2 |
| 6위 | MEXICO | | 1 | 2 |
| 7위 | JORDAN | | 1 | |
| 8위 | FRANCE | | | 2 |
| 9위 | ITALY | | | |
| 10위 | GREECE | | | 1 |

한국 종합우승

종합전적 여자부

| 순위 | 국명 | 금 | 은 | 동 |
|----|--------------|---|---|---|
| 1위 | KOREA | 5 | 2 | 1 |
| 2위 | CHINESTAIPEI | 2 | 3 | 2 |
| 3위 | U. S. A | 1 | 3 | 3 |
| 4위 | INDONESIA | | | 3 |
| 5위 | CANADA | | | 2 |





아프리카 지역의 태권도 보급을 위한 친선경기

아비장국제태권도 경기대회

1986년 12월 13일~14일
코트디브와르 아비장 스포츠센터

이승국 / 대표팀 감독
한국체육대학 교수



대표팀 결단식에서

아비장 국제태권도 경기대회는 아프리카지역의 태권도 보급확산을 위한 친선 경기로 지난 '86년 12월 31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코트디브와르 아비장 스포츠센터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8개국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3개국이 참가하여 소규모의 선수단이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태권도 보급 확산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 개최지인 코트디브와르는 아프리카주에서 태권도 보급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85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 7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는 태권도 강국이다.

아비장 국제태권도 경기대회에 파견된 대표단은 엄운규 단장을 비롯해 이승국 감독, 주신규 코치와 이종선, 김영식, 홍종만, 한재구, 박봉권, 문종국, 이계행, 강승우 선수 등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12월 8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코트디브와르로 향하였다.

대표선수들은 제 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2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임원진들도 지난 2년간의 체력·기술훈련을 바탕으로 한 환경적응과 작전구상에 만전을 기하였다.

12월 10일부터는 선수들이 현지적응 훈련에 들어갔으며 12월 12일 첫 시합을 치루었다.

시합에 앞서 첫시합을 치를 편급, 밴텀급, 페더급, 미들급 선수들에 대한 계체량을 실시하였고 참가국인 한국, 코트디브와르, 부르키나파소 등 3개국이 대표자회의를 실시하여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오후 7시에 시작된 첫날 대회에는 약 2천여명의 관중과 정부대외빈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행사를 가지고 성인시범단과 소년시범단의 시범이 있었다. 첫번째 경기는 밴텀급에 참가한 한국의 홍종만 대 부르키나파소와의 대전이었다.

홍선수는 1회전 2분 10초만에 뒤후리기 기술로 K·O 승을 거두며 중주국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 경기장의 관중을 열광케 했다. 또한 홍선수는 코트디브와르 선수도 3회전 1분 15초에 뒤후리기로 K·O 승을 거두어 아시아경기대회 때의 분패를 설욕하는 듯 장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홍선수는 이날 시합을 마친 뒤 아시아경기대회 때 수업을 잡고 나갔더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면서 이번 대회에는 수업을 까지 않고 시합에 임하였다며 자신의 징크스를 털어 놓기도 했다.

두번째 경기를 치른 핀급의 이종선 선수는 코트디브와르 선수와 부르키나파소 선수와의 대전에서 각각 판정승을 거두었다.

미들급의 이계행 선수는 부르키나파소 선수를 월등한 실력차로 판정승을 거두었고, 페더급의 한재구 선수와 코트디브와르 선수와의 대전은 한선수의 전력과 기술을 알고 있는 코트디브와르 선수가 소극적인 경기를 계속, 한 선수는 판정승을 거두며 첫날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4 체급 우승, 코트디브와르 4 체급 준우승, 부르키나파소의 순으로 한국은 월등한 실력차를 보여주었다.

한편 대회도중 중간휴식 시간에는 한국선수단의 시범을 펼쳐보였는데 김영식 선수의 태백봉새와 한재구 대 박봉권 선수의 거루기 시범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틀째 경기

13일 13일 이틀째 경기에서는 플라이급, 라이트급, 웰터급, 헤비급 등 4 체급 경기가 열렸다.

라이트급의 박봉권 선수는 코트디브와르 선수와 첫 경기를 치루었는데 코트디브와르 선수의 1미터 95센티의 신장과 절묘한 받아차기 기술로 박봉권 선수가

판정패, 아비장 실내체육관에서 이를 지켜오던 코트디브와르의 관중들은 종주국 선수를 이긴데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열광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박봉권 선수는 부르키나파소 선수와의 대전에서는 2회 1분만에 K·O승을 거두었다.

플라이급의 김영식 선수는 부르키나파소 선수를 월등한 실력차로, 웰터급 문종국 선수와 헤비급의 강승우 선수도 판정승을 거두어 한국은 3 체급 우승, 1 체급 준우승으로 종합 1위, 코트디브와르 2위, 부르키나파소 3위 순으로 아비장 국제 친선 경기대회는 막을 내렸다.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코트디브와르 선수들의 경기태권도의 수준은 많은 국제 경기에 참가하며 기량을 쌓아 수준급에 올라 있다고 본다. 코트디브와르는 아프리카 지역의 태권도 확산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 지역의 태권도 보급과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범들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적이고 계획적인 정부차원에서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코트디브와르에서 태권도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김영태 사범은 대표단 일행을 안내해 주는 등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곳에서 태권도를 통한 외교사절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유럽 순회 경기를 마치고 동성고등학교 선수단



김인수 / 동성고체육부
선수단 단장

참가선수단 명단

- ▲ 단장: 김인수 (동성고체육부)
- ▲ 감독: 박종식 (동성중학생부)
- ▲ 코치: 이철주 (동성중체육교사)
- ▲ 코치: 김세혁 (동성고체육교사)

선수

- | | | | |
|-----|-----------|-----|-----------|
| 핀 | 금: 송인환 2년 | 라이트 | 금: 윤정욱 2년 |
| 플라이 | 금: 조영남 2년 | 웰터 | 금: 이광로 3년 |
| 밴텀 | 금: 조준원 2년 | 미들 | 금: 조준걸 2년 |
| 페더 | 금: 심우현 2년 | 헤비 | 금: 조광천 2년 |

동성고등학교 선수단은 독일 뮌헨 태권도 캠프 스포츠스쿨의 고의민 사범의 초청을 받아 서독, 스페인, 네덜란드, 벨지움,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유럽 6개국 순회 경기 순방길에 올랐다.

임원 4명과 선수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유럽에 중주국 태권도의 위용과 면모를 알리고자 1984년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순방길에 오른 것이다.

선수단은 1987년 1월 5일 오후 5시 30분발 스위스항공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30일간의 일정으로 장도에 올랐다.

경기일정 및 시범

- 1월 10일: 스페인 비고경기
- 1월 11일: 스페인 라코루냐경기 및 시범
- 1월 17일: 서독 뮌헨 경기
- 1월 20일: 벨지움 부루셀경기
- 1월 21일: 네덜란드
- 1월 23일: 덴마크 어루스 경기
- 1월 25일: 서독 베를린
- 1월 30일: 오스트리아 샬스부르크 경기
- 1월 3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경기
- 2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범
- 2월 3일: 서독 슈투트가르트 시범

1월 5일 30일간의 장도에 오르다

선수단은 오후 5시 30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홍콩과 인도 봄베이를 경유하여 약 20시간의 비행 끝에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여 약 6시간 후 다시 비행기에 탑승, 오후 3시 30분에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하였다.

오전 비행으로 피곤한 선수단을 윤종욱 사범 등 현지 사범들이 마중을 나와 주었고 이들의 안내로 김홍수 사범의 체육관에 여장을 풀고 난 뒤 스페인 왕궁과 돈 키호테상이 있는 공원을 관광하고 현지 사범들과 태권도에 관한 담소를 나눈 후 목적지인 라코루냐로 향했다. 마드리드에서 라코루냐까지는 약 950km 밤열차로 꼬박 12시간만에 라코루냐역에 도착하니 스페인 경기를 주관하는 어수일 사범 내외분, 그리고 현지 사범으로 계시는 김종성 사범님 조성찬, 김만보 사범이 역에 마중나왔고 어사범님의 안내로 BRISA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1월 8일 스페인 라코루냐 관광



박종식 감독

아침운동을 끝내고 식사 후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에 어사범님의 체육관에서 오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갈리시아 신문 스포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선수단의 운동경쟁을 사진에 담고 인터뷰도 하였다.

운동을 마치고 우리 선수단은

조성찬 사범과 김만보 사범의 안내로 라코루냐 관광길에 나섰다. 이 지방에서 월드컵 축구예선경기가 있다는 경기장을 둘러 보고 대서양 끝에 있는 등대를 관광하고 숙소로 돌아와 어사범님 사모님께서 한식을 대접해 맛있게 먹고 8일밤을 보냈다.

1월 9일 일간신문에 톱기사로 실려

오전 8시에 가벼운 운동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10시에 갈리시아 신문사를 예방했다. 갈리시아 신문 사장과 체육부장이하 체육부 기자들과 담소하고 간단한 카테일 파티도 있었다.

어제ಗೆ 취재했던 기사가 스포츠란에 마라도나 축구 선수의 기사보다도 더 크게 보도되어 나온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다. 어수일 사범님의 말씀에 의하면 역대 스페인에서 태권도 기사 중 일간지 신문에 전면 톱기사며 스포츠란에 이렇게 크게 보도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신문사 예방을 끝내고 어사범님의 안내로 포레떼 잉글레스라는 백화점에 들려 약간의 쇼핑을 하고 호텔로 돌아와 내일 비고에서 첫 경기가 있어 선수단을 휴식하도록 하였다.

1월 10일 유럽순회 기간동안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귀국선양을 하고 귀국하길 기도하며...

오전 11시에 라코루냐를 출발하여 비고로 가는 도중 샌디아고라는 도시에서 샌디아고 성당을 관광하였다. 이 성당은 야콥의 뼈가 관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11세기부터 17세기까지 700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한다. 성당 내부에 보면 24인 석면조각이 천장이 있는데 이 모두를 100년동안 조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부님의 집전하는데 쓰이는 물건은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요셉상의 뒷 머리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성취한다고 하여 나는 손을 올려놓고 우

리 선수단이 유럽 순회 기간 중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귀국선양을 하고 귀국해 달라고 빌었다. 요셉상 머리는 수십개의 보석이 장식되어 있는데 몇 개는 사람들이 빼어간 흔적이 나있고 특히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가장 유명한 성당으로 성당안에 문이 하나 닫혀 있는데 이 문은 6월 25일이 일요일이 되는 날만 여는데 이날을 맞는 날을 기다리다 보면 7년~10년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샌디아고 성당을 관광하고 이곳을 떠났다. 본교는 카톨릭재단의 학교라 선수들도 주의깊게 관찰하는 모습이였다.

약 2시간 후에 비고 경기장인 시립 체육관에 도착하니 이곳의 이필용, 조남제, 김진화, 홍 사범 등이 와주어 무척 고마웠으며 이필용 사범님의 안내로 락카룸에 들어가서 약 20분간 몸을 풀고 시합에 대비했다. 경기장엔 약 1,500명의 관중과 우리 나라 태극기와 스페인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고 입장식에서 양국의 국가가 연주되고 현지 사범 및 수련생들의 시범이 있었고 첫경기 또한 고교생으로서 외국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되니 일부 선수들이 긴장해 있는 것 같아 마음을 잘안정시켜 주어 경기에서는 미들급 1명만 패하고 7:1로 승리를 거두는 선전을 하였고 이필용 사범님택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다시 라코루냐에 도착하였다.

1월 11일 약 2000여명의 관중들 열광

오늘은 일요일 모처럼 화창한 날이었다. 라코루냐 시립체육관에서 오후 1시에 경기가 있었다. 두번째 말는



동성고등학교 참가선수단

경기이므로 선수들이 첫 경기 때보다 덜 긴장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라코루냐 협회의 요청으로 김세혁 선생님과 주신규 코치도 시범을 해주었다. 약 2000명의 관중이 열광했고 경기 또한 훌륭한 묘기와 기술로 상대를 7:1로 승리를 거두고 관중 또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꼬레아 꼬레아 하며 오히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태권도가 외국에서 인기가 있구나 생각하니 그간 많은 어려움과 인종차별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태권도 인구를 보유한 현지 사범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었다. 경기가 끝난 후 남녀노소 할것 없이 관중들은 경기장으로 내려와 싸인공세를 약 1시간 후에야 경기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우리보다 체력적으로나 신장면에 앞서있는 외국 선수들이었으나 기술적인 면에는 뒷떨어져 있어 앞으로 기술적인 테크닉만 습득한다면 무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월 12일~16일 핀헨을 향하여

스페인에서 예정되었던 두 경기를 모두 마치고 서독 핀헨에 도착할 때까지 4일간의 여유가 있어 아사범님과 사모님과 함께 시내관광과 약간의 쇼핑시간을 가졌고 오전 오후는 맹훈련에 열중하였다.

15일 아침 오전 8시에 샌디아고 공항에서 출발 예정



이철주 코치

이었던 것이 유럽에서 50년만에 찾아온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발발차로 마드리드에 도착하여 손태환, 김종수, 윤종욱 사범님들이 마중을 나와서 다시 공항으로 출발하여 스위스 쥐리히를 경유하여 핀헨에 도착하였다.

그동안 스페인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 사범님과 특이 어수일 사범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린다.
1월 17일 신장과 체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전 서독 핀헨에 도착하니 고의민 사범님 사모님 그곳 독일제자들 모두 함께 마중나와서 반가히 맞아 주었고 우리 일행은 고사범님의 안내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에 있을 경기 때문에 멀리서 유명함, 김철환, 유명민, 신장환 사범 등 많은 현지 사범들이 모였다. 서울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고 담소를 나눈 후 오후 6시에 핀헨 올림픽 스타디움 옆에 있는 경기장에서 시합준비를 한 후 경기장으로 향하였다. 경기장에서는 약 2000명의 관중이 운집해 있었다. 경기에 앞서 고의민 사범의 주관하에 독일인으로 구성된 시범단이 시범을 하였고 경기중간에 한국사범의 시범을 보여주었다.



서독 핀헨경기를 마치고 그곳 선수들과 자리를 함께한 선수단

경기에서는 독일이 국가 대표선수가 3명이나 끼여있었으나 우리 선수단이 7 : 1로 승리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장과 체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 해주어 관중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고사범님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으로 경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1월 18일 뮌헨 올림픽 스타디움 관광

아침은 독일식으로 하고 뮌헨 올림픽 스타디움을 관광했는데 실제 수영장에는 수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스키장과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는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었다. 다시 B. M. W 자동차 회사를 견학하였다. 이 회사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미래의 자동차 모형도 만들어져 있으며 작은 소형차와 대형 승용차까지 전시되어 있었다. 저녁에는 고사범님의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난 후 사모넬에서 정성껏 마련해 주신 한식을 먹고 휴식하였으며 내일부터는 다시 머나먼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찍 휴식에 들어갔다.

1월 19일 아켄에서 강습

오늘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벨지움을 가는 도중 아켄에서 강습이 있어 시험에 필요한 점만 간단하게 준비하여 밴스 미니버스 2대를 렌트하여 아켄까지 약 6시간 걸려 도착, 김철환 사범의 주선으로 약 2시간에 걸쳐 강습을 마치고 김사범이 경영하는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1월 20일 벨지움에서 7 : 1입승

오늘은 김사범의 식당에서 오래간만에 라면으로 아침 식사를 하였는데 라면의 맛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 본적은 난생 처음이었다. 식사 후 김사범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3번째 순회국인 벨지움으로 출발하였다. 아켄에서 벨지움 부루셀까지는 약 2시간만에 도착하였다. 현지 사범인 이범주 사범의 안내를 받아 한국식당에서 벨지움 대사관의 주선으로 참사 영사님이 참석해 점심 대접을 받았는데 오늘저녁 벨지움 국가대표선수들을 맞이하여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그런 다음 숙소인 율피파아 호텔에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이사범의 안내로 부루셀 관광을 했다. 우주박람회장과, 아이를 잊어버려 부모가 오랜 시간동안 찾아 헤매던 중 이곳에서 아이가 오

춤을 싸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찾았다고 하여 명명한 오줌싸게 동상을 관광하고 경기장소인 스포츠 클럽체육관으로 향하였다. 경기장에 도착하니 우리 교민이 따뜻하게 환영하여 주었고 경기내용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 높은 기술발 차기로 7 : 1로 압승하였다. 게임이 끝난 후 교민들의 주선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호텔로 돌아왔다.

1월 21일 4번째 순방국 네덜란드에 도착

이범주 사범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아침 식사를 나누고 오전 11시에 벨지움을 떠나 네덜란드로 출발하였다. 4번째 순방국인 네덜란드 경기장소는 마아스트릭이라는 도시였다. 마아스트릭에 도착하니 서명 사범님과 사모넬 네덜란드 협회 임원들이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서사범님의 안내로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시내관광길에 나섰다. 1300년이 된 집이 있다고 하여 그 집에 가보니 정말 대단하였다. 조각도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새길같이 잘 단장되어 있었고 또한 낙농국의 대표적인 풍차를 구경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이날 오후 7시에 경기가 있었고 경기장소는 마아스트릭 시립체육관이었다. 관중은 많이 입장해 있었고 식전 공개행사로 한국민속춤과 네덜란드의 댄싱을 하였으며 제 7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해비급 1위를 하여 단체 준우승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맞이하여 우리 선수들도 꽤 긴장해 있었고 본인 또한 3년전에 네덜란드의 선수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유럽 경기 중 가장 무서운 적수였다. 관중들 또한 열기가 대단했다. 첫 게임부터 우리 선수들은 차분하게 게임을 잘 풀어 나갔으며 심우현 선수는 K.O를 시키는 분전까지 했으나 웰터급, 해비급에서 2체급이 겨서 6 : 2로 승리를 하였다.

경기를 마치고 네덜란드 태권도 협회장이 마련한 만찬을 나누고 중국국 태권도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관중의 찬사를 받은 우리 선수단은 숙소로 돌아왔다.

1월 22일 덴마크 어루스에 도착

오전 10시에 서사범과 작별하고 다음 경기국인 덴마크로 출발하였다. 하노버를 거쳐 함부르크를 경유하여 덴마크 국경선을 지나 덴마크 어루스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다. 그곳의 고대정 사범의 안내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1월 23일 거인을 누르며 인기독자치



김세혁 코치

잔뜩 찌푸린 날씨에 눈이 내리는 날씨였다.

우리 선수단은 고태정 사범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오늘 저녁 경기할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들도 같은 호텔에서 서 기거한 탓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식사 후 고태정 사범과 사모님도 같이 시내 관광을 했다. 어루스의 도시는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였다. 시내에서 약 5km 정도 나가니 해변가에 들판이 있어 그것도 아주 넓고 끝이 없는 들판이라 생각하고 차에 내려서 보았더니 바다 전체가 얼어 붙어 있지 않은가. 수십년전에 인천앞바다가 얼어 붙었다는 소리는 들어도 실제 보지 못한 탓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관광을 마치고 속속로 돌아와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곧장 경기장으로 향했다.

경기장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관중들이 스탠드를 온통 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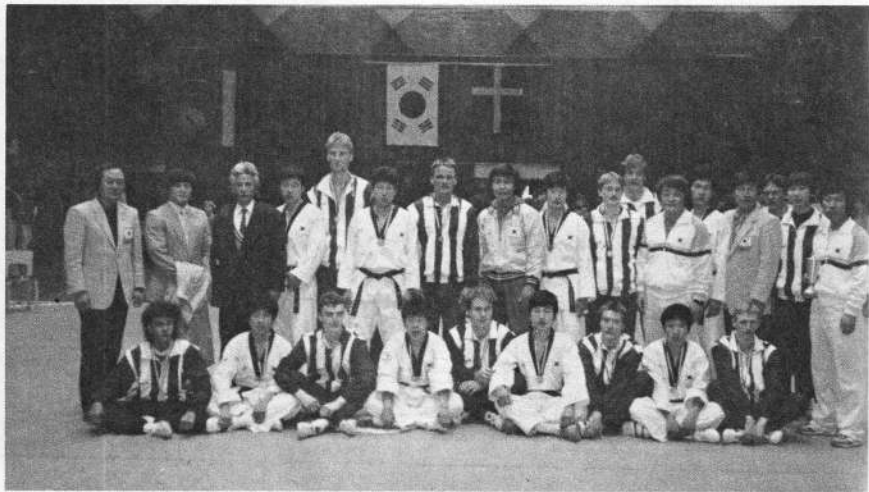
입장식과 선수 소개를 마치고 경기에 임하였다. 미

들급 선수는 막상 막하의 경기로 패했고 헤비급의 덴마크 선수는 신장이 2m4cm 라고 했다. 우리 선수는 겨우 1m76cm의 신장으로 상대 선수를 원발 뒷차기로 상대의 선수를 2번이나 뒤편 떨어지는 다운을 뺏으며 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여 7 : 1로 승리를 거두었다.

1월 24일 동독땅 지나며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어 안타까움

아침 식사 후 서독 베를린에서 25일 경기를 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고태정 사범의 안내로 오펜세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집을 펴낸 안테르센의 생가를 관광하였다. 옛날 구두를 기워 만들던 곳과 책장의 수천권의 책중에 한글로된 안테르센의 동화집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을 관광하고 고태정 사범은 코펜하겐으로 우리는 함부르크를 거쳐 서베를린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신부영 사범의 체육관에 들러 뜨거운 환영과 대접을 받았다.

다시 서베를린으로 가는 도중 국경선을 거쳐 약 400km나 되는 동독땅의 고속 도로를 거쳐야 서베를린으로 가는데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한국과 같은 실정이라



덴마크의 어루스에서 경기를 마친 양국 선수들

비교도 되지만 누구나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었다. 동독 고속도로 국경선을 지나서 베를린에 도착할 때까지 10번의 검문 검색을 받아야 했으나, 서베를린에는 한국의 검문소 밖에 없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도 공산국가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서베를린에 도착하니 이곳에서 경기를 주최하는 한국 사범 5명이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정해진 호텔에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 다음 서베를린 한국사범협회의 안내를 받아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이곳 서베를린에는 우리 교민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교민들과도 많은 담소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와 24일밤을 보냈다.

1월 25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손기정 이름 적혀 있어

오늘은 서베를린에서 경기가 있는 날이다. 아침 식사후 가이드를 따라 시내 관광에 나섰다. 먼저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일장기 말살사건을 일으킨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을 관광하게 되었다. 1936년에 건립된 주경기장이라 생각하니 대단히 협소한 줄 알았으나 규모가 대단하였다.

이곳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이름과 국적이 새겨져 있는데 옛날 우리 교민이 일본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지워 버리고 한국이라고 몇번이나 고쳐 썼다고 한다. 이제는 정식으로 KOR, EA라고 국적이 바뀌어져 새겨져 있는 것을 보니 흐뭇한 마음 금할길이 없었다. 다음은 천사의 동상을 구경하고, 철의 장막이라 불리우는 베를린 장벽을 구경하였다. 장막의 벽에는 통일과 자유를 기원하는 글로 많이 낙서가 되어 있었으며 이곳에 우리도 한국 태권도란 낙서와 이름을 새겼다. 그후 저녁에 있을 경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경기장에 갔다. 오늘 경기는 주최측의 계의로 베를린 대표팀 1팀과 터키인으로 구성된 1팀 각각 1번씩 경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베를린 대표팀은 8 : 0, 터키 선수는 7 : 1로 각각 승리를 거두고 경기를 모두 끝냈다.

1월 26일~27일 한국인 사범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감습

오늘부터 29일까지는 경기가 없다는 안도감에 관광 스케줄만 짜여 있는 날이다. 부담감도 덜고 즐겁게 아침 식사를 나누고 바로 관광을 떠났다. 지금 차를 타

고 가는 길이 우리 한국의 통일로와 같은 통일을 기원하는 도로라 한다. 여기서 또한 분단의 아픔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도착된 곳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같은 전세계 유명인사 또는 간첩을 교환하는 국경의 다리를 관광하고 동독방 안에서 서베를린 동네도 구경하였으며, 베를린 국회의사당을 둘러 보았다.

오후에는 강종길 사범의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한국사범님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1번씩 강습도 순회하면서 도와주었다.

1월 28일 뮌헨에 도착

오늘은 베를린을 떠나 뮌헨으로 가는 날이다. 베를린 사범님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8시간에 걸쳐 뮌헨에 도착하여 호텔에 여장을 풀고 고디민 사범님덕에서 사모님이 정성껏 해주신 저녁을 먹고 휴식을 하였다.

1월 29일~30일 오스트리아에 도착, 음악의 도시 관광

오늘은 6번째의 나라, 오스트리아에 가는 날이다. 30일에 샬스부르크에서 경기가 있어 뮌헨에서는 약 2시간의 거리다. 점심 식사 후 음악의 도시 샬스부르크를 향하였다. 샬스부르크 협회 부회장인 김양용 사범의 마중을 받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 샬스부르크는 1년내내 음악 연주회가 있다고 한다. 거리가 비교적 조용하고 시내 한가운데는 강물이 흐른다. 유명한 음악가 모짜르트 생가를 관광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출발하였다. 시내에서 몇 km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생가 등을 관광 했으며 경기장으로 향했다. 관중은 약 6~7백명 정도였는데 비하여 체육관은 굉장히 넓고 좋았다.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기에 만전을 기하고 시합준비를 하였다. 이곳은 김양용 사범님 혼자서 있기 때문에 인스브룩에서 이경명 사범님이 심판원을 데리고 오셨다. 이곳에는 빈급이 없어서 플라잉급서부터 7체급만 경기를 가졌다. 경기는 6 : 1로 마쳤는데 우리 선수들의 난이도 높은 기술 훈련을 보고 싶다고 하여 몇가지 난이도 높은 발차기를 보여 주었더니 관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경기와 시범을 모두 마치고 샬스부르크 협회의 저녁만찬에 초대받아 식사 후 숙소에서 휴식을 하였다.

1월 31일~2월1일 마지막 경기 8 : 0 완승



오늘은 마지막 순회 경기를 갖는 날이었다. 샬스부룩에서 아침 식사 후 김양웅, 이경명 사범과 동행하여 비엔나로 출발했다.

샬스부룩에서 비엔나까지는 약 400km 거리로 3시간 정도 걸려 비엔나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경기 장소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무대위에서 경기를 하였는데 장소가 약간 협소하여 경기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감수하고 마지막 경기인 만큼 선수들도 있는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하였다. 경기장에는 대사관 직원이 모두 참석하였고 비엔나 사범들이 총동원되어 시범을 하였고 대회를 주관하는 신장환 사범도 시범을 보였다. 경기는 8:0으로 완승하여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였다. 경기가 끝나 후 신장환 사범이 경영하는 아리랑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우리 선수단은 휴식을 했다. 다음날 유명한 사범의 체육관에서 강습을 마치고 시내 관광길에 나섰다. 비엔나도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음악가들의 묘소를 보았는데 그곳에는 우리들이 흔히 알

고 있는 베토벤, 슈베르트, 모짜르트 등의 유명한 음악가들만의 묘소를 관광하고 왕궁도 구경한 다음 비엔나의 밤거리도 구경하였다. 오늘저녁은 대사관에서 대사님과 참사, 서기관, 영사님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아리랑 식당에서 저녁 만찬이 있었다. 대사님께서도 우리 태권도가 국위선양에 커다란 몫을 차지한다며 내년에도 올 수 있으면 꼭 오스트리아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부탁하였다.

2월 2일~4일 가벼운 마음으로 관광, 쇼핑즐거

경기가 모두 끝나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서독 뮌헨으로 향했다. 뮌헨에 도착하여 그동안 지친 피로를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못다한 뮌헨의 명소를 찾아 관광을 했다.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카다 포로 수용소를 그대로 보존해 놓았고 당시의 필름을 그대로 영화회관에서 상영도 해주었다. 왕궁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화려했고 옛날 왕이 타던 마차와 쓰던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침실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우리 한국도 이러한 유적을 잘 보존하였다면 관광수업을 많이 올릴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느껴졌다.

그동안 쇼핑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도 시간을 주었고 몇군데 백화점을 끌고루 돌아보게 하였으며 내일이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설레인 마음으로 마지막 밤을 고의인 사범님 사모님 가족과 함께 이별의 파티도 열었다.

2월 5일~2월 8일 현지 사범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침 식사 후 일찍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갔다. 그러나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 탓으로 항공사측에서 마련해준 호텔과 숙식제공을 받고 다시 뮌헨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다. 다음날에는 한국으로 바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 스위스 항공을 타고 홍콩에서 1박하고 2월 8일 영국CX 항공으로 한국에 귀국하였다.

그동안 우리 선수단을 위해 고생하신 고의인 사범님 사모님과, 여수인 사범님 사모님께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현지에서 도와주신 여러 사범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우리 선수단을 유럽순회 경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태권도협회와, 본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오지(奧地)에 심은 한국의 열

아프리카 5개국 순회시범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규형 / 국기원 성인시범단

▲시범단 명단

- 단 장 : 이종우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 감 독 : 송상근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 총 무 : 조희석 (세계태권도연맹 국제부장)
- 시범단원 : 김영작 · 박덕규 · 이규형 · 이종관 · 최봉호
구정희 · 김현성 · 김충석 · 최광근 · 이상현
윤준철 · 이재봉 · 표낙선 · 조성철

시명감을 띠고 대장정에 오르다

병인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5일 오후 7시 40분 / 태권도관계 인사들과 여러 친지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우리 시범단 일행은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이륙, 아프리카 순회시범의 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시범단은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1개월이상 시범에 대비 강화 훈련을 실시해 왔었다.

그리고 떠나기전 이 세기 체육부장관과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86아시아인 계임을 통해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인정받게 되었고, '88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비동맹국가와 스포츠 취약국가에 태권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상호 우호 증진과 아울러 태권도 인구의 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특히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단 담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백분발휘하여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상기

시커 보면서 꼭 성공적인 시범을 하리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였다.

이 집 트

경찰간부를 중심으로 성

프랑스 드골공항을 경유 MS 986기 편으로 12월 6일 오후 5시 30분애 이집트 수도인 카이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주재 총영사 및 임직원, 이집트 체육성 관계직원, 그리고 태권도 연맹위원들의 따뜻하고 성의있는 영접은 우리 시범단의 피로와 긴장감을 해소시켜 주었다.

공항 귀빈실에서 간단한 환영식에 이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숙소(Gezirah Sheration Hotel)에 도착 여정을 풀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하여 정식명칭은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라 한다. 국토의 일부인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과 접경하여 중동지방에 걸쳐 위치하고, 동쪽은 이스라엘과 홍해, 서쪽은 리비아, 북쪽은 지중해, 남쪽은 수단과 접경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100만km²로 동서부 사막지역과, 홍해구릉지역, 나일 계곡 및 삼각주평야로 되어 있고, 전체 국민의 96%가 아랍족이며, 국교인 회교도가 90% 이상이나 된다.

12월 7일 오전 6시 기상, 피곤함도 잊은 채 시범단 전원은 호텔앞 백사장에서 몸을 풀고, 오전 9시 30분부터는 카이르 국립박물관 관람과 고대 피라미트 및 스�핑크스 관광을 하였는데, 책자에서 또는 말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웅장하며, 경이로움에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후 7시에는 대사관저에서 대사 주최 만찬회에 참석하여 뜨거운 환영을 받고 내일부터 있을 시범에 대비하였다.

◎대성황을 이룬 1차 시범

12월 8일 오전 10시 우리 시범단은 1차 시범을 선보이는 경찰대학 체육관(Police Academy Gymnasium)에 사전 답사하여 시범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각자 주어진 동작에 대한 시범 연습에 들어갔다.

체육관 주변은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었으며, 시범을

환영하는 대형 플래카아드 및 포스터 등이 이곳저곳 눈에 띄었다.

오후 6시 시범을 건학하기 위해 체육성장관을 포함 3천명의 정부 고위층 및 경찰간부, 그리고 각 도에서 차량으로 수송된 경찰들로 체육관을 가득메워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질서정연하게 시범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들정도였다. 곧 이어서 현재 이집트 태권도 협회 사무총장이며 국립경찰병원 부원장인 Alaa Gamal Zaki씨의 사회로 시범단이 소개되고, 현재 내무성 차관이며 이집트 협회장인 Dr. Abdel Icarim Darwish의 환영사에 이어 이집트 총영사의 답사가 있는 뒤 드디어 시범이 시작됐다.

절도있는 전체 동작이 끝나고, 특히 김충석 사범의 야-앗하는 기압소리와 함께 3m높이의 고속격파가 성공하는 묘기와, 김영작 시범분과 위원장의 허공을 가르는 기압소리와 함께 강도 높은 빨간벽돌 2장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묘기는 3천여 관중을 완전히 분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시범이 끝난후 경찰간부 중 한사람은 "평소 태권도에 관해 호기심이 많았는데 이번 태권도 총주국에서 파견된 시범단의 시범이 너무 훌륭하고 절묘하다"며 태권도 보급에 힘쓰겠다"고 참관 소감을 말하였고, 파티석상에서 한 정부 고위관리는 김위원장의 단련된 손을 만져 보면서 "당신의 손은 마치 도끼나 망치와 같



이집트에서 고대 피라미트의 웅장한 자태를 둘러본 시범단



이집트 육군사관학교에서의 겨루기 시범

은 위력을 가졌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의아한 표정에 모두 웃음보를 터트리기도 했다.

◎도전 경기 치룬 2차 시범

12월 9일 오후 2시 2차 시범을 위해 카이르를 출발 2시간 거리를 달려 Tanta시에 도착 오후 6시부터 Tanta시 극장에서 시장을 비롯 2천여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시범이 시작되기 직전 사전 협의도 없던 도전이 들어 왔다.

물론 해의 시범을 다니다 보면 간혹 있는 일이지만 예상밖의 상황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제의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 도전을 승락했다.

상대는 이집트 편급 대표선수로 세계대회에 2번 출전경력을 가진 이집트의 영웅적인 존재였고, 우리 시범단에서는 막내인 조성철군(4단)이 출전, 경기를 치렀는데, 과감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경기력에 있어서 월등한 실력을 보인 조성철군에게 2천여 관중들이 환호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터트리 다시 한번 태권도 중 중국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다.

우리 시범단원 모두 막내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냈고 이어서 있던 시범에 활력소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말 호뭇했던 시범이었다.

◎일정에도 없던 3차 시범

12월 10일 오후 6시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 교관단, 사관생도 등 3천여명이 체육관을 꽉 메운 가운데 시범이 있었다.

이곳 육군사관학교 시범은 당초 일정에 없었으나 1차 시범을 참관한 바 있는 사관학교 고급장교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부차원에서 장차 이집트 군부대를 이끌어 나갈 사관 생도들에게 특별히 시범을 보여 주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이 들어와 실시된 것으로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효과는 매우 컸다고 본다.

◎수에즈시에서의 재시범

수에즈시에서 다시 한번 시범을 가졌고 수에즈시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유람선 한척을 내주시어 수에즈 운하를 견학하게 되었다. 수에즈 운하의 굴착공사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음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장엄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집트의 마지막 시범을 성공적으로 장식하는 뜻깊은 시범이었다.

우 간 다

12월 12일 이집트 카이로를 출발 케냐를 경유한지 17시간만에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위치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했다. 엔테베공항은 공항으로서가 아닌 엔테베 작전으로 우리 귀에 더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억과 아프리카 오지를 연상케 하는 우간다라는 매희롭지 못한 발음이 이곳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데 그러한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임을 곧 깨달을 수 있었다. 북쪽 지방에서는 내전이 계속되는 등 정치적 불안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자연 조건만큼은 천혜의 것이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이 나라의 국토는 1,000m안팎의 고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 부근인 데도 불구하고 연중 20~24℃의 기온이 연교차 없이 유지된다. 강수량도 비교적 풍부하여 주산물은 목화 와 커피라고 한다. 또한 세계 제2의 담수 호인 빅토리아호를 비롯한 크고 작은 호수가 산재해 있어 관광 국가로의 개발의 여지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12월 13일 우간다에서의 첫 아침을 맞은 우리 시범단은 오전 9시 30분경 경찰청을 방문하였다. 이곳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기 힘든 이 나라를 방문해 준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우호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태권도를 통한 원주민들과의 교류는 최선의 외교책...

우간다는 대 아프리카 외교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나라라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10시경 이 나라의 수도이자 우리의 숙소가 있는 '캄팔라'를 출발하여 2시간 후에 '진자'라는 시에 도착했다. 시범을 보이기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곳 '진자'에 위치한 나일강 발원지를 둘러 보았다. 광활한 분지위에 크고 작은 호수가 점재 넓은 소택지를 이루고 있었다.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강줄기는 백(白)나일을 이루어 북으로 북으로 흐른다. 수단에 이르러서는 청(淸)나일과 합류하며 이집트를 거쳐 결국 지중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길이는 6,400km에 이른다. 유역 면적 또한 대륙 면적의 1할 이상을 차지, 말 그대로 '아프리카의 젖줄'인 셈이다.

3시부터 진자 시청 잔디 광장에서 시범이 있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태권도란 생소하기만 했다. 그도 그럴함만도 한것이 이곳 진자를 찾는 외국인 자체가 극소수 인데다가 동양의 무술을 접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시범단원들이 도복으로 갈아입고 시범 장소에 나타나 몸을 푸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의아해하는 표정만 짓고 있었다. 그래서, 잠시 홍보할 목적으로, 시범을 보러 온 몇 명의 어린이들에게 태권도의 기본 동작 몇 가지를 지도했다. 그들은 동작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배웠으며 그러한 모습을 본 주민들은 자기 종족의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갔는지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었다.



우간다의 진자에 있는 나일강 발원지

시범 전 진자 시청에서도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과를 접어 두고 모여들었다. 날씨가 무더웠고 지면도 고르지 못한 채 경사마저 저있어 시범 장소로 여건은 좋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탄성과 환호성으로 보아 매우 성공적이라 생각했다. 시범이 끝난 후 사진을 찍을 때 주민 서로가 물려들어 함께 포우즈를 취해주는 등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이곳 진자 시와 같은, 태권도 국제화의 취약지구에 태권도를 보급시킨 것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순간이었다.

12월 14일 NATIONAL LUGOGO 시립체육관에서 시범이 있었다. 체육성장관 등 정부 고위층 인사, 경찰, 군인 간부 및 일반 시민 3천여 명이 입주의 여지없이 체육관을 꽉 메운 가운데 시범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날 시범은 T·V 중계팀을 비롯한 기사단들의 취재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양국 국가 연주에 이어서 체육성장관의 환영사가 있었는데, 그는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해 준 한국정부

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이번 대회가 양국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간다 국민의 안면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는 태권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무술이라고 자기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한 감남석 사범이 우간다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는 것으로 환영사를 마쳤는데 김사범은 수년전 이곳에 태권도 보급을 위해 파견된 사범으로 그는 특히 경찰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도, 보급하여 많은 유단자와 유급자를 배출하고 있었다.

이틀 후 MAKERERE 대학에서 시범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간다에서의 시범 일정을 마쳤다. MAKERERE 대학에서는 해마다 인접나라 대학교수 및 학생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해왔는데 이 행사 프로그램 일부를 취소하면서까지 시범을 요청해 온 것이었다. 우간다에서의 시범은 외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체육을 통한 교류라는 것과 불모지를 개척하는 선구자적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

나이지리아

12월 19일, 나이지리아 라고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기니아만에 위치한, 남서쪽으로 대서양을 바라보는 나라이다. 착륙하기 전 창문을 통해 본 것은 낮게 깔리운 구름뿐이다. 고온 다습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30~35℃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였다.

공항 귀빈실에서, 대사관 임직원과 나이지리아 태권도 수련생 70여명이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어 주었다. 숙소인 EKO HOLIDAY INN HOTEL (이코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여장을 풀 뒤 한국 대사관에서의 만찬에 초대되었다. 정성들여 만든 푸짐한 식탁이었는데 오랫동안 보는 한국 음식이라서 김치만으로도 우리 단원들의 식욕을 돋우기엔 충분했다.

다음날 답사차, 시범 장소인 국립경기장에 가보니 때마침 김무찬 사범과 제자 100여명이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수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무찬 사범은 '83년 8월 정부 파견 사범으로 이곳에 부

임하였다. 처음 그가 나이지리아 북부의 KADUNA주에 위치하고 있는 ZARIA라는 지방에서 단 몇 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국 각지에 수 십명의 유단자와 수 백명의 유급자를 길러내게 되었다. 의식주 모든 것이 불편한 이곳에서 그간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굳이 이야기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에서, 오직 조국의 명예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나이지리아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원주민들

공지로 일관해 온 그의 신념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체육관 정면에는 태극기와 나이지리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고 그 아래에서 한 유단자가 구령을 부치고 있었다. '주춤서기, 앞굽이, 몸통지르기와 하나, 둘, 셋' 등 한국말 구령에 수련생들은 절서있고 절도있게 동작을 펼쳤고, 우렁찬 기합은 체육관을 진동시켰다. 이 모습을 보노라니, 이 곳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그네들 가슴에도 한국의 일이 심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12월 21일 국립 경기장 실내 체육관에서 시범이 있었다. 체육성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 고위층 인사 및 일반 시민 3천여명이 참관했다.

본 시범이 있기 전에 나이지리아 어린이 30여명과 성인 35명이 나와 간단한 시범을 보였다. 이어서 체육관에 나온 주요 인사 소개와 체육성 장관의 환영사가 있었고 곧 이어 우리측 이종우 단장의 답사, 시범단 소개가 이어졌다.

시범은 약 한 시간에 걸쳐 25가지 종목이 펼쳐졌다. 전체 기본 동작, 폼새, 무기 겨루기, 격파 겨루기 순서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으며 단원들은 중주국의 시범단이라는 자신에 차 있었다.

전체가 나와 하는 기본 동작은 평이한듯 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종목이다. 동작의 통일된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날 시범에서는 옆에서 있는 친구까지도 내 몸의 일부인 양 호흡이 잘 맞았다. 더우기 절도있고 박력감 넘치는 동작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마침내 그 곳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했다. 또한 위력 격파, 고공 격파 등은 힘과 기를 필요로하는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공중으로 치솟아 산산 조각이 되어 떨어지는 송판과 벽돌 판편 속에서 박수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시범은 태권도가 한국인의 정신과 신체를 단련시켜온 오랜 전통의 고유 무도임과 동시에 뛰어난 스포츠임을 현지인들에게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믿는다.

시범이 끝나자 가라테 도복을 입고 검은 띠를 두른 유단자 몇 명이 김무찬 사범을 찾았다. 그들은 "조금 전 태권도 시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테와 비교하면서 지켜 보았는데 태권도의 기량이 가라테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우리들 모두 태권

도로 전향하고 싶다."고 김사범에게 사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에 가슴 뚫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무엇인가가 어깨를 누르는 듯 했다. 중주국을 대표하는 시범 단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것, 즉 태권도의 보급 후 계속되어야 하는 발전을 위한 노력과 끊임없이 정진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가 나

체육 대학원 필수 교과목에 태권도 선정

사하라 사막의 심한 모래바람 (황사현상)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여,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12월 24일 오후 5시에야 가나의 코로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 시범단 일행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현지 주재 대사관 임직원과 태권도 사범들 그리고 가나 체육관계 인사들은 우리의 도착이 확인되자 비로소 안도의 빛을 띠면서 따뜻하게 환영했다.

숙소인 MARRIOTT INTERNATIONAL HOTEL에 들러 여장을 풀고 곧장 가나 태권도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사관 최기철 서기관의 배려로 한국식당인 신라 레스토랑에 초대되어 모처럼 고국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음식 대접에 긴장과 피로를 풀면서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가나는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에 면한 독립국으로 국토면적이 23만 8천km²이며, 인구는 약 1,500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43%가 기독교인이다. 현재 가나 태권도협회 총재는 전 기획원 장관이며, 현 가나 대학교 부 총장인 PROF. GEORGE BENNEN 씨를 주축으로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8년 8월 우리 정부에서 가나 군부에 파견되어 경찰에까지 태권도를 보급,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광기옥 사범의 공이 지대하다고 본다. 또한 가나 문교성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측에서 나하련 사범이 파견되어 현재 문교성 산하 학교에서 태권도 보급에 힘



가나 독립기념일 경축행사에서 대규모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쓰고 있는데, 위내바 체육 대학원의 경우 현직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중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학년 30명씩 편성되어 3년 과정을 수료 후 체육 주임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85년부터 교과과정에 태권도가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1단을 따라만 졸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가나 국경일에는 대규모 태권도 시범대회가 개최되는데 '85년 3월 독립 기념일에는 약 1,500명, '86년 6월 혁명 기념일에는 600여명이 시범을 보임으로써 태권도 보급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맞은 성탄절

12월 25일 오전 10시 시범 위원단장은 시범장소인 STATE HOUSE에 사전 답사를 가고, 남은 시범단원 중 기독교신자 몇 명이 함께 인근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에 참석하여 무더운 미국에서의 색다른 감흥을 맞볼 수 있었다.

오후 3시 우리 사범단원은 아부리 가든 식물원을 들렀는데 미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온갖 화귀종의 식물 관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나하런 사범집에 초대되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고향의 노래, 아리랑 등을 서로 합창했는데 고국을 떠난 향수에 눈시울이 적셔짐을 애써 참아야 했다.

엘미나 성 (노예성) 관광

12월 26일 오전 지금의 케이프 코스트 서쪽에 위치한 엘미나 성을 둘러 보았다. 주위엔 야자수가 늘어거리는, 중세 유럽 양식의 멋진 흰 건물 여러 채로 이루어진 이 성은 일명 '노예성'이라 불리운다. 15C 후반부터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선박이 앞을 다퓌 이 해안을 찾아 금과 노예 무역을 했는데 이 성채들은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지어져 그 거점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 성채에는 노예들을 가두었던 녹슨 쇠창살 등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이민족에 의한, 이곳 원주민들의 수모가 그대로 잔존되어 있는 곳이었다.

「뿌리」의 저자 알렉스 해밀리의 선조인 쿤타 키테도 이 곳을 통하여 운명이 바뀌었음을 생각해 보니 웬

지 가슴이 뭉클하면서 숙연해져 있음을 느꼈다.

오후에는 가나 태권도 수련생들이 주최하는 저녁식사가 브루 앞 식당에서 있었다.

가나 태권도 시범단과 비교 시범

12월 27일 오전에는 시범에 대비하여 각자 동작 연습을 한 후 오후 2시 30분 중앙청내 체육관인 STATE HOUSE에 도착 2천여 관중이 모인 가운데 시범을 가졌다.

우리측 시범에 앞서 가나 태권도 시범단의 기본 동작 및 품새 격파 등의 시범이 있었는데 제법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서 우리 시범단의 절도있는 동작, 허공을 자르는 기압 소리와 함께 산산 조각이 나는 벽돌, 절묘하고 신비에 가까운 공중 격파 묘기 등은 2천여 관중을 완전히 매료시켜 탄성과 함께 우리와 같은 박수 갈채가 시

범이 끝난 한참 후에까지 끊이지 않았다.

오후 7시 30분 남후우 대사 주최 만찬회가 대사관 저에서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시범단이 국제 외교에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이곳 가나에 한국의 일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태권도 보급에 건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 88서울 올림픽이 꼭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치하의 말씀에 따뜻한 동포애를 느꼈다.

12월 28일 가나 태권도 협회장 주최 칵테일 파티가 마을 추장이며 의사인 아라비오 회장댁에서 있었고, 교민회 주최 저녁 만찬이 힐튼 식당에서 정성스레 마련되어 이번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하여 축하를 받았다.

12월 29일 오후 1시 5박 6일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대사관 임직원 박기옥, 나하련 사범, 그리고 가나 태권도협회 관계자들과 우리 교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 트랩에 올랐다.

가 보

돈독한 우호 협력 국가

12월 29일 오후 8시 50분 RK-102편으로 가봉의 수도인 리브레빌 공항에 도착하였다.

현지 주재 대사관 임직원과 태권도협회 임원들이 공항에 나와 따뜻하게 우리 시범단원을 맞아주었다.

가봉은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 대서양에 면한 적도직하의 공화국으로 면적이 약 26만km²이며, 아프리카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높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75년 7월 봉고 대통령이 내한한 바 있고, 전두환 대통령이 '82년 8월 이 나라를 방문, 양국 정상 회담을 갖는 등 두 나라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현지 정부에서 파견된 홍시교사범과 대통령 경호실에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 두 명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절찬리에 끝난 시범

'87년 1월 1일 황남자 현지 대사를 예방하여 신년 인사를 나누고, 1월 2일과, 3일에는 OMNISPORT

가나 어린이들과 함께...



에서 2차례의 시범을 가졌는데, 좋은 반응 속에 절찬리에 끝나 우리 시범단원들은 피로도 잊은 채 태권도 종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흐뭇한 심정으로 1월 4일 UT-734편으로 가봉을 떠나올 수 있었다.

검은 대륙에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시범을 마치고

동방예지국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국의 태권도를 밀림과 사막의 대륙 아프리카에 뿌리내린 파견 사범들, 그들은 무도인으로서의 투철한 정신력과 도덕적 의협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그들의 모범된 인격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더우기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에게는 그들의 심신 단련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지도자로서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현대(現代)와 같이 고도 문명의 사회에서 바쁜 「뜻」과 행동을 자기 희생으로 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뚜렷한 것이 있다면 인내와 집념으로 아프리카를 「KOREA」로 만든 「태권도」인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다시 부각시켰으며 한국의 「열」을 그들의 가슴 깊이 심어주는 선구자였다.

한국인이라는 자랑과 긍지를 함께한 아프리카 지역 교민들과의 우정어린 만남도 그러하거나와 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인들에게 코리아 태권도의 아름다움으로 경탄케 했다는 것은 두고 두고 시범단들과 회상케 될 기억에 남는 보람된 자랑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시범단원을 아프리카 대륙에 파견해 주신 체육부와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님 그밖의 태권도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순회기간 중 우리 사범단원을 열렬히 환영해준 각국 대사관 임직원 여러분과 아프리카 대륙 교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태권도의 열을 심어준 시범단



FISU공식종목 승인 후 개최된 첫대회 한국 종합우승으로 서전 장식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대표팀 좌담회

홍 보 실

참석자 명단

- 이영기 (단장·대학연맹 부회장·신태양사 대표)
- 최인범 (감독·대학연맹 전무이사·경기대 교수)
- 최영렬 (코치·대학연맹 실행이사·경희대 교수)
- 하용성 (트레이너·한국체대 조교)

남자선수

- 김철호 (핀급 금·한국체대 1년)
- 인해진 (플라이급 금·한국체대 3년)
- 서정원 (밴텀급 금·경기대 2년)
- 최운 (페더급 금·유도대 2년)
- 김용수 (라이트급 금·동아대 2년)
- 김윤태 (웰터급銅·한국체대 4년)
- 박상식 (미들급銀·한국체대 4년)
- 이경식 (헤비급銅·청주대 4년)

여자선수

- 도재선 (핀급銅·성신여대 3년)
- 오명화 (플라이급 금·경희대 4년)
- 임신자 (밴텀급 금·경희대 4년)
- 이은영 (페더급銀·경희대 1년)
- 김지숙 (라이트급 금·경희대 2년)
- 전오순 (웰터급銀·경희대 4년)
- 김현희 (미들급 금·경희대 1년)
- 장윤정 (헤비급 금·명지대 3년)

세계대학스포츠포츠포연맹 (FIUS)와 세계태권도연맹 (WTF)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지난 '86년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대학의 남자 21개국의 92명, 여자 5개국의 28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세계 젊은 대학생들의 축제가 거행되어 한국은 남녀 종합 우승의 쾌거는 물론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의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가 유니버시아드 공식종목 승인 후 처음으로 개최되어 정식종목 채택으로의 길을 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임원 및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본대회를 검증해보고 앞으로의 정향을 향한 길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오명화 선수

대규모 선수단 해외에 파견

▲사 회 : 이번대회로 대학연맹 사상 남녀 선수 16명과 임원 4명 등 20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해외에 파견하기는 처음인듯 싶습니다.

남여팀 모두가 '종주국의 젊은이'답게 종합 1위라는 좋은 성적을 올리고 무사히 귀국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대회를 돌이켜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이영기 단장님을 위시해 임원, 선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단장님께서 본대회를 마치고 고간 선수단을 이끈 책임자로서 보시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들의 투혼은 감명적

▲이영기(단장) : 저는 태권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연맹의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인해 영광스럽게도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거행한 각종 태권도 대회와 견주어 비교해 보면, 본대회는 준

비, 집행사항 등에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점은 우리 선수들의 투혼이 가슴에 와 닿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음에 뿌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 회 :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표정은 어떠했습니까?

▲이영기(단장) :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저소득의 개발국가들 중에는 정부의 보조없이 개인참가를 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복장에서부터 조직, 선수들의 자세 등에서 종주국 선수단답게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감독으로 참여하신 최인범 전무께서는 대회의 전반적인 평을 해 주십시오.

경기 기술면에서 평준화 실감

▲최인범(감독) : 서울을 출발할 때는 30개국 참가에 정으로 알고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재는

남자 21개팀 여자 5개팀으로 26개팀이 출전하였습니다. 각국의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이젠 경기 기술면에서는 평준화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선수 출신의 사범들의 해외 진출로 시간이 좀 흐르면 기술측면은 대동해 지리라 생각되어서 이제 자만하고만 있을 때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정시비 한건을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치루어진 대회였습니다.

▲사 회 : 선수들과 동거동락하며 제일 가슴을 많이 태운 하용성코치는 이번 대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구나」다짐

▲하용성 (코치) : 선수들 모두가 기대상으로 잘 해주었습니다. 심판 판정도 비교적 공정했구요.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구나」라고 몇번씩 다짐했습니다. 우리 나라 선수출신 젊은 사범의 해외진출로 짧은 기간에 기량이 우리 선수들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한국방문 전지훈련시 한국체대에서 우리 선수들과 훈련을 하여 우리 선수를 잘 알아서 우리 선수들이 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미들급 구미원 선수는 정국현 선수의 기량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지훈련을 온 외국선수들에게 우리 임원이나 선수들이 배우는 후의는 최상급이 속하니까요……

▲이영기 (단장) : 태권도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국내의 관념이 이상합니다. 세계 대학생 태권도대회를 26개팀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는데 외국의 신문들은 대서특필로 기사를 내는데 중주국인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1단 기사차리니… 선수들의 기사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선수들의 진로, 생활보장, 기술개발 등)들이 걱정이 됩니다.

실업팀 창단이 과제

▲사 회 : 태권도인으로서의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선수를 역임한 쟁쟁한 사범들의 바람이

해의 사범으로 진출하는 것이 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 실업팀 창단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 태권도인들이 안정되게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태권도인 공통의 과제입니다.

경기에 관한 홍보 필요

▲이영기 (단장) : 브라질에서는 태권도가 축구 다음으로 인기가 있어서 큰 운동장을 빌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태권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는데 태권도 경기의 물을 아는 사람은 선수들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니, 경기에 관한 홍보가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 회 :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회에 출전하여 시합을 치루면서 느낀점, 각오 등 형식에 구애됨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식선수 : 선수들의 기량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뇌플레이를 펼쳐 경기운영도 우리와 대등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이라고 일방적으로 깔보아서는 안되며 국내 경기처럼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박상식 선수

여성태권도 활성화 방안 시급

▲임신자 선수 :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국제대회의 출전은 저에겐 의외의 행운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여자대학팀들이 참가하였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성 태권도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남자 선수들에 비하면 차이를 느낍니다.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여성 태권도 선수 활성화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체전 등에 여

성태권도 선수가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봅니다.



임신자 선수

▲이경식선수 : 국내 시합 때 선배들에게 외국선수들 관하여 들은 얘기로는 키, 체격, 힘 등이 월등하다고 들었는데 현지에 가보니 오히려 외양으로는 위압감이 없었으나 막상 경기에 임하여 보니 힘이 국내선수보다 월등함을 느꼈습니다. 준결에서 패하고 동메달에 머물렀을 때 김포공항엘 어떻게 나가느냐? 는 생각이 제일 먼저들었습니다. (일동 웃음)



김현희 선수

키 큰 선수 대비연습

▲장윤정선수 : 제 7 회 세계 태권도대회에 키 큰 선수를 만나서 고전했던 생각을 하고 큰 선수에 대비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는데 의외로 키가 작은 선수들이 출전하여 2 개의 경기를 치루는 가운데 10 득점을 올렸으니 나름대로 게임이 잘 풀렸다고 봅니다.



장윤정 선수

남자 헤비급 심판 판정에 미국의 뒷세

▲최인범(감독) : 멋진 경기를 치루었다고 제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남자 헤비급 결승전에서는 흥 그라운드 뒷세(?)가 극심한 판정이었다고 경기를 관람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미국의 경기였는데, 미국선수가 경기특점에서 졌고, 반칙도 많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선수의 판정승으로 선언되었고, 이에 불만을 가진 이집트선수는 시상에 불참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반적으로 심판 판정에 다 공정했었는데 이것이 옥의 티였다고 하겠습니다.

정신적 부담안은 국제대회 처녀출전

▲김철호선수 : 국제대회의 참가가 처음이라 정신적 부담이 컸었습니다. 특히 대만선수들이 강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부담스럽게 생각했으나 막상 게임에 임해보니 잘 풀려서 첫게임을 잘 넘겼고 준결승에서는 아이보리 코스트선수를 2 회 K·O 시켰고 결승에서도 다운을 뺏는 등 일방적인 승리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철호 선수

▲사 회 : 대회 분위기 등은 어땠습니까?

각국 선수들은 한국선수들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태권도의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한국선수들을 주시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태권도 종주국 선수들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선수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수모두가 모 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체력의 약세

▲도재선 선수 : 저도 국제대회는 처음이어서 긴장했었

입니다. 체력의 약세를 느꼈습니다.



도재선 선수

▲오명화선수 : 외국여자선수들에 비하면 우리 선수들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언어소통의 불편과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중압감 같은게 있다고 할까요….



오명화 선수

▲사 회 : 대개의 선수들이 언어소통 불능과 환경의 차이에서 위축된 감정을 가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네들(외국인)이 우리말 못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네들말 못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민족의 맥박이 숨쉬는 운동을 하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임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상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을을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나 행동에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 회 : 말씀 안하신 선수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있으시면 하시지요.

부상을 이기고 금메달 차지

▲최 운선수 : 저역시 국제대회가 처음이라 무척 긴장을 하였으나 그런데로 게임이 잘 풀려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2회전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3회 중반쯤 상대선수의 주먹에 오른쪽 눈을 강타당해서 다운이 되었으나 사력을 다해 일어나 판정승을 하였습니

다. 남은 게임들을 한눈으로 고전분투하여 결승까지 진출하였으나 결승때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오기가 생겨서 게임에 임했고 코치의 지시대로 득점보다는 우세한 경기운영으로 풀어나가다 찬스가 생길 때마다 착실히 공격을 하여 승리를 하였었습니다.



김윤태 선수

▲사 회 : 단장, 감독의 말씀처럼 선수들의 인내심과 투지는 대단했군요.

▲김용수선수 : 저역시 국제원정 경기가 처음이라 시차를 극복못해서 이틀간 몸살로 아팠습니다. 어지럽고 몽롱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는데, 긴장한데다가 게임 운영 미숙으로 왼쪽 무릎 부상을 당해서 고전하여 첫게임에서 겨우 판정승을 하였었습니다. 2번째는 대만선수와의 경기였는데 제가 왼쪽무릎 부상을 당한 것을 알고 「컷트 발」로 괴롭혔습니다. 경기담당 의사가 경기진행을 만류하는 것을 진통제와 해이팅을 하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김용수 선수

▲사 회 :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요?

▲김용수선수 :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의무감으로 경기에는 지더라도 게임포기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서니 이기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를 악물고 뛰었는데 다행히 우승을 했습니다.

▲전오순선수 : 국내에서는 1분 30초나 2분 3회전이

었는데 이번 대회는 3분 3회전이라 3회전에서는 체력이 달렸습니다.



전오순 선수

▲이은영선수: 저는 연습도중 인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결승전에 올라 1회전은 정확한 득점으로 기선을 잡았으나 2회전에 악화되어 경기를 포기하고 들것에 들러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국제대회 때의 설욕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합에서는 꼭 금메달을 획득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이은영 선수

▲인해진선수: 대회사상 최대의 선수 파견으로 분위기도 좋았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보다는 규모는 작았지만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대회의 운영과 시설 등이 엉성했음은 선수들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인해진 선수

▲이영기(단장): 이번 대회에는 선수 16명이 출전하는 대규모 시합이었고 그것도 격기운동이라는 측면에

서 관계기관에서는 의료전문요원 한사람쯤은 대응해서 선수를 보호하고 아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최인범(감독): 대회를 마치고 L·A에 도착할때부터 떠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안내,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신 김찬영사범의 정성에 이 자리를 빌어 선수단 모두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렬(코치): 20여명의 선수단 뒷바라지에 수고 많으신 단장님께서 선수들에게 금일봉까지 주시며 격려하여 주심에 선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 제2회 세계 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지는 어느 곳으로 되는지요.

▲감 독: 그리스, 이태리, 브라질 등에서 신청을 하였는데 단장회의에서 '88년도에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개최지는 미국, 한국, 구라파지역 단장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 회: 이번 대회는 FISU가 주관한 첫대회로 2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고 돌아온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여 세계 대학생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을 더욱 밝게 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20여명의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이렇게 한자리에 다시 모여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은 단장님을 비롯한 임원,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협조가 잘 되었다는 산 증거라고 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대학연맹 발족이후 공식적으로 대표팀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해외원정 경기를 치루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을 임원들과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었다.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거 20여명이 해외 파견이 되었으니……

○선수단의 합숙훈련, 공항 출영시 대학연맹 회장님이 보이지 않음도……

○이사구성도 대학 교수들의 일반이사들의 참여의 부족이 곧 연맹살림이 척도일 수밖에 없는 연맹의 구성도 문제이고……

○출전한 상대국의 정보에 전무하여 식사 등, 어려움이 많았음도 차기대회를 대비해서 연맹에서 유념해야 될 일인듯 생각된다. *

김운용 회장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김운용 회장은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86년도 12월 30일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했다.

김운용 회장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및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SAGOC) 부위원장으로서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태권도의 정식 종목 채택에 크게 기여했으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공헌하였다.

한편 김운용 회장은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장으로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모든 역량을 쏟으며 국제 스포츠무대의 폭넓은 활동으로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세계스포츠계의 주역이 되었다.

'88올림픽을 1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이같은 김운용 회장의 국제스포츠무대의 폭넓은 활동으로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완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르고 있다.

서울올림픽 보도·방송협의회 이원경씨와 공동의장선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는 보도·방송 및 홍보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언론사장과 학계 등 각분야의 지도급 인사 29명으로 보도·방송협의회를 구성하여 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을 겸한 1차 회의에서 김운용SLOOC 부위원장과 이원경 전 외무부장관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

보도·방송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씩 회의를 개최, 서울올림픽의 보도·방송·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과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협의회의 산하에는 보도분과위원회 21명, 방송분과위원회 16명, 홍보분과위원회 19명 등 전문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보도·방송협의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공동위원장: 이원경(전 외무부장관) 김운용(SLOOC 부위원장)
- 위원: 이광표(연합통신사장), 김성열(동아일보사장), 김성진(국제문화협회장), 김용식(전 외무부장관), 김재봉(매일경제사장), 김창열(한국일보사장), 문태갑

(범민족올림픽 추진중앙협회본부장), 박헌태(한국언론회관이사장), 방우영(조선일보사장), 오재희(외무부차관), 이계익(한국관광공사사장), 이규형(한국경제사장), 이선기(무역협회부회장), 이재우(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 이종기(중앙일보사장), 이진희(신문협회장), 전상진(SLOOC 사무차장), 정구호(방송협회장) 정대연(코리아타임즈사장), 조종건(대한항공사장), 최만립(KOC 부위원장), 최재욱(경향신문사장), 최창운(문공부차관), 한갑수(한글학회이사), 한봉수(무역진흥공사사장), 한중우(코리아헤럴드사장), 황선필(문화방송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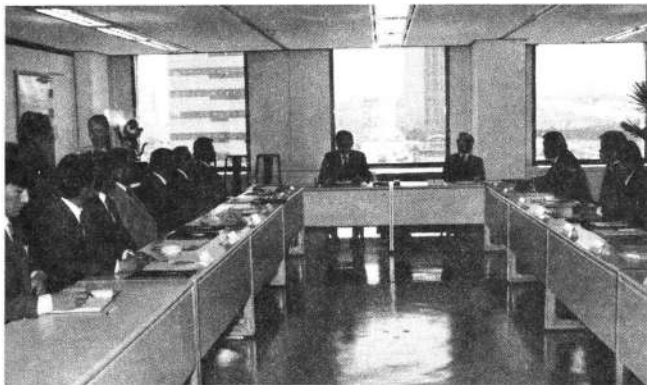
KOC 명예위원장으로 추대 IOC TV방영권위원회 위원선임

대한 올림픽위원회(KOC)는 2월 16일 정기위원회 총회를 열고 본회 김운용 회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김운용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V방영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IOC는 지난 1월 5일 지난해 '86년 12월 19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IOC 집행위원회에서 김운용 IOC위원을 TV방영권 위원으로 선출하고 임명장을 보내왔다.

'88서울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 운영위원회 발족식 겸 제1차 회의개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SLOOC)는 '88서울올림픽 대회의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태권도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대회 준비과정에서부터 종료시까지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에 태권도 경기운영 위원회를 3월 6일 대회운영담당부위원장실(회의실)에서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

태권도운영위원회는 태권도 관계 지도급인사 12명과 SLOOC 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발족식에서 조상호 SLOOC 부위원장이 박세직 위원장을 대신하여 태권도경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발족식을 겸해 열린 제 1차 회의에서 조상호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올림픽은 전국민이 치루어야 할 국가대사라는 소명의식하에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치루기 위하여 태권도계 인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조를 당부했고 김운용 태권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한 엄운규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88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전태권도인이 역량을 결집시켜 경주해 주길 당부했다.

태권도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김운용 회장
 - ▲부위원장: 엄운규 부회장
 - ▲위원: 황춘성 전무이사 · 김용휘 사무국장 · 노우종 운영부장 · 이 봉 총무부장 · 권경옥 기술심의회회장 · 전재규 기술심의회 부회장 · 김용서 기술심의회 부회장 · 안영택 심판분과위원장 · 김영삼 경기분과위원장 · 김봉기 심사분과위원장
- (SLOOC측) 조상호 부위원장 · 박찬욱 경기 1국장
전효식 담당관(운영위원회 간사)

본회 '86년도 장학금 지급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86년도 장학사업으로 장학생 60명에게 총 3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86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대한체육회 10층 대강당에서 거행된 '86년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국교생 20명에게 각각 3만원, 중학생 10명에게 4만원, 고교생 20명에게 6만원, 대학생 10명에게 10만원씩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학교체육진흥의 일환

으로 1975년도부터 초·중·고·대학부 선수 중에서 매년 경기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 200여 명에게 약 3,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장학금 수여는 '85년도 까지는 연맹을 통해 장학생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86년도부터는 선수들의 사기양상을 위해 본회에서 직접 전달하였다.

장학금 수혜자명단

대 학 부

| 순번 | 소 속 | 성 명 | 비 고 |
|----|-----|------------|------------------|
| 1 | 경희대 | 임신자 (여) | 제9회 회장기 대학대회 1위 |
| | | | 제1회 세계대학대회 1위 |
| 2 | 명지대 | 장윤정 (여) | 제9회 회장기 대학대회 1위 |
| | | | 제1회 세계대학대회 1위 |
| 3 | 유도대 | 최 운 | 제9회 회장기 대학대회 1위 |
| | | | 제1회 세계대학대회 1위 |
| 4 | 동아대 | 김용수 | 제9회 회장기 대학대회 1위 |
| | | | 제1회 세계대학대회 1위 |
| 5 | 경기대 | 서정현 | 제9회 회장기 대학대회 1위 |
| | | | 제1회 세계대학대회 1위 |
| 6 | 청주대 | 이경식 | 제9회 회장기 대학대회 1위 |
| | | | 제1회 세계대학대회 3위 |
| 7 | 원광대 | 김종식 | 제13회 전국 대학대회 1위 |
| 8 | 조선대 | 이계행 |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1위 |
| 9 | 경희대 | 노 신 | '86년도 전국 우수대회 1위 |
| 10 | 유도대 | 연기호 | '86년도 전국 우수대회 1위 |

고 등 부

| 순번 | 소 속 | 성 명 | 비 고 |
|----|------|-----|------------------|
| 1 | 동성고 | 권태호 | 제21회 대통령기대회 1위 |
| | | | '86년도 우수선수대회 1위 |
| 2 | 성동고 | 이종현 | 제67회 전국 체전 1위 |
| | | | 제21회 대통령기대회 1위 |
| 3 | 동성고 | 심우현 | 제10회 연대총장기 1위 |
| | | | '86년도 전국 우수대회 1위 |
| 4 | 성동고 | 공두환 | 제67회 전국 체전 1위 |
| | | | 제10회 연대총장기 1위 |
| 5 | 송실고 | 신우철 | '87년도 전국 우수대회 1위 |
| | | | 제67회 전국 체전 1위 |
| 6 | 성동상고 | 성필용 | 제13회 중고 개인대회 2위 |
| | | | 제10회 연대총장기 1위 |
| 7 | 삼천포고 | 최장주 | 제10회 연대총장기 1위 |
| 8 | 학다리고 | 김영태 | 제67회 전국 체육대회 1위 |
| 9 | 동성고 | 강창모 | 제13회 중고 개인대회 1위 |
| | | | 제10회 연대총장기 1위 |
| 10 | 광성고 | 김병철 | 제21회 대통령기생탈전 1위 |
| | | | 제67회 전국 체전 3위 |

| | | | | |
|----|--------|------------|-------------------------------|----------|
| 11 | 한성고 | 이홍수 | 제21회 대통령기쟁탈전 | 1위 |
| 12 | 오현고 | 김태형 | 제21회 대통령기쟁탈전 | 1위 |
| 13 | 병천고 | 권혁선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 1위 |
| 14 | 인천제고 | 이소영 (여)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제13회 중고 개인대회 | 1위 2위 |
| 15 | 청산여상 | 방경애 (여)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제13회 중고 개인대회 | 1위 1위 |
| 16 | 시온고 | 김효연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 1위 |
| 17 | 교향여중고 | 고재경 (여)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제13회 중고 개인대회 | 1위 1위 |
| 18 | 문성여상 | 양인덕 (여)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 1위 |
| 19 | 배성여상 | 김은정 (여) | 제13회 중고 개인대회 | 2위 |
| 20 | 강원사대부고 | 박경철 (여) | 제21회 대통령기쟁탈전 | 2위 |

중 등 부

| 순번 | 소속 | 성명 | 비고 | 고 |
|----|------|------------|-------------------------------|----------|
| 1 | 예산중 | 유성호 | 제15회 소년체전 | 1위 |
| 2 | 영남중 | 박재성 | 제15회 소년체전 | 1위 |
| 3 | 현영중 | 오상명 | 제15회 소년체전 | 1위 |
| 4 | 동성중 | 최정복 | 제15회 소년체전 | 1위 |
| 5 | 제주중 | 강승수 | 제15회 소년체전 | 1위 |
| 6 | 고려중 | 강봉석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 1위 |
| 7 | 창덕여중 | 정현아 (여)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제1회 중고 개인대회 | 1위 1위 |
| 8 | 문산여중 | 진혜운 (여)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제13회 중고 개인대회 | 1위 1위 |
| 9 | 용곡중 | 원영숙 (여) | 제13회 중고회장기쟁탈전 제13회 중고 개인대회 | 1위 1위 |
| 10 | 동진중 | 황몽환 | 제15회 소년체전 | 1위 |

국 교 부

| 순번 | 소속 | 성명 | 비고 | 고 |
|----|--------|-----|---------|----|
| 1 | 성남제2국교 | 이재성 | 태권왕 겨루기 | 1위 |

| | | | | |
|----|--------|-----|----------------|----|
| 2 | 서울개포국교 | 황인서 | 태권왕 겨루기 | 1위 |
| 3 | 서울현강국교 | 박동철 | 태권왕 겨루기 | 1위 |
| 4 | 수원매원국교 | 원선진 | 태권왕 겨루기 | 1위 |
| 5 | 서울마천국교 | 장덕진 | 태권왕 겨루기 | 2위 |
| 6 | 서울선곡국교 | 정지상 | 태권왕 겨루기 | 1위 |
| 7 | 경기문산국교 | 서동성 | 체육부 장관기 | 1위 |
| 8 | 서울신석국교 | 김명근 | 체육부 장관기 | 2위 |
| 9 | 서울연목국교 | 원종석 | 체육부 장관기 | 1위 |
| 10 | 서울교동국교 | 천창영 | 체육부 장관기 | 1위 |
| 11 | 부천성주국교 | 정해성 | 체육부 장관기 | 2위 |
| 12 | 창주북대 | 임성규 | 체육부 장관기 | 2위 |
| 13 | 서울잠일국교 | 박정훈 | 체육부 장관기 | 3위 |
| 14 | 청주우성국교 | 김동민 | 국교연맹회장기대회 | 1위 |
| 15 | 서울옥수국교 | 최상동 | 국교연맹회장기대회 | 3위 |
| 16 | 경기용인국교 | 정광호 | 국교연맹회장기대회 | 3위 |
| 17 | 서울장곡국교 | 금의석 | 국교연맹회장기대회 | 3위 |
| 18 | 성남상원국교 | 최영석 | 국교연맹회장기대회 | 3위 |
| 19 | 서울미동국교 | 조남호 | 시범단 주장 (품새1위) | |
| 20 | 서울미동국교 | 권태구 | 시범단 부주장 (품새2위) | |

1987년도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

본회 노우종 운영부장 표창 박봉권 선수 우수선수상

대한 체육회는 지난 2월 16일 대한 체육회 10층 강당에서 1987년도 대한 체육회체육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공로상, 연구상, 지도상, 남녀 최우수선수상, 최우수단체상, 우수선수상, 우수단체상, 표창, 공로패 등이 수여됐는데 본 협회의 노우종 운영부장은 경기단체 및 시·도지부 장기근속 표창을 했고 종목별 우수선수상 시상에서 박봉권 선수는 태권도부

원에서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박봉권 선수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이며 '86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태권도대회 웰터급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남자최우수상은 탁구의 유남규 선수가, 여자최우수상은 육상의 임춘애 선수가 차지했다.

태권도 시범 선교훈련 세미나



국내의 선교활동을 통해 시대적인 선교사명을 감당하고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태권도인들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창단된 태권도시범 선교시범단은 「할렐루야 태권도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할렐루야 태권도단」의 구성은 세계 체육인 선교회가 주축한 2차에 걸친 태권도시범 선교훈련 세미나를 수료한 관장과 사범 중에서 2월 3일에 실시된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하였고 2월 5일 감독에 김강인 사범, 코치에 이백운 사범을 선출했다.

창단 예배는 3월 30일 오후 7시 30분에 체육인 교회 본당에서 갖는다.

할렐루야 태권도단의 교육 및 훈련은 매주 월, 화, 목, 금 4일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영적 훈련, 선교교육, 태권도 기술연마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 선교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말까지 각 교회(창성, 체육인, 은평선교, 구로장로, 용인장로, 능곡장로, 충현, 구로제일침례, 성락성결)에 찬양, 간증, 태권도 율동으로 선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선교 활동으로 각 교회 선교원 원아에게도 태권도 율동을 보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된 많은 사범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 전망이다.

할렐루야 태권도단은 해외 전도여행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양로원, 교도소, 고아원, 낙도 등을 방문 전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해외 전도여행은 4월에 1개월간 미주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며 워싱턴, 뉴욕에서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15일간 동안 주로 미국 교회와 각급 학교에서 시범

을 통한 선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 미국의 각 교회와 학교에 태권도를 통한 선교와 저변확대를 꾀함으로써 미국 내 많은 학교와 교회에서 태권도부를 신설하고 지도자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태권도사범 선교시범단 창단 「할레루야 태권도단」발족

금번 세미나의 초청 강사로는 김창민 목사 (충현교회 담임), 이광희 목사(필라델피아 빌라순복음교회담임) 김종기 목사(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담임), 서달수 목사(신천교회 담임), 김한식 선교사(한사랑 선교회 담임)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본부장사로는 이광훈 목사(체육인교회 담임), 방현강 전도사(이천 장로교회 담임), 엄운규 서울시 태권도협회회장, 김강민 태권도 국제심판이 참석하였다.

태권도사범 선교훈련 세미나에는 태권도 사범으로 선교 사명자, 기독교인, 태권도학과 기독교생,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태권도 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등록비 3천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체육인선교 후원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세계체육인선교회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제2회 태권도사범 선교훈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86년 10월의 제1차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총178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를 종목별 참가자로 나누어 보면 태권도인 127명, 합기도인 10명, 선교요원 20명, 그밖에 선교관계자 13명 등으로 태권도 선교훈련과정 수료자는 108명에 달하였다.

태권도사범 선교훈련 세미나는 태권도를 통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범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선교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일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사역에 자신을 헌신하도록 결단시키는데 있다.

태권도 기본 용어 일부 변경

국기원에서는 한글학회(한글학자7명)의 자문을 얻어 지난 2월 26일 심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거쳐 태권도 기본 용어 중 일부를 순수 우리 말 식으로 변경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태권도 기본 용어는 3월 1일부터 사용 실시된다.

심의 참석 임원은 다음과 같다.

홍종수(국기원 부원장)

김순배(국기원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강원식(연수원 부원장)

박해만(대한태권도협회 지도위원)

박명수(국기원 기술심의위원 부의장)

이규정(국기원 심사분과 위원장)

안해욱(국기원 기술과학분과 위원장)

김중영(국기원 편찬분과 위원장)

이택명(국기원 국제분과 위원장)

김영작(국기원 시범분과 위원장)

그밖에 사무국에서는 이장원 사무국장이 배석하였다.

변경된 태권도 교육 기본용어

| 변경 전 | 변경 후 |
|---------|------------------|
| 품 세 | 품새(앉음새)모양새, 짜임새 |
| 아 금 손 | 아 귀 손 |
| 연 속 차 기 | 이어차기(거듭차기, 섞어차기) |
| 앞 에 치 기 | 앞 치 기 |
| 두 발 당 상 | 두 발 당 성 |
| 호 신 술 | 몸 막 이 |
| 싸인(수신호) | 몸 짓신호 |
| 제비품막기 | 비틀어막기 |
| 자 진 발 | 잡 은 발 |
| 단 봉 | 짧 은 막 대 |
| 단 봉 | 막 대 |
| 단 도 | 짧 은 칼 |
| 장 도 | 길 은 칼 |
| 명 에 치 기 | 명 에 치 기 |
| 총 검 | 총 칼 |

태권도 학과1회 졸업생 24명 배출

경희대 체육과학대학

1기 졸업생

| | | |
|-------|-------|-------|
| 김 기 목 | 김 영 길 | 김 용 범 |
| 김 찬 호 | 박 호 상 | 송 석 홍 |
| 이 인 재 | 이 정 식 | 이 정 진 |
| 장 명 삼 | 주 진 곤 | 채 현 기 |
| 최 영 천 | 김 은 희 | 오 명 화 |
| 임 신 자 | 조 윤 경 | 전 오 순 |
| | | 최 선 자 |

경희대학교는 2월 23일 오전 11시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거행된 졸업식에서 24명의 태권도학과 졸업생을 배출했다.

남자18명 여자6명 등 총 24명의 제1기 졸업생들은 대학원 진학 2명 R.O.T.C 군입대 3명을 비롯한 일반 군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생들은 일선 체육관과 해당 분야의 지도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87년도 심판 보수교육 실시

3월 10~11, 국기원

국기원에서는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심판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날에는 경기규정 및 심판의 규정, 경기진행시 심판의 판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질의 응답식으로 황춘성 전무가 강의를 하였으며 11일에는 안영택 심판분과 위원장이 심판규정을, 신임 김영삼 경기분과 위원장이 경기규정을, 권경옥 기술심의회 의

장이 심판원의 자세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심판보수 교육에는 전국에서 총 240여명의 심판이 참석하였다.

제53기 지도자교육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제53기 지도자교육이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번 지도자 교육에는 총 146명이 수강하여 123명이 수료하였다.

금번 교육에는 기초체력이론, 태권도 이론, 태권도 실기와 교양일반에 관한 교육이 총 97시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특히 겨루기 실기강의 및 이론, 체육심리 및 아동심리, 트레이닝 원리 등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 3급경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폭넓은 교육이 실시되었다.

제53기 지도자 교육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민호 남궁윤석 신동준 박동렬 손용태
김진택 홍진국 윤석종 채현석 김병태
이기동 문숙현 전예연 한상철 신현무
김용태 장영기 심현섭 명규춘 최성일
임신자 장진태 최장수 최성수 박환배
이희녕 배준우 이영기 우형승 이현수

정부오 김연수 김춘배 윤현수 조준섭
우봉관 탁수덕 이기봉 유실근 정주갑
허철지 강승호 김학용 권장현 박달수
정진영 송재원 문광호 송영돈 이종호
장대회 강승길 김두성 이상원 최성근
이낙휘 김주경 강현태 윤여근 신훈
이영남 유인권 박노필 박지현 박재수
김두선 원동식 전오순 고길환 이정행
현상환 남승현 이원대 한기호 박종성
이종권 임재호 이재관 최선자 이재형
심우성 신동용 서봉석 광일렬 양종운
나병호 이태주 손병규 정현기 광정래
이명호 신형중 박창대 윤호현 김진홍
이성수 정창석 이영태 예병태 박지준
장중기 한명수 이유환 홍봉기 이지성
이수욱 김종호 김용섭 서정천 송경준
박정곤 이창욱 홍명운 김병구 정태진
김홍선 김희공 최덕규 김형건
이재덕 송재규 백재호

1986년도 제7회 회장배개최

재일 대한 태권도협회



재일대한 태권도협회는 지난 '86년 12월 14일 재일대한 겨류민단 대판부 본부 4층에서 제7회 태권도회장배쟁탈 선수권대회를 거행하였다.

이날 선수권대회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총 66명이 참가하여 거행하였다.

재일 대한 체육회관서 본부 회장 및 재일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인 홍성인씨는 63년도에 재일대한 태권도협회를 창설한 일본 내 태권도보급의 선구자이다.

일본은 세계 무도의 왕국이라고 할만큼 가라테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곳이라 그 어느 나라보다 태권도 보급이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재일태권도협회가 관동·관서본부를 두고 각지방에 태권도를 보급·확장하고 있다.

태권도 도장은 민단회관을 빌려

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오사카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 8개소에 이르고 동경에 1개소, 고오베에 2개소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 이후 무도왕국의 위치를 한국의 유도과 태권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내 준 뒤 한국의 무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홍성인 회장은「일본인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태권도인들이 이를 물리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가해야 하리라고 했다.

특히 일본내의 조총련계의 가라테인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국제태권도 일본지부의 형식을 띠고 선전을 하는 등 조총련계의 압력도 무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남북분단의 현실을 실감케 한다고 했다.



태권도 교본 발간 예정

미국휴스턴 박영돈 사범



태권도에 대한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태권도학을 연구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의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소망하고 있는 바이다.

그 중의 한 사람으로 미국 휴스턴 T. S. U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재학 중이며 Sanjasinto College 에서 태권도 강의를 맡고 있는 박영돈 사범은 현재 태권도 교본 발간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태권도인 중의 한 사람이다.

지난 '75년부터 '77년까지 목포덕

인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했던 박영돈 사범은 '77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 「도이취 스포츠 홀슈테」(독일체육대학)에서 체육학을 수학하였다. 그후 '79년도에 영국 태권도 협회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팀 지도사범으로 활동하다가 '79년도말에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다시 학문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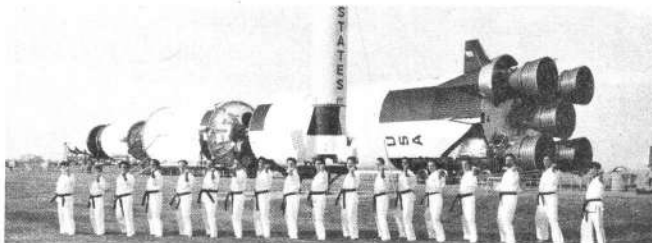
뉴욕 BROCKPORT 대학의 체육대학원에서는 장학생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반면 태권도 보급에도 앞장섰다.

BROCKPORT 대학의 체육과목에는 일본의 유도과 가라테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박영돈씨는 학생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 태권도를

알리고 태권도팀을 만들어 기반을 닦기 시작하는 등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 그 대학 총장과 면담하여 가라테 대신 태권도를 교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81년도 가을학기에 대학원을 졸업한 뒤 휴스턴 T. S. U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현재 학문에 열중하고 있으며 한편 태권도 강의를 맡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개인교장 A. B. C College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8일 귀국한 박영돈 사범은 태권도 교본제작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2월중순경에 발간될 태권도 교본은 대학의 태권도 교과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8올림픽에 참가 희망

호주 이윤휘 사범



호주에는 약 5만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있다. 많은 한국인 사범들이 현지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79년도에 호주 볼리스벤에 있는 퀘스랜드주의 경찰 태권도클럽 사범 및 체육교사(코치)로 초청되어 출국한 이윤휘 사범은 '81년도부터 현재까지 퀘스랜드주 태권

도 협회장으로 호주의 태권도 보급에 앞장선 인물이다.

현재 이윤휘 사범은 볼리스벤 시내에 본관을 두고 30여개의 지관에서 1,000여명의 호주인에게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 사범은 수련생들 사이에 "타이거 리"로 통한다.

경희대 체육과를 '71년도에 졸업한 이 사범은 '67년에서 '71년까지 4년동안 전국체전에서 밴텀급 2회, 웰터급 2회 등 연속 4회의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실력파로 '73년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그후 육군대표 선수단을 거쳐 미 2사단 태권도 사범으로 2년 6개월간 근무 후에 호주로 출국했는데 서울에서 열리는 88올림픽 때는 호주 출국 10년제를 맞이한다고 한다.

88호주 태권도대회를 볼리스벤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켜 호주대회의 패권은 물론이거니와 88대회때 호주 태권도팀이 초청된다면 좋은 경기를 치루어 태권도가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호주에는 7개의 주가 있는데 그중 퀘스랜드주협회장으로 있는 이 사범은 협회에 등록된 한국인 사범 20여명을 협회에서 교육시켜 코치카드를 발급하여 각 지관의 사범으로 기용하고 있다.

체육인으로서 몸이 말을 들을 때까지 도복을 입고 싶다고 한다.

스포츠 잡지 「Tae Kwon Do」 발행

브라질 김윤식·오주열사범

브라질에 태권도 보급 앞장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지닌 국가인 브라질은 축구로 유명한 곳이며 세계 제1의 코피생 산국이기도 하다.

축구도 세계를 열광케 하는 브라질에 태권도가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나 이제는 그곳에 태권도 전문잡지가 김윤식·오주열 사범에 의해 발간되어 태권도에 대한 소식을 전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주로 태권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특히 창간호에는 한국의 태권도를 상징하는 국기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 기본 동작에 대한 사진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 있으며 이밖에도 각종 태권도 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합기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춘향전」도 재미있게 실어 인물평가를 하고 있다.

sports Tae Kwon Do

A REVISTA DAS ARTES MARCAIS ANO 1 Nº 1 NOVEMBRO 1986

Cd-3000

HAP KI DO

Tudo sobre o
TAE KWON DO,
o mais novo
esporte olímpico

Técnicas de
ataque, defesa
e defesa

Nesta edição
os campeonatos
paulista e
brasileiro de TKD

Receita para fazer
um campeão

Técnicas de
quebramento

Como ser um
bom desportista

E mais:
o depoimento do
brasileiro melhor
colocado no
campeonato
Mundial de TKD

POSTER
GRÁTIS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태권도 시범

사우디아라비아 이무진 시범



찬조시범을 보인 이창길군(중앙)

1986년도 아랍 경찰의 날 기념행사가 거행된 지난 1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역 담맘시 마르크스 락카시립 경기장에서 한국의 태권도는 그 기개를 펼쳐 보임으로써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메드 빈왕자를 비롯하여 고위 장성 및 지방유지와 1만여명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 막이 울랐고 기마병을 선두로 밴드부, 교통 싸이카, 자동차 행렬이 이어졌고 오토바이 묘기와 왕자 경호원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그후 한국의 태권도가 소개되어 첫시범으로 담맘 한국인학교4학년 재학생인 이창길(11세)군이 찬조시범으로 참가하여 태권도 품세 태백형을 선보였으며 멋진 송관격파시범 등으로 한국 어린이의 기개를 펼쳐보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디락스포츠클럽의 코치인 이무진 시범(7단)과 경찰유단자의 단도술과 호신술 시범이 있었고 이디락클럽 회원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는데 현지

신문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 취재하는 등 태권도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다.

이날 찬조시범을 보인 이창길군은 이무진 시범의 아들로 6년전 이코치를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로 왔는데 6년 전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지난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와 국기원에서 2품심사에 응심하여 합격하였다.

이창길군은 어린이 태권도인으로 현지에서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으며 태권도를 계속 수련하여 부친의 대를 이어 훌륭한 태권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이디락 클럽의 태권도 회원

쿠웨이트 대표팀코치

쿠웨이트 주상헌 사범



세계 최대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쿠웨이트는 현재 태권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

지난 해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는 5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출전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쿠웨이트 태권도 대표팀 코치로 한국에 왔던 주상헌 사범은 '82년도에 쿠웨이트 내무성 초청으로 파견되어 내무성산하 VIP경호대에서

경호요원의 태권도 지도를 맡아 왔다. 그리고 '83년도에 쿠웨이트 태권도협회가 창설되어 쿠웨이트 태권도협회 대표팀 코치로 지금까지 지도하고 있는 쿠웨이트 태권도의 실질적인 대들보이다.

지난 6회 덴마크 세계 태권도대회때 10명이 전체급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고, 6회 마닐라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는 10

명이 전체급에 출전하여 동메달 3개를 따내기도 하는 등 꾸준히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여 저력을 다져오고 있다.

주상헌 사범은 국내전적이 화려한 국가대표 출신인데 '73년 제8회 대통령기 우승, '74년 제1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우승, '78년 제5회대학연맹전 1위, 79년 대만 친선경기 한국대표선수로 참가하기도 했다.

주사범은 처음에 언어불통과 전혀 다른 음식 때문에 고생을 했으나 다른 나라에서 태권도를 처음 보급하는 사범들보다는 훨씬 쉬운 편이었다고 했다.

그것은 주사범의 전임자로 현재 쿠웨이트 국방성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김봉근 사범이 태권도 수련생들을 철저하게 지도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쿠웨이트 대표팀을 훈련시켜 88올림픽 때에도 참가하여 우수한 기량을 펼쳐 보일 것이다. 주사범은 쿠웨이트 태권도가 머지않아 세계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에 차 있다.

지도자상 (像)

정찬성 / 편집분과위원장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를 이어갈 새 사람이므로 귀하게 여기고, 옹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키우고, 인격 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좋은 환경에서 크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은 1957년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발표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의 9개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의 일부이다. 수많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명사(名士)들은 국가의 장래를 언급할 때 심금을 울릴 정도의 형용사를 구사하여 어린이의 성장에 관하여 교육적인 염려를 아끼지 않는다. 교육 법이나 학자들의 성선(性善)이나 성악(性惡)과 같은 논란은 차제하고서라도 확실히 미분화, 미완성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생각해 하는 현실이다. 교육의 장(場)을 크게 나누어 가정교육(家庭教育), 학교교육(學校教育), 사회교육(社會教育)으로 나눈다면 우리 어린이 들은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하얀 종이위에 갖가지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 잘못 그려진 그림을 색칠까지 완성된 다음에 수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며, 옷단추를 처음에 알맞게 끼워 주어야지 빼돌려 끼운 단추를 다시 풀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같이 시간과 노력이 배가될 것이다.

▲몇년 사이 우리주위에는 눈에 띄일 정도로 많은 태권도 도장들이 개설되고 있으며 전과는 달리 수련생의 대부분이 어린이층 임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좋은 의미로 해석 한다면 태권도 인구가 그만큼 저변확대 되었고, 수련 연령층이 다변화 되었으며, 조기 교육의 장으로서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천개의 도장에 어린이 수련생들은 수십만

에 이른다. 인구 밀집지역과 주택가, 아파트촌 어디를 가나 태권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에게 사범님들은 깨끗한 도복을 입고 항상 바른 말, 바른 행동 등 일거일동에 모임을 보임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마음으로부터 「나도 사범님처럼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면 태권도 교육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접하는 대상에 대한 강한 모방심을 가지고 있다는 극히 평범한 사실을 인식할 때 태권도 사범님들의 위치가 얼마만큼 중요함을 알게되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도복을 여미며, 태권도를 지도하는 무명의 태권도 사범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뜨거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간혹 경기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판정시비나 관중들 앞에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나온 선수에게 사랑의 매가 아닌 감정적인 비난을 일삼는 지도자, 판정에는 승복하지만 한번 쯤 이의를 제기해 이를 권위의 수단으로 남는 일, 심지어는 대군단을 거느리고 위협조의 응원을 가하는 일 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태권도가 정신과 육체의 수양을 위한 도(道)에서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경기스포츠로 화려한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에 본래의 태권도 정신이 2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자기의 완성을 도모하고 인격을 수양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책무가 오늘을 사는 태권도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할 때에 비단 경기에서 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분야에서 태권도인이 과연 살아갈 자리가 어디고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규인/홍보실장

태권도지 제60호를 만들면서 새삼 아쉬움이 밀려온다. 회갑연이라도 차리듯 알차고 풍성한 태권도지가 되도록 다른 때 보다는 더욱 더 정성을 기울였는데 차린것만 많지 먹을게 없는 잔치상처럼 더욱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생각만이 남는다.

그러나 태권도지가 창간 만15주년이요 60호 회갑이라면 적지 않은 세월의 연륜 속에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회갑지를 맞이하니 감개 무량하다

그간 태권도지에 관심을 가지고 옥고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마다 앉으시고 기꺼이 글을 맡아 주신 각계의 제현님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특별한 전문 식견도 없이 태권도지와 부딪친지 벌써 5년여...「서당犬3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그동안 태권도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장이라면 원근불문하고 반겨주는지? 싫어하는지? 를 아랑곳 하지않고 나름대로 동분서주해 봤으며,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위어 가면서 20여권의 태권도지를 발간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태권도계의 글쟁이(?)가 되었으며 태권도 취재기자(?), 태권도 사진기자(?), 편집쟁이(?)도 되어 석달에 한권의 책을 제조하는 기계(?)가 되었나 싶다.

책을 발간하고 나서는 늘 내가 좀더 신경을 더쓰고 조금만 더 구두끈을 졸라 매면서 뛰여 다녔었더라면... 하는 자성과 함께 그래도 윤전기 돌아가는 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하다가 깜박 졸다가...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것. 아마도 능력의 소치요 한계를 느껴볼 때도 있다.

그러나, 책이 외양으로나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칼라 페이지가 30여면이 되었고 지질(紙質)도 고급 서적지로 바뀌었고, 원고료도 수준급인 3,000원선이 되었고... 형식은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러한 기반 위에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내용을 보다 알차게 꾸미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의 내용을 알차게 꾸미는 일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의 책임은 편집 간사인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태권도인 여러분이기때문에 여러분의 책임 또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태권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오늘을 사는 태권도인 여러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노예해방의 신화를 남긴 아브라함 링컨의「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우리 사범들은 인지하고 협회나 국기원은「태권도인의 태권도인에 의한 태권도인을 위한」곳이며 이곳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복(公僕)으로서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인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태권도지 역시 태권도인에 의한 태권도지가 되어야 함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객관 타당성있고 명분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시면 본회의 홍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은 문을 활짝 열고 태권도인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호부터는「메아리」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좀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건설적인 태권도인의 참된 목소리가 쌓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태권 어린이 탐험대 전남 해남에서 임진각까지

강원규 / 태권 어린이 탐험대 대장
성동구 옥수동 어린이 체육관 관장



국토 도보종단

태권어린이 탐험대는 1월 1일 우리나라의 남쪽 땅끝인
해남에서부터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18일만에 걸쳐 도보 종단에 성공하여
태권 어린이의 용감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과시했다.
태권어린이 탐험대는 강원규 대장을 선수로 하여 대학생 지도자 2명 등 26명으로 구성되어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국토 종단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어린
이(청소년) 들만으로 구성된 탐험
대가 남쪽 땅끝인 전남 해남에서
휴전선의 임진각에 이르는 약600km
(1천500리)를 걸어서 국토종단 탐
험에 도전하여 18일만에 걸친 추위
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성공함으로
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에는 5명으
로 구성된 어린이 탐험대가 한반도
의 동서를 가르는 도보횡단 (인천
→동해→울릉도)에 성공한바 있다.
현대판 톨스토이의 모험을 방불케
한 이번 국토 종단에 참가한 어린
이 탐험대는 모두 태권도 유품단
자들이다.

어린이들에게 인내력과 극기심
을 길러주며 국토 사랑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된 국토도보종
단탐험에는 서울, 수원, 부천과 군
산, 해남 어린이가 골고루 참가했
다.

단장을 비롯해 국민학교 어린이
13명, 중학생 9명, 지도자 3명등
대원 26명은 새해 첫날인 1월 1
일 한반도 남쪽 최남단인 전남 해
남군 송지면 송호리 갈두(土末)마
을에서 영암→광주→담양→전주
→논산→부여→공주→천안→안성

→수원→서울→임진각까지의 국토
도보종단 탐험길에 나서게 되었다.

탐험대원들은 이번 도보종단을
위해 출발 2개월 전부터 5개대대
로 편성하여 횡단 탐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응훈련을 받아오며 탐
험의 성공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1986년 12월 29일에 탐험 대원
들은 부모님께 국토종단에 성공할
것을 다짐하여 새배를 미리 드리
고 출발점인 해남으로 내려와 최
종 장비점검과 현지 적응훈련을 마
쳤다.

대망의 1987!

새해 첫날의 눈부신 햇살을 받
으며 국토종단을 시작했다.

탐험대원들은 탐험길에 오르기
에 앞서 멀리 각자의 고향을 향하
여 부모님께 우렁찬 목소리로 새
해인사를 드리며 각오를 새롭게 했
다. 그리고 해남군의 군수님, 송지
면 면장님과 갈두마을 사람들의 격
려와 전송을 받으며 승리의 합성
을 외치고 남쪽 바다의 찬란히 떠
오르는 아침햇살을 받으며 토말
(土末)사자암에서 승전고를 울리
고 행진을 시작했다.

새해 첫날의 남쪽 날씨는 우리



한반도 남쪽 최남단인
해남의 갈두마을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국토종단길에 올랐다.

탐험대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했으며 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힘찬 발걸음을 따라 반달할아버지인 윤극영선생님(동요「반달」의 작곡가)께서 탐험대의 성공을 위하여 지어주신 「탐험의 노래」가 씩씩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오후가 되고부터는 사기가 높았던 대원들이 한 둘씩 다리를 절룩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고생을 해보기는 처음이라 대원들은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어 하면서도 기를 쓰며 행군을 계속했다. 대원들은 국토종단 탐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간신히 첫날 행군을 마치고 자신들의 잠자리를 찾아 들어 아픈 다리를 만지고 물집이 생긴 발바닥을 주무르며 잠을 설치기도 했다.

1월 2일 탐험 이틀째 날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 비까지 뿌리기 시작하였다.

탐험대원들은 어떠한 약천후와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중단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고 비를 맞아가며 강행군을 하였다. 점점 더 심하게 몰아치는 비바람으로 긴급 조치를 발동하여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대원들에게 덮어쓰게 하였다.

어린이들이 절룩거리며 비닐을 뒤집어 쓰고 걷는 모습을 보는 지나가던 사람들은 탐험대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으나 어린이들이 국토종단탐험길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대원들에게는 이날이 가장 어렵고 힘든날이었기 때문에 가장 잊지 못할 날들로 기억에 남아 있으리라

잠시 휴식을 취하며...



본다.

갈수록 행군은 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어린 대원들은 그만 포기하고 그자리에 주저앉아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솟아났겠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나면 앞으로 아무것도 자신있게 해나가지 못한다는 결의로 서로가 격려하며 참고 견디며 전진해 나갔다.

한편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

와 맑은 공기는 탐험대원들에게 아늑다운 국토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했으며 지나는 마을마다 탐험대를 반겨주어 포근한 인정이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읽게 하였다.

광주를 지날 때에는 전라남도 도지사과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대원들을 격려하며 볼펜을 기념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출발하여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걸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 배낭과 장비를 둘러메고 도로를 걷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며 비바람과 눈보라를 헤치는 탐험길에서 신발과 옷은 젖고 날이 저물면 기온이 떨어져 고사리같은 손발이 얼기직전에 도달할 때도 많았다. 더우기 힘들었던 것은 도보행군을 마치고 철길을 찾지 못할 때는 너무나 답답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각 마을의 이장님들과 동네 어른들의 도움으로 따뜻한 식사는 물론 젖은 신발까지



광주를 지날 때는 도지사가 나와 격려해 주기도 했다.

밥세 말려 주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행군이 끝나는 저녁이면 탐험대원들은 지방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위문공연으로 태권도시범, 인형극 공연, 악기연주회, 동화들려주기 등으로 지방 어린이들과 친교를 다지기도 했다.

예정했던 날보다 행군속도가 늦어질 때는 계속 행군을 강행하면서 비상용 식량인 생라면으로 배를 채우며 걸음을 재촉하기도 하였다.

탐험대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국토종단 탐험길에 나섰지만 어렵고 힘든 때마다 집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어린이도 있었다.

대원들은 잠자리에 들기전에 매일 "오늘"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 그날 느꼈던 생각, 자신들의 의견 등을 나누고 부모님 선생님께 편지를 썼고 일기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탐험대원들이 매일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집에서 식사 때 밥알을 흘리고 편식을 하던 버릇도 반성했고 양념도 안들었던 우거지 맨김치에 밥을 먹었을 때에 꿀맛을 맛보기도 했다.

또한 어리광만 부리며 부모님에게 의지하던 대원들은 자신이 할 일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또한 한명의 낙오자 없이 탐험에 성공하기 위하여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는 모습은 참으로 칭찬할만 했다.

"중도 낙오자는 짐으로 후송하겠다"는 대장의 말에 대원들은 지금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이정도 일갓고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치기도 했다.

광주에서 안성까지의 55km의 행군은 밤 12시까지 야간행군이 실시



대원들은 잠자리에 들기전에 매일 「오늘」이란 주제로 하루를 성찰해 보기도 했다.

되었는데 눈보라 속에서 지친 발걸음을 재촉하며 누가 먼지인지도 모르게 교대로 노래를 부르며 걷는 모습은 미래의 추억이 될 어린이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탐험대원들은 단순히 도보 국토종단에만 그치지 않고 자연 관찰조, 지리 관찰조, 건설 수집조, 특공대기조(비상시활동) 등으로 나누어 지방의 문화 풍습을 배우고 각 지방의 특색있는 동물, 식물, 토산물 조사 및 건설채집 등도 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해남의 대흥사, 영암의 월출산과월남사지석탑, 광주의 의병장 고경면선생을 모신 포충사, 죽제품 명산인 담양, 전라북도 전주의 한지마을, 충청남도 논산의 관촉사, 유적지 유물이 많은 백제 고도의 수도인 부여, 부소산성, 3천궁녀의 한이 남아 있는 백마강 낙화암, 시원한 약수에 고란초로 널리 알려진 고찰인 고란사, 공주의 무열왕릉, 천안의 유관순 누나의 생가, 독립

기념관, 용인 민속촌, 동양최대의 고층빌딩인 63빌딩...전국의 명승지 유적지 등을 찾아보고 산지식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20여일에 걸친 긴 여정을 끝내고 휴전선이 바라보이는 임진각에 가족들의 박수를 받으며 도착하였을 때는 대원들 모두가 스스로 해낸 일에 대해 감사하며 부모님의 품속에 안기며 감격의 눈물을 펄펄 쏟기도 했다.

탐험대 어린이들은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어린이들이 해냈다는 보람과 감격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대원들은 탐험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대장들, 부모님, 선생님들의 격려와 기도, 각 지방의 동네 어른들, 고생한다고 지나던 탐험대원들을 붙들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야단치면서도 방으로 데리고가 몸을 녹이게 해주며 라면을 끓여 주시던 아주머니, 힘들 때



눈비 맞은 옷을 모닥불에 말리며 끝까지 한명의

“어린이 만세”
“국토도보
종단탐험만세”
“탐험대 만세”



긴 여정 끝에 임진각을 앞두고...

꺼내 먹으라고 배낭에 고구마를 넣어 주시던 할머니, 먹고 힘내라며 찌게거리로 고기를 넣어 주시던 정육점 아저씨, 어린이들이 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 어린이 벗회 회원들, 탐험성공을 위하여 훈련장비를 보조해 주신 무술사(도복전문업체), 63빌딩 전망대, 아이맥스 영화관, 수족관 등을 관람시켜 주며 항공탐험, 해양탐험으로 안내해 준 대생기업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임진각을 끝으로 국토종단을 마쳐야 하는 아쉬움으로 북돋아줄



늑오자도 없이 탐험에 성공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바라보며 빨리 통일을 이루어 백두산까지 종단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어린이들과 가족들 모두 입을 모아 「우리의 소원」을 부르며 국토종단 탐험을 마쳤다.

“탐험대 만세”
 “국토도보 종단탐험 만세”
 “어린이 만세”

■어린이 탐험대 회원모집■

어린이 탐험대에서는 여름 방학 기간에 서해 백령도를 출발하여 인천을 경유, 동해 독도에 이르는 횡단탐험을 실시한다.

- 일정 : 1987년 8월 1일~15일
- 참가신청 : 5월 30일까지
- 참가대상자 : 태권도 유봉자이상으로 국교 4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에 한한다(해의 교포 자녀 환영)
- 문의전화 : 232-5557



임진각을 끝으로 국토종단을 마치는 아쉬움으로

빨리 통일을 이루어 백두산까지 종단하자며 「우리의 소원」을 부르는 탐험대원들.

여성 태권도를 말한다

여성태권도의 미래를 향한 제언

사 회 : 한규인 (협회 홍보실장)
참석자 : 전애연 · 임신자 · 최선자 · 문숙현 · 전오순
장 소 :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태권도인
 (좌측부터 최선자, 전오순, 임신자, 문숙현, 전애연)

국기원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에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제53기 지도자 교육에서 총 149명의 수강생 중에 5명의 여자 수강생이 있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태권도의 활성화 방안과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운동으로 태권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태권도를 하는 후배들에게 여성태권도의 구심점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사회 지도자 교육을 함께 받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입니까?

▲**전애연 :** 임신자, 최선자, 전오순 선수는 경희대 동기생들이고 저와 문숙현 선수는 유도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회 지금은 같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험에서 같이 뛰었던 경험은 없습니까?

▲**전애연 :** 저는 임신자 선수와 같은 체급인 밴텀급이었습니다. 4년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임신자 선수와 대전했는데 임신자 선수가 그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회 선수시절에 라이벌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견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전부 대학을 졸업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임신자**: 올해 2월에 저와 최선자, 전오순 선수가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1기생입니다. 유도대의 문숙현 선수도 올해 졸업했고 전애연씨가 지난 86년도에 졸업한 선배입니다.

이렇게 전부 태권도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의 금나무체육관에서 코치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애연**: 졸업후 지난 1년동안 집안사업을 도와 왔습니다. 지도자 교육 후 일선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권도 선수로서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것이 사회생활을 이끌어 오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할까요. 다만 후배들에게는 태권도 이외의 자격증을 소지하여 취직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노력하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문숙현**: 저는 지금 일반 도장에서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련생들의 지도에 있어서 선수 지도와 일반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예는 지도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폼세 지도 등에서는 자세가 달라지고 강약의 강도가 저하가 배우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여성태권도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하는 최선자(좌측), 문숙현(우측)양

지도자 교육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제 스스로 지도 구상을 하게 되므로 자신감도 불습니다.

▲**임신자**: 여성태권도 등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졸업한 저희들로서는 경기 태권도의 초창기 선배들이며 태권도학과 1기생으로서 책임감이 큼니다. 더군다나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태권도 전문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후배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태권도의 사회인식이나 진로방향 등 많은 갈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회 여성 태권도인의 진로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임신자**: 여성태권도인들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여성태권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태권도인들로서는 여성태권도인이 단합된 힘으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연맹」이 재단생각여야 되리라 봅니다.

▲**전애연**: 정책적인 방안에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에서 여성종목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만 미미하게 실시되는 여성태권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여성태권도를 학교 등에서 육성하게 된다면 여성태권도 선수출신들이 태권도 지도자들로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선자**: 실질적으로 여성태권도를 아끼는 분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권도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성들이 여성태권도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태권도인의 모임 창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여성태권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여성태권도의 진로에 대한 여러 방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성태권도의 역할에 대하여 얘기해 보기로 하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변화를 많이 겪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주생활

여성 태권도의 현실은 어렵고 문제점들로 가득차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권도를 수련하며 가꿔온 인내심과 불굴의 의지, 협동심이 다시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뭉쳐진다면 여성태권도의 발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지도자
교육수업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즐기는 모습

양식의 변화, 생활도구와 편의시설의 발달, 핵가족화 등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여자도 여가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여성의 여가 시간에 기인된 욕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기계화, 공법화의 현실 속에서 주부들의 건강상태는 질병발생과 더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처럼 스트레스를 비롯한 모든 건강문제의 요인은 결국 운동부족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성의 체육활동—특히 태권도를 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연: 태권도가 사회체육으로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태권도 전문인력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며, 기계화 공업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주부들의 건강상태는 질병발생과 더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모든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들을 지도할 여건이 필요하고 이를 지도할 여성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들어서서 일반 여성이나 주부들 사이에 헬스클럽을 중심으로 에어로빅체조, 췌즈, 수영, 테니스, 조깅 등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의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신운동을 할 수 있고 정신적인 면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련은 여성에게 좋은 효과를 주리라 봅니다. 사회주부들의 건강관리는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고 가정의 건강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연결이 되며 지역사회의 건강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만 조성된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봉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지도자 교육을 마치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최선자: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평소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만 집중되어 있는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고향인 전라북도에 내려가 학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방의 여성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부딪쳐 보았더니 여성태권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전국체전에 여성경기 종목이 채택되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88올림픽에서 남녀태권도가 시범경기를 치루게 되고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여성태권도 경기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때 전국체전에서 여성경기 종목 채택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한발 앞서 준비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방태권도를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하고 전력투구해 볼 생각입니다.

▲전오순: 지도자 교육 후 2급 아카데미까지 수료한 뒤 직접 팀을 맡아 후배선수를 키우고 싶습니다. 학교팀이나 실업팀 등에서 수련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제 자신의 능력부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자: 후배들에게는 좀더

나은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외국에 나가 계속 공부하며 견문을 넓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애연: 태권도의 실기위에 이론적인 공부의 병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태권도의 체력측정이란 측면에서 계속 공부할 계획입니다.

▲문숙현: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 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워 가르치기 전에 지도능력을 터득하는데 노력, 제 나름대로 소화한 이론체계를 정립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신체적으로 태권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여성과 태권도에 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태권도가 권익을 찾고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성연맹의 부활에 건인차 역할을 해야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스포츠란, 태권도의 정신과 철학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내용과 동기를 주고 신선한 충격과 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 태권도의 현실은 어렵고 문제점들로 가득차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권도를 수련하며 가꿔온 인내심과 불굴의 의지, 협동심이 다시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뭉쳐진다면 여성태권도의 발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88올림픽에서 남녀태권도가 시범경기를 치루게 되고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에 여성태권도 경기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때 전국체전에서 여성경기 종목 채택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여성태권도의 권익을 찾기 위해선 여성의 구심체부터 다져야 한다는

전애연, 임신자, 전오순양

지도자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강원식/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부원장

지도자 교육은 태권도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태권도인들에게 실시되는 과정 중의 제1단계이다.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는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고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이론 및 지식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태권도 교육 일선 현장에는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수련대상이 과거의 성인 중심에서 유·소년 중심으로 바뀐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태권도 수련생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련도장이 늘어나게 되고 지도자 역시 많은 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면적인 변화에 못지 않게 내면적으로는 태권도 수련시 지도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태권도 수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태권도를 배우게 되는 동기가 주로 호신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 태권도 교육은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여 활발하고 명량한 성격이나 자신감있는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성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태권도에 있어서 태권도 선수들은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히 경기를 치루며 정신적·체력적 단련은 물론 상급학교 진학 및 사회진출의 기틀을

다지기도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태권도 경기를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련생들이 태권도 수련을 하는데에는 단순히 기술습득에만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격의 형성이라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태권도 교육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태권도 수련이 태권도 지도라는 측면에서 태권도 교육으로 가치가 전환되었음을 뜻하게 된 것이다.

태권도 지도가 태권도의 기술을 전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태권도 교육이란 태권도 기술의 전수 및 전달,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지도와 수련 과정을 통하여 인간교육을 형성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권도 교육이란 호신의 무술인 태권도를 인간교육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그 영역을 넓혀간 하나의 행동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태권도인들이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태권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일생을 불태우려는 뜻을 가졌다면 이러한 태권도 교육의 이념을 이해하고 지도자로서의 철학을 확립하여 지도자로서의 내일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각종 스포츠 및 신체활동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체육활동 그 이상이며,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또한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인격의 형성, 교양을 연마함으로써 사회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사회성을 키우는데 이바지 한다.

이처럼 사회가 태권도를 비롯한 각종 체육운동에 기술교육만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에서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내실을 다지는데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의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도자의 자질과 실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 실기의 지도 능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체육이론에 대해서도 폭넓고 깊이있는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자 교육과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꾀할 수 있는 역

량을 고양시키며 이로서 사회일반 및 태권도 수련생으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도자교육에는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 외에도 태권도 교육장인 수련도장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실시한다. 즉 도장의 정비와 분위기의 쇄신, 교육방법 지도와 각종 교육자료 확보 등 태권도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53기 지도자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과 목 | 답 당 |
|--------------------|------------------------------------|
| I. 기초체육이론 | |
| 1. 체육원리 | 김지학 (단국대학교수) |
| 2. 트레닝의 생리학적기초 | 김진원 (교원대학교수) |
| 3. 체력육성의 원리 | 현우영 (인천대학교수) |
| 4. 체육심리학 기초 | 류정무 (서울대학교수) |
| 5. 생체역학 | 황인승 (연세대학교수) |
| II. 태권도 이론 | |
| 1. 태권도사 | 정찬호 (단국대학교수) |
| 2. 태권도 정신론 | 이종우 (세계연맹부총재) |
| 3. 태권도 지도법 | 정찬호 (단국대학교수) |
| 4. 경기론 | 강원식 (연수원 부원장) |
| 5. 심사운영 | 김순배 (국가원기술심의회위원장) |
| III. 태권도 실기 | |
| 1. 용어 및 동작의 기본 | 박해만 (협회지도위원) |
| 2. 품새론 | 김순배 (국가원 기술심의회위원장) 박해만 (협회지도위원) |
| 3. 겨루기론 | 이승국 (한체대학교수) 김세혁 (동성고 교사) |
| IV. 교양일반 | |
| 1. 예의규범 | 홍종수 (국가원부원장) |
| 2. 사범론 | 이금홍 (세계연맹실행위원) |
| 3. 영어 술어 | 조희석 (세계연맹국제부장) |
| 4. 응급처치 | 석일원 (태릉훈련원 물리치료사) |
| 5. 사회체육특강 | 김종선 (이화여대학교수) |
| 6. 올림픽 경기 | 전상린 (SLOOC 국제담당차장) |
| 7. 의식교육 특강 | 정세구 (서울대학교수) 엄운규 (협회부회장) |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이 태권도 품새를 재점검해 보고 있다.

태권도 교육의 시대적 사명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태권도 교육의 이념정립과 교육내실화의 조건확보라는 두가지 외에도 교육체제의 정비를 들 수 있다.

현재 일선 도장이나 체육관은 개인적인 도장관리 및 교육관리 체제로부터 점차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체제에 가감도록 변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은 태권도인들은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현대 사회에서 태권도가 할 수 있는 정신 교육적 측면과 체력증진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인들이 앞날의 태권도 주역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순히 태권도인으로서의 생각을 탈피하여 태권도 교육자라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하며

공부하는 자세로 생활을 해야한다.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태권도인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교육역량이 높아질 때 태권도 교육의 내실화는 이루어 지는 것이며 이로써 태권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모하리라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태권도 교육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태권도 교육은 사회발전의 구심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곧 국기 태권도의 계승, 발전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진다고 본다.

본 연구원에서는 지도자 교육과정을 통하여 태권도인들이 수련생의 입장에서 닦아온 기술을 지도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실기와 이론, 각종 체육 이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화 흡수함으로써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태권도 교육론 (1)

태권도가 현대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교육적 가치이다. 현재의 한국태권도의 중심적인 흐름은

태권도 사회 도장 교육이다. 그러나 사회도장 태권도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회도장 태권도 교육의 내실화,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몇가지 원론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양진방/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교학과장

I. 도장 태권도 교육

한국 태권도의 중심은 사회도장 태권도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내의 태권도를 몇가지 부문으로 나누자면, 여러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겠지만 뚜렷하게 성격이 구분될 수 있는 분류로서 「군대태권도」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를 위한 팀 태권도」 그리고 「사회도장 태권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유형의 태권도 가운데서 한국태권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문은 사회도장 태권도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도장태권도가 갖는 전통성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의 태권도의 발전이 도장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태권도 수련의 전형적인 장소 또는 기관으로서

도장이 자리잡혀 있다.

두번째의 이유로서는 태권도인을 배출하는 양적인 측면에서 도장이 압도적이며 수련생의 구성내용 역시 다양한 점을 들 수 있다. 때문에 태권도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재정적, 인적 요인과 그밖의 많은 요인들이 도장체제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고 있다.

세번째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도장교육의 대상자들이 그 수련동기가 순수하며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에 가장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체제 자체가 교육적 목적에 가장 충실하다는 점이다.

사회도장 태권도 교육의 건전한 육성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것 처럼 한국 태권도에 있어서 사회도장은 그 기간부분이며 가치의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 태권도의 미래에

대한 승패의 판건은 도장 태권도 교육의 건전한 육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권도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또 그 발전이 지속적인 것이 되려면 태권도계의 구성이 피라미드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일 아래층이 가장 두텁고 넓은 대상 영역을 가진 사회도장 태권도가 자리잡고 그 속에서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뜻이 있는 태권도인들이 학교의 태권도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학교 태권도부가 활성화 되고 그 가운데서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학교의 대표팀을 형성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구조

이러한 구조에서 각층간에 기술이나 수련의 내용, 성격 등이 크게 차이가 없이 기술의 수준과 수련의 정도만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되어야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권도계의 구조는 이상적인 것에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사회도장 태권도는 경기를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팀의 태권도와 기술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거의 단절되어 다시피 되어 가고 있으며 그 성격면에서도 양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사회도장 태권도는 수련생들의 구성이 자연령화 되고 성인 수련생들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도장의 수적인 증가에 따라 기술교육의 수준도 낮아져 수련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냉철하게 반성한다면 태권도를 배워 보았으므로 태권도를 싫어

하고, 태권도를 무시하는 태권도인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도장태권도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수준 향상 또는 내실화, 장상화의 방안들이 진지하고도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또 모색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차과제는 태권도 교육의 이념 정립이다

전통적인 도장태권도 교육의 이념은 「기술의 진수」이다.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 수련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태권도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 호신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태권도의 전통적인 교육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태권도 교육에서도 인간 교육이 중시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체계적으로 태권도 교육의 체제와 방법 속에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기술전수의 이념」마저도 도장이 많아지고 수련생이 저연령화됨과 같이하여 희미하게 되어가고 있다. 무엇을 위하여 이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의식이 없는 채로 짝여진 동작을 무의미하게 진도위주로 행할 뿐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결국 현재의 태권도 교육은 무이념적으로 표류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태권도 교육의 이념이란, 간단히 말해서 「태권도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성」 또는 「일반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즉 태권도 교육이념이란 태권도의 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어떠한 상태로 변화·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태권도 교육의 일반적 목적도 도장태권도 교육에서 명시적으로 내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태권도 교육의 필요성이나 가치 등이 주장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어떠한 분야의 것이든 교육이 그 가치와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 받으려면 「무엇을 위하여(교육 목적) 어떤 내용을(교육내용)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교육방법) 가르키며, 그 결과(교육성과)는 무엇이었다」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태권도 교육은 가장 먼저 해명되어야 할 「무엇을 위하여」 즉 「교육의 목적」이 불투명한 것이다. 목적이 불투명한 교육이 그 내용이나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성과를 말할 수는 더욱 없을 것이다.

II. 태권도 교육의 목적

태권도는 본질적으로 교육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태권도는 그 자체의 본질에서 교육적 이념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태권도는 「무도」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武道)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쓰는 한 태권도가 무도임이 틀림없다면 태권도는 교육적 이념을 스스로 품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도」란 교육적 이념을 첨가한 무술이기 때문이다.

싸움하는 기술이 무술이라면 무술을 인간교육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무도이다. 때문에 무도로서 태권도는 교육적인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만 현대 태권도는 수련층의 주류가 저연령층이 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무술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고 무술의 실용범위가 감소해 감에 따라 태권도의 무술적 기반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응하여 태권도 교육의 목적을 빨리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에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장태권도 교육의 목적정립은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태권도 지도와 태권도 교육은 다른 것이다

교육의 목적을 규명하기에 앞서 먼저 「태권도 지도」와 「태권도 교육」의 차이를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도장태권도 교육은 그 초점이 태권도 지도에 있었다. 즉 기술전수와 기술획득이 교육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태권도의 기술을 배움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지가 장 큰 목적일때 이때 필요한 것이 태권도 지도인 것이다. 이처럼 태권도 지도란 태권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데만 주력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 교육—적어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은 제일의 목적이 기술의 전수가 아니다. 태권도 기술의 전수와 수련의 결과와 과정을 통하여 수련자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인간으로 변화하게 만들것을 의도하는 것이 태권도 교육이다. 태권도 교육에서 기술은 그 수단이거나 세부목적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최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 형성—인간 완성이다.

현대사회는 태권도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태권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전통적인 태권도 지도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을 만치 다양하고 크다. 양적으로 많은 수련생들을 소화하고 있으며 또 교육적 요구가 크고도 까다로운 청소년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태권도의 기술의 전수라는 좁은 영역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호신기술에 대한 요구 또는 무술적 측면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그 비중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외적인 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태권도 내적으로도 비대해진 사회도장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권도 도장 교육의 가치를 보편적인 교육적 가치로 확대시켜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 볼때 태권도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태세가 오늘의 국내도장 태권도 일선에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장교육이 「태권도 기술의 지도」에서 「태권도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태권도 도장에 대한 급증하는 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시키고 태권도가 지니고 있던 보다 높은 본질적 가치인 교육적 이상을 사회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III. 태권도 교육이란 무엇인가

태권도를 통한 교육이다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상을 나누어 본다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형식적 교육, 비형식적 교육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또 교육의 내용 또는 소재에 따라 지식교육, 체육교육, 예능교육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권도 교육이란 태권도를 교육 내용과 소재로 하는 사회도장 교육을 뜻한다.

태권도 교육에서 태권도 기술의 획득은 그 자체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될 때는 태권도 지도가 되고 만다.

태권도를 통한 인간형성은 더 나아가서는 인간완성을

도모한다는 것, 그것이 태권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태권도 교육의 중요한 뜻이다. 태권도를 지도하고 수련하는 과정과 또 그 결과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 또는 그것을 조금만 조작하면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바로 태권도 교육이 지닌 가치이다.

특히, 태권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독특한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사회도장 교육의 존립가치로서 주장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될 것이다.

태권도 도장교육이 아무런 인간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의 내용이 태권도를 통하지 않고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사범의 일반적인 훈시나 계도 또는 다른 내용의 교육소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태권도 교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태권도 교육과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태권도가 가진 교육적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고안되었을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간형성-인간완성을 위한 교육이다.

태권도의 수련동기는 다양하다.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직업, 사회적 지위, 개인의 기호나 취향, 그리고 현재의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서 각각각색의 수련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들을 하나로 묶어 표현한다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보다 나은 인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 현재의 자기에서 부족된 면 또는 갖추고자 하는 면을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태권도 수련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를 통하여 개인이 보다 나은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수련을 원하는 것이다. 과연 태권도가 지닌 가능성, 좀더 엄밀히 말하여 교육적 가능성은 무엇인가?

태권도가 무술이라는 특성, 그러므로 태권도를 익힘으로써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점, 또 그러한 신체적, 기술적 능력에 수반하여 정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인가?

태권도가 투기라는 특성, 그러므로 공격본성을 충족시켜 주고 격투적 거름 속에서 자신의 심·신을 단련하고 자기 표현을 명백히 하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의 주요인인가?

태권도가 수행적 수련전통과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의 고된 단련과 무한한 절제경지의 추구를 향한 끊임없는 정신을 요구한다는 점이 그 가능성의 근원일까?

태권도에 내재한 교육적 가능성은 이러한 점들 외에도 풍부하다. 결론적으로 태권도는 어떤 가능성을 위해 전제된 과정이거나 소재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가능성이란 태권도가 그 자체를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한 형태 또는 상(像)이다. 즉 이상적 인간상(人間像)인 것이다.

기술을 통해서건 정신을 통해서건 혹은 과정을 통해서건 개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태권도의 교육적 이념이요 기술의 궁극목적이자 정신의 요체인 것이다. 태권도 정신이란 어려운 논쟁의 소재가 아니라 실은 태권도가 회귀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내적 의지요 정서적 태도와 윤리적 이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권도는 본질로서 교육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의 교육이 기술의 전수와 그것을 통한 무술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의 양성을 최고 목적으로 삼는 것은 태권도의 본질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되며, 그렇게 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태권도 교육이 아닌 태권도 지도에 머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태권도 교육이란 태권도가 본질에 용하여 전체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현실적으로 생산해 내기 위하여 태권도를 수단으로, 소재로 하여 인간을 변화시켜 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교육의 이념 또는 최고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인간완성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회도장 태권도는 이러한 보다 크고 가치 지향적인 교육 목적을 명시적으로, 합일적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술여 가야할 것이다.

*다음 호에는 「태권도의 교육적 특성과 태권도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가 계속됩니다.

태권도 역사

본회에서는 태권도의 다양한 수련층과 독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태권도 교육방법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와 고증을 토대로하여 태권도의 이론적정립을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 대한태권도협회 편집분과 위원회 —

역사적 연구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다양하게 분류가 되나 대체적으로,

첫째,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며 어느 부분에서 부터 어느 부분까지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고 둘째, 이것이 결정되면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와 정보의 수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와 정보를 체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쳐야 한다.

셋째,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기 전에 그 자료가 선택된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가? 그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그 시기와 연계성이 있는가? 진품인가?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기록된 자료인가? 등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비평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역사의 시대적 구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태권도의 시대구분을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4 단계적 구분방법으로 나누고 고대를 삼국시대까지, 중세는 고려시대, 근대는 조선과 대한제국까지, 현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1. 고대의 태권도

(1) 태권도의 기원

고대원시사회의 생활은 자신과 동족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수단(本能的手段)으로서, 맹수나 다른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싸우는 기술 즉 투기(鬪技)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호신술(護身術)의 형태가 발전하게 되었다.

농업을 주요하던 농경시대였던 이 시대에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는 다른 동물보다 우세하지 못하다고 하는 인간은 고대시대로부터 동물적인 현대인 명석한 두뇌와 지혜를 바탕으로 자연과 의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를 발명하고,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지는 것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 집단생활(集團生活)과 부족생활(部族生活)을 하여 마침내 조직적인 규율을 가진 생활을 하게 되었다.

고대의 그리이스의 문명에서도 다신교(多神敎)로서 올림피스의 12신을 비롯하여 많은 신들에게 제사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시기에는 각 부족과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고 각종 행사를 하였다. 그리이스의 올림피아 경기도 이러한 일종으로서 신의 영을 위로하기 위한 제전경기(祭典競技)를 행하여 오늘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의 제전인 올림픽의 근간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이 농업 위주의 농경국가로서 민족신앙은 주로 천신(天神), 태양을 숭상하게 되었으며 한(韓) 민족의 전통사상(傳統思想)에서도 대자연의 산천초목 속에 깃들여 있는 성영(聖靈)에 의하여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이 결

정된다고 믿는 신앙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성영(聖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숭배 되어온 대상은,

첫째, 천신(天神)

둘째, 지신(地神)

셋째, 인영(人靈)이었다.

천신에 대한 존경이 태양숭배(太陽崇拜)로 나타나게 되었고, 지신에 대한 존경이 산악숭배(山岳崇拜), 해룡왕(海龍王), 하천신(河川神), 마을신으로 인영에 대한 존경은 조상숭배(祖上崇拜)와 영웅신 숭배(英雄神崇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간신앙(民間信仰)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상고시대에 5월 하중(下種)과 10월 추수가 끝나면 균경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각 부족에 따라서 부여의 영고(迎鼓), 마한의 무천(舞天), 고구려의 동맹(東盟), 신라에서는 가배(加拜)와 그의 시월제(十月祭) 등(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夫餘條, 馬韓條) 각기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성질의 제례행사가 있었다.

이러한 제신(諸神)을 섬기며 제례를 지내는 곳을 소두(蘇頭) 또는 소도(蘇塗)라 하였고, 이 지역을 금기성역(禁忌聖域)으로 정하고, 이 제(祭)를 주관하는 사람을 천군(天君)이라 불렀다. 이러한 제례가 끝나고 나면 여흥으로 가무를 즐기며 서로 힘차람을 하는 대회의 투기(鬪技)를 하였다는 기록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성으로 보아 그리이스의 올림피아 경기처럼 무예와 투기가 성행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을 단위와 부족이 모여 도시국가를 형성하여 오던 시대에서 국가적인 체계를 갖춘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이른바 삼국시대에 접어 들면서 무예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필요성이 절실하여 심신단련의 일환으로 무술 연마에 힘쓴 기록이 남아 있다.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에 보면 "수술(手術)은 검술(劍術)의 기본이다"라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검술인(劍術人)은 맨손으로 하는 무예를 필수적으로 익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와서 무예의 명칭은 각국마다 조금씩 달라, 고구려에서는 「선배」라고 불리워졌고 백제에서는 「수벽타」, 신라에서는 「수박」, 「덕견이」등으로 불리

워져 삼국이 모두 택전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택전은 건국초기의 고구려에서 선배라는 무사단을 조직하여 강력히 행해왔다. 후일에 신라로 전해져 내려와 팔관회나 한가위같은 모임에서 화랑이 거론 경기에 택전(수박, 덕견이, 덕견이)이 포함되어 실시했다는 것은 이미 2세기경부터 실시해 오던 투기가 택전으로 체계화되면서 선배가 당시 무예의 기본으로 행하고 있었으며 4세기부터는 오늘날의 학교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당시의 태학과 경당에서 체계적인 무예를 교육함으로써 무용총 벽화의 겨루기도와 같이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에 들어와 택전은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중요교과목으로서, 무예를 수련하는 정신적 기본으로서 발전하여 한층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고구려 시대의 선배와 택전

기원전 37년에 북부여(北扶餘)의 주몽(朱蒙)에 의하여 세워진 고구려는 민족 특유의 왕성한 투쟁정신과 상무정신으로 313년(미천왕 14년)에는 400여년이나 내려오던 낙남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정복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19대 광개토왕과 20대 장수왕때에는 국력의 전성기를 이루어 북은 송화강(松花江), 서는 라오허강(遼河)을 넘었고 남은 아산(牙山)을 연결하는 삼국 중 가장 광활한 국토의 위용을 자랑하며 남하하여 백제와 신라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고구려에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자료(資料)가 부족한 것은 역사를 서술하는데는 당시의 사기(史記)나 후세 사가(史家)들이 적은 기록과 고증, 물증 등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신라에 비하여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다.

신채호(申采浩)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는 "국선화랑(國仙花郎)은 고구려의 선배제도를 닮아"라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의 「선배」라는 무사단이 신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3월, 10월에 산수도 단전의 경기회에서 「선배」를 뽑아 학문에 힘쓰고 수박(手搏), 격검(擊劍), 사예(射藝), 기마(騎馬), 덕견이, 강강질, 씨름 등 각종 기예(技藝)를 하여 원근산수(遠近山水)에 탐험하여 전장에 나아가 죽음을 영광으로 알고 공익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이 「선배」와 같다"라고 하여 신라

(百濟本記 比流五條)편에 보면 “비류왕 17년 8월에 서쪽에 사대(射臺)를 쌓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활쏘기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활쏘기 뿐만이 아니라 해동죽지(海東竹枝)에 적힌 수술(手術)은 검술(劍術)의 기본이다 라는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무예(武藝)를 행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본서기(日本書記)는 당시 우리의 문화 예술이 흘러들어와 글자의 기록조차 없던 왜국(倭國)에 문명을 일깨워 줄정도의 영향을 주어 일본의 국사(國史)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서기(日本書記)가 만들어졌는데 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 때에 백제의 국사(國史)인 서기(書記)를 고흥(高興)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여 이것을 왜(倭)에 가르쳤다. 또한 근구수왕(近仇首王) 때에는 왜에서 아라타와케(荒田別) 등을 보내어 학자와 서적을 청하사 왕인(王仁)을 보내어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으니 고구려 때의 625년에 혜관(慧灌)이 왜에 건너가 삼론종(三論宗)의 시조가 되고 영양왕 때의 혜자(惠慈)는 쇼묘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것과 같이 백제 시대에도 왜에 여러모로 교육적 영향을 주어 현존하는 일본의 국사(國史)라고 하는 서기는 삼국시대의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저술된 책자들 본떠 만들었다. 현재 실존해 있는 일본의 천황은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은 일본국의 스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삼국시대부터 받아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부분에 “백제의 사인, 대좌평, 지적 등을 일본 조정에서 초청하여 일본 건아들과 상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4) 신라시대의 화랑도와 택건

기원전 57년 박혁거세(朴赫居世)에 의하여 한반도의 동남방 지대에서 서라벌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신라는 건국초기에는 외적의 침입이 없어 평화로운 생활을 하였으나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확장과 세력팽창으로 삼국이 정립하여 상충적대(相衝敵對)하게 되면서 무예의 발달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신라의 무예로 대표할만한 것은 화랑도의 수련을 들 수 있다. 무예적인 가치가 높으며 택건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화랑에 대하여 좀더 알아본 다음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의 택건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화랑에 관한 기록은 동국통감(東國通鑑),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

國遺事) 등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화랑은 본래 풍월도(風月道), 풍류도(風流道), 국선도(國仙道)로 불리워져 왔고, BC576년인 진흥왕 37년에 미모의 젊은 여성들인 원화(原花)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단체(靑少年團體)로부터 출발하여 청소년 수양단체(靑少年修養團體)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통감(東國通鑑, 卷五, 眞興王 卽位年條)에 나타난 기록에서 화랑에 대한 정신과, 사상, 무예수련을 통한 심신단련의 도(道)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랑의 설립목적은 국가부흥을 위한 청소년 수양단체였으며, 그들은 여기서 심신을 수련하고 도덕과 교양을 쌓으며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혀 전(戰時)에는 용감무쌍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기 위함이었다.

둘째, 화랑도의 사상을 종합해 보면 충효(忠孝) 정신이다.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최치원(崔致遠)의 경랑비서문(驚郎碑序文)의 내용에서 보면 유교(儒敎)불교(佛敎) 선교(仙敎)가 포함되어 백성을 교화했다. 집에 들어와서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유교와 같고, 무위(無爲)를 일삼고 행(行)하되 말하지 아니함은 선교(仙敎)와 같고, 제의(諸惡)은 하지말고 계선(諸善)은 봉행(奉行)하도록 함은 불교(佛敎)와 같다고 하였다.

셋째, 그들의 수련방법은 5상(五常)과 6예(六藝)인데 5상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과 충(忠)·효(孝)·신(信)·용(勇)·인(仁)이며, 6예는 공(工)·예(禮)·락(樂)·사(射)·서(書)·교(敎)인데 그 속에는 권박(拳搏)이 중요 수련과목의 하나였다고 하니 택건의 수련을 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화랑의 기풍(氣風)은 세속오계(世俗五戒)에도 나타나 있듯이 대의(大義)를 중요시 하였다. 즉 국가와 천우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의 일을 위하여 살고 죽으며, 전장에서 후퇴하지 않고, 남의 죽음을 방안에 누워 맞기를 꺼렸다 하니 가히 화랑의 기풍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비롯된 화랑도에서 신라시대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는데 삼국통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는데 주역이 되는 김유신과 김춘추같은 인물이

의 화랑도가 고구려(高句麗)의 무사단(武士團)인「선배」에서 본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의 「선배」에 대한 해석을 보면 발해사에서는 「선배」를 사정병(士正兵)이라고 하였고, 해상장록에서는 고구려의 장군 명립담부와 연개소문이 「선배」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생(男生)의 묘비에도 그가 선배의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선배」라는 이름은 관직명이 아니라 하나의 무사집단(武士集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교화(教化) 담당을 「참임」(參任)이라고 하고 무예(武藝)를 담당하는 사람을 「조의」(冑衣)라 하였다고 한다.

제6대 태조왕(太祖王) 때에 당시의 국왕 중심의 관계 조직이 성립되어 10계(階)의 관등을 설치하였는데 고추가(古臚加), 상가(相加), 대로(對廬), 폐자(沛者), 주부(主簿), 우태(優台), 사자(使者), 조의(冑衣), 선인(先人) 등이 그것이다.

선교(仙敎)의 신채증시사상에서 심신단련과 무술연마를 위해서 차력(借力), 축지법(縮地法), 투기(鬪技) 등을 행하다가 국가유사시에는 과감히 전장에 나아가 평소에 수련한 무술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웠는데, 이들이 고구려의 조의선인(冑衣先人)이며 신라의 화랑이었으며, 이것은 보다 거슬러 올라가 단군고도(檀君古道)의 제천행사(祭天行事) 때 행해지던 소도(蘇塗)의 산물이며 이들을 소도무사(蘇塗武士)이라고, 단재 신채호는 표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해석과 의미는 역사적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나 조의선인(冑衣先人), 백의선인(帛衣仙人), 예속선인(醫屬先人)이라고 불리우는 선배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가지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무사단(武士團)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안호상은 「선배」에 대한 해석을 그의 저서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열」에서 「선배」는 이두문(吏讀文)으로 선인(仙人) 또는 선인(先人)이라 했는데 「선」(仙)과 「선」(先)은 선배의 「선」의 음(音)을 취한 것이며 「인」(人)은 선배의 「배」의 의(義)를 취한 것으로 원래는 신수도교의 보통명칭(普通名稱)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구려 시대의 중요한 교육문화의 유산으로 제17대 소수림왕 2년에 태학(太學)을 세워 교육기관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였는데 이 태학은 우리나

라 역사상 국립대학의 시초가 된다. 중요과목은 경학(經學), 문학(文學), 무예(武藝)의 3과(科)로 나누어 교육하였으니 이 태학에서 무예를 중요과목으로 설정한만큼 고구려는 무예의 기본이며 근간인 택견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아 으뜸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유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영토였던 통구지방에서 발견된 고분의 벽화에는 당시 고구려 국민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씩씩한 상무정신(尙武精神)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삼실총(三室塚) 제3실 서쪽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무인(武人)이 맨손으로 수련하는 모습이 생동감있게 잘 묘사되어 있으며, 무용총의 현실과 주실(主室) 비벽(比壁) 천장 고임부분에는 두 사람이 마주서서 서로 공격하려고 하는 찰라, 즉 오늘날 태권도의 겨루기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고구려 시대에는 씨름과 택견은 분리되어 행하여졌으며 그 증거로서는 각저총의 각저도에 보면 두 사람이 해가 뜬날 큰나무 밑에서 서로 마주 잡고 씨름을 하고 있으며 무용총의 겨루기도와 같이 대조적인 그 시대의 무예 종류가 현저히 분리되어 행해졌음을 반영하여 주는 귀중한 자료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료와 각종 자료로 볼때 고구려 시대에 매년 제례행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택견을 포함한 각종 무예 행사를 하였으며, 고구려의 벽화들은 6세기초, 기원전 520년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나라의 택견이 어느 나라의 무술보다 앞서 행하여졌음을 입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백제시대의 택견

기원전 18년에 온조(溫祚)에 의해서 건국된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에 비하여 택견을 행하였다는 실증자료와 기록은 적으나 해동운기(海東韻記)에 실린 시(詩)에 적힌 내용을 보면 수벽타(手癖打)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사병(士兵)들에게 가르쳤는데 두 손이 왔다갔다 하는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기록을 보면 백제시대에도 택견이 상당히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이십오사(二十五史)에 의하면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이 언어, 풍속, 신앙, 문화, 오락 등이 같다고 하였으며, 후일 충성도와 전라도 양 도민이 민속경기(民俗競技)로 택견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 24권 백제본기 비류오조

대표적 화랑무사단 출신인 것이다.

신채호(申采浩)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의 내용에서도 화랑들이 학문에 힘쓰며 수박(手搏)·칼쓰기·활쏘기·말타기·덕건이·계검질·씨름 등을 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화랑의 중요 수련과목 중 덕건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에 조각된 금강역 사상이나 인왕상에 무인의 수련 모습에서 이를 확고히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BC 634년 선덕왕 3년에 세워진 분황사탑 기단의 인왕상이나 분황사 동남쪽의 폐사지에서 발견된 금강역 사상, 석굴암의 금강역사상이나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조(銅造) 금강역사상을 보면 공격과 방어의 동작을 뚜렷이 볼 수 있다.

2. 중세의 태권도

BC918년 후삼국(後三國)으로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면서 이룩한 고려는 사회제도상으로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인 만큼 무반의 비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예의 중요성을 한층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그 기술도 삼국시대를 거쳐 오면서 한층 다양화되었으며 수련을 위한 조직 또한 강화되었다.

이 시대의 무예가치는 비술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무반인(武班人)의 필수 과목이었고, 그 기술과 위력도 인명을 살상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무예로 반전하게 되었다. 수련형태 또한 오병수박희(五兵手搏戲)라 하여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기법을 익혔으며, 현재의 시범단과 같이 위력적인 시범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하였음을 사료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사(高麗史 卷126, 列傳39, 변인렬條, 卷128, 列傳41, 이의민條, 卷129, 列傳42, 최충헌條)에는 덕건을 수박(手搏)이라고 기록하였으며, 제18대 의종(毅宗)은 “이의민이 수박을 잘하여 대정(隊正)에서 별장(別將)으로 승진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최충헌이 손님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중방의 힘센자로 하여금 수박희(手搏戲)를 시키고 기인자에게 교위(校尉)나 대정(隊正) 비술을 주었다”든지 “변안렬이 임견미 염흥방 등과 수박을 하여 이긴 결과로 밀직부사에서 밀직사사로 승진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수박(택견)을 잘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예우로 비술의 승진 기회를 주었는가를 알 수

있다.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당시에 상호 겨루기를 통하여 승자를 가려내는데는 일정한 겨루기 규칙과 함께 심판이 이와 같은 경기를 주관하였으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당시 수박(택견)을 하는 무인들의 위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王)의 관심을 들 수 있다.

고려사(상계서, 의의민조)에는 의의민과 두 경승이 서로 힘차랑을 하는데 의의민이 맨주먹으로 기둥을 치니 시꺼래가 움직였고, 두 경승이 주먹으로 벽을 치니 주먹이 벽을 뚫고 나갔다고 했으며, 의의민이 맨손으로 사람의 척추를 쳐서 살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 도중에 오문전에 이르러 무신들로 하여금 오병수박희(五兵手搏戲)를 하도록 하였다. (상계서, 卷128, 열전41. 정중부조)라고 하였으니 당시 무신들이 단체적으로 왕앞에서 시범과 겨루기를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충혜왕이 상춘정, 화비궁, 마암 등에서 수박회를 보았다. (상계서, 卷36. 충혜왕)라고 한것은 왕이 행차시에는 전문적인 시범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왕이 수박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당시의 수박회가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무인들의 수련에 있어서 필수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속경기로서 체계를 이루어 갔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화악이 발명되고 새로운 병기가 등장함에 따라서 국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줄어들기 시작한 반면에 민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민속경기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갔다.

조선상고사(신채호)에는 송도 수박이 조선까지 내려오고 있다 하였고, 고려사(정인지, 김종서, 卷39.)에는 “수박(手搏)으로 돈이나 물건을 내기 한 자는 곤장 일백이며, 유숙시킨 주인 및 노름 밀천을 대준자 또한 곤장이 일백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은 민속경기로서의 출발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며, 일반 서민층까지 수박이 저변확대되어 이를 돈이나 물건내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한 것을 보아 많은 백성들이 민속경기로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다음은 근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가\족\이\함\께\읽\는\동\화\

쫄레 나무

글·권용철



가 / 족 / 이 / 함 / 께 / 읽 / 는 / 동 / 화

연두빛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민들레랑 풀들은 파란 싹을 땅 위로 내밀었습니다. 늙은 대추나무랑 나무들도 풋보리알 같은 잎망을 뿔뿔룩 터뜨렸습니다.

절레 열매는 저도 어서 싹을 틔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과 언덕은 파란 물감을 뿌리는 듯 나날이 푸르러 갔습니다.

“다른 풀들은 모두 싹을 틔워 잘도 자라는데…….”

절레 열매는 속이상해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운다고 어디 싹이 트니, 울지 마라.”

누군가 선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밭둑에 서 있는 늙은 대추나무였습니다.

“대추나무 할아버지, 전 왜 싹이 트지 않아요?”

절레 열매는 울음을 그치며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돌맹이 위에 있기 때문이지.”

대추나무는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어요?”

“땅 어머니의 품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모든 씨앗은 땅 어머니의 품에 안겨야만 싹을 틔울 수 있단다.”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절레 열매는 기뻐하며 땅 어머니의 품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씨앗들이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큰일났구나. 이대로 있으면 싹을 틔울 수 없게 되는데…….”

절레 열매는 애가 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군가 도와 줄테니…….”

대추나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레 열매는 마음으로나마 땅 어머니의 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루는 돌맹이 밑에서 ‘야, 저기 맛있는 먹이가 있구나’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개미들이었습니다. 개미들은 다투어 돌맹이 위로 기어올라왔습니다.

가 족 이 함 께 읽 는 동 화

“야, 이 과일 참 맛있겠는데!”

“우리 이 먹이 집으로 가져 가.”

개미들은 ‘영차영차’ 하며 쨌레 열매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쨌레 열매는 돌맹이 위에서 내려와 개미 집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구멍은 작아서 안 들어가겠어.”

“그럼 저쪽 구멍으로 가지고 들어가.”

개미들은 잠시 쉬다가 제일 큰 구멍으로 쨌레 열매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한데 조금 들어가다가 구멍이 작아서 더이상 움직여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끌고 와서 버리려니 아까운데…….”

“그러게 말야.”

개미들은 쨌레 열매에 남아 있는 즙을 빨아 먹은 다음, 다른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쨌레 열매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땅 어머니의 품으로 오게 되었으니까요.

“잘 왔어요. 그 동안 나도 속을 많이 태웠어. 난 씨앗을 보면 싹을 틔워 주고 싶어 못 견디거든.”

땅어머니는 쨌레 열매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 포근해. 땅 어머니, 언제쯤이면 싹을 틔울 수 있어요?”

“며칠 후면. 넌 그 동안 잠이나 자도록 하렴.”

땅 어머니는 자장가를 불러 주었습니다.

잘 자라 쨌레 이야기

흰꽃을 피우는 꿈을 꾸며

쨌레 열매는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땅 어머니는 촉촉한 흙과 따스한 햇살로 만든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쨌레 열매는 가슴이 벌어지는 것 같아 눈을떴습니다. 땅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주무시지 않으세요?”

“너를 돌보아야지. 한 생명을 싹 트게 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니.”

땅 어머니는 눈가에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왜 저의 임마도 아니면서 이처럼 애를 써 주시는 거예요?”

가 / 족 / 이 / 함 / 께 / 읽 / 는 / 동 / 화 /

절레 열매는 가슴이 몽클해져 물었습니다.

“기쁘니까. 좀더 자렴. 새벽녘이 되어야 싹이 트게 될 테니.”

땅 어머니는 절레 열매의 가슴을 토닥거리 주었습니다.

절레 열매는 다시 잠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절레 열매는 드디어 싹을 틔웠습니다.

“아주 귀여운 움이구나.”

땅 어머니는 몹시 대견해 했습니다.

절레의 움싹은 이틀 후, 밝은 햇빛 세상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대추나무 할아버지, 안녕하셔요?”

절레의 움싹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드디어 싹을 틔웠구나. 어서 자라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많이 맺으려무나.”

대추나무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추나무 할아버지, 이젠 저 혼자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그래야지.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수도 있단다. 이를테면…….”

대추나무는 말 끝을 흐렸습니다.

햇살은 날이 갈수록 더욱 기름져 갔습니다.

절레의 움싹은 몰라보리 만큼 움썩움썩 잘 자랐습니다. 움잎이 나는가 싶더니 어느 새 키도 커지고, 가지도 나왔습니다. 줄기에는 작은 가시도 가득 돋았습니다.

오월이 되자, 날이 몹시 가물었습니다. 땅 어머니의 품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아이, 목말라. 실뿌리야, 뿔하니! 어서 물을 빨아 올리지 않고!”

절레나무는 실뿌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물이 없어요. 샘이란 샘은 모두 말라 버렸단 말어요.”

실뿌리는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레나무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절레나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이젠 살아도 며칠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내

가 족 이 함 계 읽 는 동 화

렸습니다. 도랑에서는 금새 물 내려가는 소리가 팔팔 들려왔습니다.

절레나무는 정신없이 물을 들이켰습니다. 아,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물을 실컷 마신 절레나무는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소나기는 저녁나절이 되자, 뚝 그쳤습니다. 구름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하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젠 나 혼자 힘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겠지.”

절레나무는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녹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

절레나무는 대추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건 해님이 빛나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 식물들은 햇빛과 물로 녹말을 만들거든. 한데 해님이 구름에 가려 있으니…….”

대추나무는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절레나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열흘 후 말끔히 개었습니다.

햇빛은 샘물에 씻은 듯 밝고 신선하게 빛났습니다.

절레나무는 마음 속까지 햇빛이 가득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절레나무는 잠시도 쉬지 않고 햇빛과 물로 양분을 만들었습니다.

보리가 익을 무렵이 되자, 절레나무에는 꽃망울이 가득 맺혔습니다. 파란 구슬 같은 꽃망울은 점점 붉어가다가 하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레나무는 더욱 많은 녹말을 만들어 꽃송이한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좀처럼 맺히지 않았습니다.

“대추나무 할아버지, 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절레나무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나비와 벌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이 꽃가루를 옮겨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그러니 어서 꿀을 많이 만들도록 하렴.”

대추나무는 허뭇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레나무는 대추나무의 말대로 꿀을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꽃송이의 꿀

가/족/이/함/께/읽/는/동/화/

샘에 꿀이 가득 차자, 벌과 나비들은 다투어 찾아왔습니다.

꽃잎이 질 무렵, 꽃받침에는 작은 열매들이 조롱조롱 열렸습니다. 열매들은 가을이 되자, 빨갭게 익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 씨앗들은 새로운 켈레나무로 태어나, 많은 자손들을 퍼뜨리게 되겠지.”

켈레나무는 열매 아기들을 바라보며 흐뭇해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자, 켈레나무의 잎은 하나 둘 떨어졌습니다. 기러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하루는 눈이 흠뻑 내렸습니다.

산새들은 춥고 배가 고파 켈레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켈레나무님, 이 열매 좀 주세요. 빠릿 빠릿…….”

산새들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안돼, 봄 여름내 얼마나 애를 써서 얻은 열매인데. 이 열매 아기들은 내 생명과 같은 것들이야. 우리 켈레나무의 대를 이어갈 귀한 열매들이란 말야.”

켈레나무는 필적 뛰며 말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다른 데서는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찌르찌르……”

“너희들은 사랑스러운 네 아기들을 남의 먹이로 주겠니?”

“아이 배 고파, 어떡하지... 이러다간 굶어 죽겠어.”

산새들은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켈레나무는 언젠가 싹을 틔우지 못해 울던 일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겪은 다른 일들도 잇달아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땅 어머니랑 많은 이들이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열매 또한 맺을 수 있었어.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도 없이 나를 생각해 주었 듯,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되어야지.”

켈레나무는 산새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새들은 울음을 그치고, 맛나게 켈레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켈레나무는 이 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땅 어머니랑 해님이 바라는 것도 없이 왜 것처럼 남을 생각해 주는지, 이 게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모과빛 햇살이 눈 덮인 켈레나무를 가득 비취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나절이었습니다.



권 용 철

작가약력

- 경북 안동 출생
-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65년)
- 소천아동문학상 수상 (73년)
- 문공부 문예상 수상 (69년)
- 성균관대학교 졸업
- 동화집 「하얀 불새의 꿈」 외 다수

태권가족



이 향원





제 4 회



제 1 장 용마산(龍馬山) 기슭

5. 필화(筆禍)의 덕(德)

“펜(文)은 칼(武)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중학교 때 영문법시간에 정관사 「the」에 대하여 배우던 관용어였다.

현옥은 대학에 들어가서야 「pen」(펜)이라는 단어가 교도소의 뜻인 「페니텐서리」(penitentiary)의 속어(俗語)로도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아름든 세치 혀나 한 뼉 붓을 잘못 놀리면 고급을 막론하고 화(禍)를 당하는 것을 보면 “같은 펜을 교도소로 보낸다.”는 회자(隄笑)도 생길 법하다.

현옥이 국민학교 6학년에 오르면서 「지프」차의 아침, 저녁 출입이 딱 끊어 졌다. 뒷 채 지하실 창고를 열어 2층 별채를 지은지 얼마 안되서였다.

봄이 올든 뒷뜰의 나뭇가지 사이로 용마산의 공지선이 둥글게 솟아오르는 여명이 조금 지난 아침이었다.

「메리」가 심상치 않게 짙는 소리에 현옥은 잠에서 깬다.

계여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대문가와 뒷담에 달린 쪽문을 살피고 있었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겁에 질려 울먹이려는 현옥과 형제들을 보고 리건호씨는 말했다.

“아버지가 잠시 출장을 가니까, 너희들 엄마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현옥은 그 때 창 아래로 대문 옆의 세 사람과 뒷담가의 두 사람 모두 다섯사람을 헤아렸다. 그리고 「메리」가 깃어대던 담밖에는 검은색 「지프」차 두대가 시동도 안 끈 채 대기하고 있었다.

흰뿌연 새벽 안개 속에서 「점퍼」차림의 중년사내들의 음울한 표정을 현옥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달포나 걸린 긴 출장여행에서 돌아온 리건호씨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아이들 보는 데서 수감차는 꼴을 봐이기 싫어 그 친구들에게 사정을 했다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언뜻 현옥은 아버지의 출장여행이 범상치 않았음을 알

게 되었다.

“글쟁이도 그만인가 보이!” 자조하는 리건호씨는 그 날 친구들과 밤새 통음(痛飲)했다.

“자네 생각대로 써갈졌으면 진짜 그만 두었음 일 아닌가?” 술만 마시면 춘추의 필법이 어찌고 하면서 리건호씨를 빈정거리던 왕씨 아저씨도 그 날 만큼은 다정스레 잔을 건네는 것이었다.

이대통령에 대한 리건호씨의 시각은 아무래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

씨(氏)는 “국부(國父)가 눈이 파란 여자를 얻을게 뭐람?”이라는 세간의 못마땅함에 역성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상해 임시정부(臨政) 요인들에 대한 박대가 큰 원인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몇몇 임정의 간부들은 이대통령의 오랜 항일(抗日) 투쟁 경력이 오로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사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극언(極言)을 퍼부었다.

김구선생의 각별한 지도를 받은 리건호씨 역시 이대통령이 나라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다.

그리고 해일이 일듯이 영도자에 대한 비판의견을 기고 하고는 붓이 꺾이게 되었다.

후일, 대학신입생 환영회가 끝나고 물려온 현옥의 친구들에게 맥주「파티」를 열어준 자리에서 리건호씨는 말했다.

“우남은 큰 그릇이었지만 두가지 실수를 저질렀어! 하나는 건국의 아버지로서 한국여자를 부인으로 맞았더라면 민족사랑의 허실이 분명했을 테이고,

또 하나는 백범선생과 손잡고 자연스레 정권교체를 했더라면 두분이 「조지·워싱턴」과 「토머스·제퍼슨」처럼 나라 장래를 크게 열 수 있었어!”

리건호씨의 식견(識見)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수정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옥은 아버지의 지나치게 이상(理想)적인 지사주의(至主義)에 심한 적대감을 가졌다.

한 판의 바둑을 두는 짧은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판단착오와 절제의 고통이 뒤따르는가? …….

하물며 절대권좌에 앉아서 훌훌 털고 일어나 민족의 먼 앞날을 예지하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영도자가 몇이나 되는가?

리건호씨는 “너희 중에서 큰 인물이 나오기 바란다”

고 일일이 잔을 채워 주었다.

“우리 세대의 추잡한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날 밤 현옥과 친구들은 잔뜩 취했다.

리건호씨가 젊은 「프래시·맨」들에게 당겨놓은 역사라는 이름의 토론제(討論題)의 불씨가 밤새워 타올랐다.

동 틀 무렵에 몽롱해진 이세(二世)들이 내린 결론은 “백범선생, 바로!”였다.

그러나 현세(現世)의 큰 바보가 다가오는 역사의 증언으로 위대한 현인(賢人)으로 추앙받는 것을 그들은 극명하게 알고 있었다.

현옥의 사춘기는 이대통령이 격노한 리건호씨의 신랄한 붓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다.

씨(氏)가 노욕(老慾)에 대해 붓 땅신을 퍼부은 것이 5년여의 실직자 생활의 시발점이었다.

리건호씨는 가산(家産)을 사벌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화수분예 물 분기처럼 쏟아 내기 시작했다.

백모라는 친구의 꺾여 빠져 황당한 사업성 밖에는 없었던 메추리 인공 부화장을 벌렸다.

육개월 남짓 지나서 현옥이네 집과 이웃집에서 메추리 고치구이와 알조림을 실컷 먹고는 그만이었다.

일제(日製) 부화기계 두대는 고철값에 처분되었다.

리건호씨는 꺾인 붓과 명을진 기계대신 낚시대와 배낭을 짊어지고 몇 달씩이나 집을 비웠다.

육아와 가사에만 이끌이 난 계여사는 남편의 실직과 방랑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은 식도 아줌마를 고향으로 보내는 정도였다.

그리고 아껴 모았던 폐물과 옷가지를 전당포에 옮기는 것이었다.

전당포에 다녀오던 날 하얗게 웃음짓던 어머니의 슬픔을 그저 아름답게만 느끼던 현옥의 나이였다.

본체를 통채로 세우고 새로 지은 이층 별채의 아래층도 남을 들었다.

방 세계에 거실도 넓적했던 본채살림이 두칸 방이 잇달아 붙은 좁은 이층에 들어차지 않아서 또 처분구실이 생기기도 했다.

모래성이 바람에 스러지듯이 현옥이네 살림은 야금야금 기울어만 갔다.

그런 와중에도 현옥은 중학교 입시준비를 위해「과외 공부」를 시작했다.

문교정책은 당시에도 조령모개(朝令暮改)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갑작스레 전과목 시험방침이 국어·산수 두 과목으로 축소되었다.

그 무렵 경기중학에는 덕수나 수송국민학교를 빼고는 국민학교마다 겨우 두셋정도 진학시키던 때였다.

오히려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는 수월하고 또 대학 진학자 절대수가 부족하던 때였으니 말이다.

현옥이 6 학년에 올라가는 봄방학에 리건호씨는 화동에 있던 경기중학교에 데려갔다.

눈이 발목까지 빠지던 삼청동 언덕바지를 오르면서 리건호씨는 말했다.

“아버지가 학교에 다닐 때는 왜놈 고등계 형사가 줄줄 따라다녔단다! 네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철봉에 얽힌 눈을 털고 턱걸이를 해보라는 말에 현옥은 열 한개를 힘들게 해냈다.

“그만하면 볼겠다!” 리건호씨의 기대와는 달리 현옥은 만점을 받은 턱걸이 성적에도 불구하고 낙방했다. 사지선다형 시험문제에서 고쳐 쓴 것이 하필이면 안고친것만 못했다.

일차학교 진학에서는 항상 실패하는 「징크스」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차(二次)입시에는 아예 낮추어 지원하라는 담임 선생의 권유로 중동(中東)학교에 지원했다.

수송동에서 안국동으로 좁게 돌린 골목길을 사이로 둔 조계사 건너편에 중동학교는 손바닥만한 교정에 자리 잡고 있었다.

10분간의 휴식시간과 1시간의 점심시간이면 거의 전교생이 「골」이 운동장 양 끝에 서있는 좁은 교정에서 공을 모두 들고 나와 축구시합을 하던 중학시절이 시작됐다.

심지어는 교실을 이어주는 복도에서도 주먹만한 작은 공을 편을 나누어 차고 뛰었다.

중학교 2, 3학년 쯤 되면 춘정(春情)의 발길질이 공을 이운한 숙명학교로 일부러 차넣고는 공을 찾는다는 핑계로 여학교로 월담을 하기도 했다.

하교(下校)길에 좀 낯곳은 악동들은 옆에 가는 친구의 모자를 벗겨 숙명학교 운동장 안으로 날리기도 했다.

숙명학교 수위아저씨들은 악동들을 야단치면서도 사춘기의 야만에 대해 그다지 싫어하지는 않았다.

「와일드」(wild), 「와이즈」(wise), 「워크」(work)의 「드리·더블유」(three W)가 선배들에게서 이어받는 전통이었다

교사(教師)들 중 상당수가 중등학교 출신이었다. 선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둡고 불행한 학창시절에서도 잃지 않은 배움터에서의 용기와 희망을 후배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일제하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던 선배들의 무용담-대부분 한국인 여학생들을 희롱하던 일본인 학생패를 두들겨 패던 내용이지만-을 늘어 놓느라고 수업진도에 차질이 날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한문을 가르치던 신광호 선생의 광주학생 의거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들의 인기를 모았다.

모두들 세칭 일류중학교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쓰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어서 고배를 마신 상흔이 깊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선배들이 쌓은 전통과 실차 필패의 「콤포텍스」에 대한 반동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금지와 포부를 쌓아 나아갔다.

그리는 가운데 현옥의 가세는 더욱 기울어져만 갔다. 2학년에 올라가자 등록금 납부일자를 지키지 못한 일도 있었다.

담임 선생들은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의 사정을 일일이 몰았다.

현옥은 아버지가 직장에 안나가신지 오래되었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다.

가정환경조사에서 리건호씨는 당당히 사업이라고 써 넣어 주었지만 낚시여행의 속절없는 방랑자라는 것을 현옥은 잘알고 있었다.

막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불어닥친 궁핍의 어려움으로 현옥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났다.

그것은 너무도 무기력한 어머니의 눈물어린 생활고를 어찌할 수 없이 방치해온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싸이었다. 그랬어도 중학교 2학년의 가을은 풍성한 기록도 있었다. 회정누나의 눈매가 얽혀있던 경복궁의 사생대회에서 현옥은 향원정의 그윽한 아취를 전경으로 건너편에서 「스케취」에 몰두하는 어떤 여학생의 프로필을 흐릿하게 채색한 그림으로 입선했다. 그 그림은 순전히 회정누나에 대한 연민의 힘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복도에서 벌어진 반 대항 축구 썰매는 결정전에서 반칙을 심하게 한 친구의 코피를 터뜨린 현장

을 목격한 음악선생에게 합창부에 들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2학년 마지막 등록금이 계속 밀려 못내자 몇몇 담임선생들은 학생들을 귀가시켜서 부모들을 재촉했다.

현욱도 급우 영철과 함께 점심시간 전에 귀가조치를 당했다.

청진동 골목길을 빠져 나오면서 영철이 말했다. “야! 우리 극장에 나 가자”

시네마 극장은 지금의 조선일보사 자리에 있던 3류극장이었다. 30원인가 했던 입장료에 2개의「필름」을 상영했었다.

모자를 벗어 가방 가운데 쑤서넣고 일부러「칼라」도 풀어헤치고 웃단추도 두개쯤 풀면서 불량학생 티를 냈던 영철은 사실은 지극한 호자였다.

미군 영내에서 잡역부로 일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귀가시간을 늦추는 것이었다.

현욱 역시 모자를 꾸겨 쥐면서 누구에겐가 모를 증오를 잇사리로 씹었다.

“에이, 씨팔…”

6. 대감상(大監床)

운성은 국민학교 시절에는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깡·에이지」에 접어드는 고학년 아이들은 보통 비슷한 부류끼리 영역을 형성한다.

가령, 공부를 곧 잘했던 현욱이네 부류는 과외공부 「그룹」 역시 일류중학교 지원이 가능한 아이들끼리 모였던 것 처럼.

그런 점에서 운성은 성격은 중간선이었었고 또 구부락의 몇 안되는 대지주의 2대독자답게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렸다.

그러다가 현욱이 후기중학에 진학하자 전기의 2류중학에 진학한 아이들과는 그 격이 비슷하게 되었다.

현욱으로서 어머니들의 치열한 경쟁심으로 막아놓은 동창생들과의 장벽이 허물어진 오히려 다행이었다.

현욱은 농토가 주택가로 변해가면서 제법 오르는 땅값으로 살림이 넉넉해지기 시작한 구부락의 친구들과 어울렸다.

대방동은 공군·해군 장사병들의 하숙 식월세, 전세 집들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로 주택난이 벌어졌다.

「슬레이트」로 덮은 「블럭」집이 갑자기 늘어났다. 농로로 쓰이던 꼬불꼬불한 소로(小路) 사이로 낮은 막히 터 잠은 초가집 얼마당 마다 「블럭」집들이 웅기 웅기 들어났다.

젊은 위관장교나 하사관들이 전출지를 전전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본부근무의 동시에 결혼생활을 시작하곤 했다.

그 때만 해도 구부락 사람들의 말투는 어눌한 서울말씨 같은 경기도 방언이었는데, 인구가 늘면서 구부락의 우물가 곳곳은 팔도의 말씨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늘어나는 셋방문 마다에는 커다란 자물통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구부락은 군인들의 월급날이면 유통되는 현금으로 제법 활기가 차고 있었다.

춘경추수(春耕秋收)의 오랜 관습에서 깨어난 구부락의 경제는 때맞춰 밝힌 전등불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뒤바꿔 놓기 심상이었다.

그랬어도 험사리 변화되지 않은 구습도 있었다.

할머니들은 집안의 우환 앞에서 그녀의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감상(大監床)을 차려 치성을 드렸다.

손을 비비면서 경건한 표정을 담은 찡글찡글한 운성 할머니의 뺨에서 홍조를 느낄만큼 무당의 호령 앞에서 구부락 여인네들은 변함없이 왜소한 백성이었다.

현욱이 장성하여 소대장 근무를 마치고 찾아갔을 때까지도 운성이네 집에서는 봄·가을로 대감상이 차려졌었다.

운성의 첫사랑이 무당이 불사른 부적의 연기처럼 허망하게 된 것도 바로 대감상에 대한 변함없는 공경심 때문이었다.

운성의 어머니 역시 골수에 사무친 농경사회의 인습인 터춤투대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민의 독실한 기독교신앙과 맹렬히 대치했다.

결국은 집안에서 처음 대학 물을 먹은 운성의 조리 있는 설득도 대(代)이온 머슴살이의 인고를 거쳐 오천석 대농으로 변신한 공을 대감상에 들리는 집안 여인들의 맹신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이렇다.

운성이 나경임을 만난 것은 관광학(觀光學)을 전공한 운성이 경주의 한 관광호텔로 실습나가서였다.

사학(史學)과에 다니던 경임은 고본 탐사여행에서

지도교수와 함께 찾은 「커피숍」에서 「벨·덴」실습을 하던 운성과 조우했다.

밤새 내린 가을비가 아침부터는 제법 줄기가 굵어져 낙엽을 재촉하는 날씨였다.

우산을 접으면 들어서는 경임의 빗방울이 성글어진 어깨 위로 마추친 맑은 눈을 운성은 두고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야, 너네들도 개 눈을 한번 보기만 하면 아찔할거야!”

운성의 방위병 입대날에 처음 경임을 만난 친구들 모두 그녀의 청순한 눈매에 찬탄했다.

방위병 근무 틈틈이 운성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그녀가 끼면 통술집이건 「까페」이건 간에 친구들의 지독한 장난에도 결코 눈웃음 한 번으로 좌중(座中)을 진정시키는 그녀였다.

현옥은 그런 경임의 눈에서 천진 무구한 신앙의 힘을 읽을 수 있었다.

경임의 눈에서는 예지의 빛이 느껴졌다.

지니고 다니는 경임의 기도하는 열열굴 사진의 선은 흡사 마리아상의 「실루엣」같다고 운성이 말했을때 현옥은 두 사람의 결혼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홀어머니와 함께 기독교인이 그녀를 고결하게 키웠지만 우상을 결코 용서치 않는 매운 고집을 그녀는 소유하고 있었다.

“예수쟁이에다가 홀어머니 자식녀이니라니!”

운성의 부모는 완강했다.

처음에는 착하기만 한 운성의 사랑날음에 동정적이었던 출가한 누나들도 경임의 “결코 하나님을 저버릴 순 없다”는 믿음 앞에서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들 역시 어머니의 할머니 적부터 의식의 사슬 속에서 숨쉬어 이어진 대감상의 고리에 꿰어 있었다.

운성의 어머니는 그녀의 시어머니 때부터 치성드러온 곰보무당네에서 사주팔자를 본 후로는 경임을 아예 원수대하듯 했다. “그녀가 우리 집안 망칠 년이러네!”……

운성은 매일같이 만취해서 현옥의 방에 찾아와 경임의 신앙을 매도했다.

“어머니나 수작퍼는 만신이나 그 기집애가 집착하는 기독교아 똑같아! 망할……”

운성은 종교가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막아선다면 그따

위 신(神)은 필요없다고 악을 쓰곤 방툼턱을 베고 잠드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경임을 동정했다.

그리고 운성의 우유부단을 힐난했다.

“병신자식, 네 맘대로 결혼해 나와 살면 될게 아냐?” 친구들의 저주 탓에 운성은 아버이의 신(神)과 숙주인 무당을 상대로 버거운 줄다리기를 했다.

아위어 가는 운성의 물결에 어머니는 굶판을 벌렸다.

운성이네 한옥(韓屋)마당에는 흰 목련이 만개해 있었다.

곰보무당이 초저녁부터 휘젓고 악을 쓰면서 밤이 깊어지자 쟁과 북의 장단이 점점 박자 빠르게 치올랐다.

시퍼런 청룡도를 오른 손에, 왼손에는 부채를 접어 들고는 발이 땅바닥에 닿을 사이도 없이 필필 날뛰는 곰보무당의 몸사위는 성한 사람의 혼까지도 저당잡히기 일수였다.

운성의 방에서 창호문을 사이에 두고 그 장면을 엿보면서 현옥은 원시신앙의 현란한 아름다움과 함께 어스레 그 리듬에 맞춰 박동하고 있는 자신의 심장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새파랗게 날 세운 각두 위에서도 곰보무당네는 신들리게만 기원했다.

불가사의한 힘이 만신의 숙주인 무당의 주술에 깰고 있었다.

이윽고 짙으로 만든 인형에 걸린 십자가를 향해 청룡도가 내리쳐 질 때 현옥은 운성의 줄다리가 끝난 것을 알았다.

할머니의 할머니적부터 여인네의 속적삼 사이에 숨겨져 이어내려온 대감상 차림표 대로 운성의 어머니 역시 이가 시릴 만큼의 찬물에 목욕하고 흰옷차림으로 주술의 망령이 이끄는 대로 흐느적거리고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

이튿날, 운성은 현옥에게 경임과 절교하겠다고 글썽거리면서 선언하는 것이었다.

차마 직접 만나서는 또다시 마음이 변하고 말거라는 운성의 부탁으로 현옥은 경임을 만났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제 기도의 힘이 모라왔나 봐요……”

억지로라도 웃음지으려는 경임의 마지막 말에 현옥은 굶판에서 내리치던 청룡도를 또 한번 본 것 같았다.

▶ 다음호에 계속

태권도 찬가

힘차고 씩씩하게

한 규 인 작사
강 영 화 작곡

Piano introduction in C major, 4/4 time. The right hand features a rhythmic melody with eighth notes and quarter notes, while the left hand provides a steady accompaniment with chords and single notes.

mf

1. 민 주 의 슬 - 기 - 와 언 이 담 긴 우리 의 무에
 2. 씨 씨 하 고 용 - 감 - 한 불 - 굴 의 태 권 도 정 신
 3. 태 권 인 있 는 곳 - 에 정 - 의 가 생 동 하 - 고

First system of the song with vocal lines and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continues with a consistent accompaniment pattern.

불 의 물 물 아 내 - 는 정 의 의 태 권 도
 불 불 끈 진 두 주 버 - 였 민 주 혼 숨 선 다
 슬 기 로 운 지 - 혜 - 와 개 척 의 정 - 신

Second system of the song with vocal lines and piano accompaniment.

에 의 와 인 내 는 태 권 도 - 정 신
 화 랑 정 신 이 어 반 아 통 일 을 이 무 자
 세 계 의 평 화 는 태 권 도 의 이 상

Third system of the song with vocal lines and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concludes with a final chord.

태권도 찬가 제정의 의의

태권도 찬가는 일선도장의 회원은 물론, 각종 태권도 행사 등에서 노래가 불리어 짐으로써, 태권도인의 단결과 화합의 초석이 이루어 질 것이며, 태권도 정신의 함양과, 홍보의 일환으로 태권도의 노래를 제작 발표하오니 널리 보급되어 애창 되기를 바랍니다.

f

원 도 부 기 합 소리 천 지 물 혼 든 다
단 군 자 손 배 의 민족 정 의 의 사 도
배 국 기 휘 날 리 며 세 계 로 향 한 다

f

태 권 도 는 국 - 기 우 리 의 자 랑

f

열 파 성 을 다 하 여 나 - 라 - 사 랑 하 - 세

■태권도 찬가와 M.B.C어린이 노래자랑 대회 입상곡을 함께 수록한 테이프를 각 시도 협회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198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198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가 1월 15일 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재직 대의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86년도 사업안과 결산안이 승인되었고 1987년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이계광, 인창근 감사를 유임시켰다. 한편 본회에서는 87년도 사업목표를 첫째, 산하지부 및 연맹육성 강화, 둘째,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강화 셋째, 국제대회 파견, 넷째, 태권도 세계화에 따른 기술개발, 다섯째, 태권도 경기 용구 개발, 여섯째, 태권도 경기용품 품질개선 촉구 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태권도인이 단합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태권도 사범자격문제, 여성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체전 여자부경기 채택 문제 등이 토의 검토되었다.



권견욱 중앙대의원



전재규 중앙대의원



박해만 중앙대의원



김수배 중앙대의원



정관갑 서울시대의원



최용수 부산대의원



서종수 대구대의원



한상운 인천대의원



한길진 광주대의원



안중웅 경기대의원



김성태 강원대의원



김윤환 충북대의원



김운용 회장



질의에 응답하는 황순성 본회 전무이사



이계광 감사



서기양 충남대의원



김정록 전남대의원



예조해 경북대의원



이대규 경남대의원



좌봉택 제주대의원



송수안 국교연맹대의원



이영기 대학연맹대의원

1986년도 결산이사회

1986년도 결산이사회가 1월 8일
뉴서울호텔 1031호에서
재적대의원 18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1986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승인되었고 1987년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이
심의 확정되었다.
그밖에 중앙대의원 선출의 건은
집행부에 위임해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을 동의했다.



▲김현우 이사가 김운용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엄 운 규 부회장



김 준 철 부회장



황 춘 성 전무이사



김 신 정 이사



박 승 복 이사



최 운 지 이사



황 경 로 이사



유 상 열 이사



이 종 하 이사



조 동 원 이사



김 현 우 이사



인 창 근 감사

뉴스 쫓점



◀ 김은용 회장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및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SAGOC) 부위원장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국민체위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86년 12월 30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노신영 국무총리가 수여한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했다.



▲ 1986년 12월 31일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거행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유공자 표창수어식에서 본회의 업무규 부회장을 비롯한 전재규, 정찬성, 권갑수, 조종덕씨에게 김종하 대한체육회 회장이 대행한 체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은 전재규 기술심의회 부의장 수상장면)



◀ ▲ 2월 16일 대한체육회 10층 강당에서 거행된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본회의 노우중 운영부장이 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장기근속 표창을, 최홍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인 박봉권 선수가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상측)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협력부위원장인 김운홍 회장은 88서울올림픽 일본지역 텔레비전방영권료를 5천2백만달러로 계약했는데 이는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때의 1천8백50만달러보다 약27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사진은 NHK-TV Shima 대표와 올림픽-TV방영권 계약체결 모습



▲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in a capacity of Vice-President of SLOOC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oncluded a contract on TV Rights of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for Japan area at 52 million dollars which is about 2.7 times of 18.5 million dollars Japan paid for TV rights for 1984 Los Angeles Olympic Games. (Photo shows scene of concluding the contract for Seoul Olympic TV Rights with NHK-TV delegate Mr. Shima)



◀ 1월 14일 가나의 국제, 경제사범 조정관인 Kwamena Ahwoi씨가 김회장을 방문하여 가나의 태권도 보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Mr. Kwamena Ahwoi, PNDC Coordinator, Revenue Commissioners and Investigations, Ghana Government visited Dr. Un Yong Kim and exchanged views on diffusion of Taekwondo in Ghana.

▶ 동독의 체육계 인사들이 국기원을 방문하여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히계체육국장 Joachim Grunwald, NOC위원장 겸 체육심장관 Manfred Ewald, 김회장, NOC부위원장 겸 IOC위원 Gunther Heinze)

Sports leaders from German Democratic Republic visited Kukkiwon and observed Taekwondo demonstrations. From left: Mr. Joachim Grunwald, Head of Summer Sports Department, Mr. Manfred Ewald, President of NOC & Minister of Sports, Dr. Kim and Dr. Gunther Heinze, NOC Vice-President & IOC Member,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1986. 11. 29~30

미국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스포츠센터

1st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At Harmon Aren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 선수단 결단식에서 김운용회장이
이영기 단장에게 단기를 전달하고 있다.

Dr. Un Yong Kim, President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ents national flag to head of the Korean
team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the national team.



▲ 핀급의 김철호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아이보리코스트선수들 2회전에 K.O시
키며 결승에 올라 대만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Mr. Kim, Chol-Ho of Finweight won Gold Medal by eliminating the Ivory
Coast's player by K.O. in second round in the semifinal match and defeating
Chinese Taipei's player in the final match.



▲ 인해진 선수는 많은 국제 시험 경험을 바탕으로
가볍게 결승까지 진출, 금메달을 차지했다.
Mr. In, Hae-Jin easily won Gold Medal by having
played with high techniques and abundant
experience.



캘리포니아 롬비치에 있는 우정의 종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대표 선수단
Korea Taekwondo Team at the Friendship
Pavily in Long Beach, California



▶ 여자부경기에는
5개국에서
28명이 참가. 한국은 금5,
은2, 동1개를 차지했다.
(사진은
밴텀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임신자 선수)

In women's category 28
players have participated
from 5 countries.
Korea won 5 Gold
Medals, 2 Silver Medals
and 1 Bronze Medal.
Miss Lim, Sin-Ja (Korea)
won Gold Medal in the
Bantamweight class.



▲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태권도를 유니버시아드 공식종목으로 승인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우리 나라는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했다.
Korean team won the First Place in the 1st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sponsored by
FISU for the first time since Taekwondo was recognized by FISU.



▲ 이집트 청년체육성장관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이종우 단장.
Mr. Lee, Chong-Woo, Chief Delegate of the demonstration team presents commemorating gifts to Egyptian Minister of Youth and Sports.



▲ 김영작사범이 이집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위력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다.
Mr. Kim, Young-Jak is showing power breaking demonstration at the Military College in Cairo, Egypt.

▼ 우간다 경찰청장 (중앙), 현지의 김남석 사범 (중좌2번째) 과 함께
Demonstration team members with Uganda Police Inspector General (center) and Chief Instructor in Uganda Mr. Kim, Nam-Sok (second from left)



아프리카 5개국

1986. 12. 5

- 이집트·나이지리아·

Taekwondo Demonstration

- Egypt, Nigeria,



▲ 가나 독립기념일에 펼쳐보인 대대적인 태권도 마스게임.

▼ 우간다에서의 격파시범 (박덕규사범)
Power breaking demonstration in Uganda
by Mr. Park, Duk-Kyu.



순회시범대회

~ 1987. 1. 7
우간다·가나·가봉-

Tour to 5 African Countries

Uganda, Ghana, Gabon -



Grand Mass Games shown by Ghana Taekwondo practitioners on Ghana Independence Day.

▼ 가봉에서 시범을 마치고 가봉태권도협회장과 함께.
With President of Gabon Taekwondo Association after demonstrations.



▲ 나이지리아 공항에 영접받은 김무천사범(우측뒤에서 두번째)과 제자수련생들.
Instructor Mr. Kim, Moo-Chon (second from right) and his students came out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to welcome demonstration team.



▲ 시범을 마친 후 우간다 원주민과 함께.
(우측부터 송상근감독, 김영작, 이규형 사범)

With Ugandan indigenous peoples after showing demonstrations.
(from right Manager Mr. Song, Sang Kuen, Mr. Kim, Young Jak and Mr. Lee, Kyu Hyung.)



아비장 국제태권도 경기대회

1986. 12. 13~14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스포츠센터

Abidjan International Taekwondo Tournament

Abidjan Sports Center, Cote D'Ivoire

▶ 김운용회장은 엄운규단체에게
단기를 수여하며 친선을 당부했다.

Dr. Un Yong Kim, KTF President
presents a flag to Head of Team Mr. Uhm, Un-Kyu and
encouraged team members for good fighting and fair-play.



▲ 맨텀급의 홍중만 선수는 연속K.O승을 거두는 등
아시아경기대회때의 패배를 설욕했다.

Mr. Hong, Chong-Mahn, Bantamweight player
made continuous wins by K.O. and recovered
his fame over his defeat in the Asian Games.



▲ 이번 대회에는 주최국인 코트디부아르를 비롯, 중중국 한국과 부르키나파소 등
3개국 이 참가하여 태권도를 통한 친선을 다졌다.

In this international Taekwondo Tournament the native Cote D'Ivoire
team, Korean team and Burkina Faso team participated and exchanged
friendships through Taekwondo.



▶ 아프리카에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고
개성한 대표팀.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returned home after
having displayed the
real features
of Taekwondo.



'88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회장 김 운 용

'86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 체육의 신기원을 이룩하여 아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병인년을 보내고 정묘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보여준 우리 민족의 슬기롭고 단합된 힘을 고양하여, 내년에 개최될 '88서울 올림픽 개최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서울이 세계 스포츠의 수도처럼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으며, ANOC (세계 올림픽 연합회) 총회와 아시아 경기대회 등으로 많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각국 NOC (올림픽 위원회)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거행한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중공과 대등한 메달경쟁을 벌이고 일본을 압도하였음은 물론, 스포츠를 통하여 정치·경제·문화·외교·관광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아시안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무예에서 현대 스포츠로 발전된 모습을 30억 아시아인은 물론, 구미인들에게도 T.V매체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더욱 고양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호주에서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미국에서 월드컵 대회, FISU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아미장 국제 대회 등 네차례에 걸쳐 국제대회 파견을 통해 태권도 세계화를 가속화시켰으며,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 순회 시범단을 파견하여 태권도 보급은 물론 국위 선양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태권도 지도자·연수원에서 2급 경기 지도자 교육 과정을 통해 체육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5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87년도 월드컵 태권도 대회가, 10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제8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10월에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IOC의 요청에 따라 큰 규모의 태권도 시범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 경기대회인 팬암(범·미주) 경기 대회와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도 '87년 벽두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첫 경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이처럼 세계화를 촉진하는 각종 국제경기 및 시범대회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내년에 열리는 '88서울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경기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정신철학을 정립하고, 경기규칙과 경기용구를 과학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태권도의 위치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전력해야 하겠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86년에 마련한 도약대에서 새롭고 튼튼한 2단계 도약대를 구축하는 '87년이 되도록 전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단결과 정진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